朝鮮日報
夕刊
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發行定期刊物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實費診療 期間 至自十二月廿日
內科 西大門醫院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主治醫 李寅善

陵口鎭을今朝奪取
丹陽陷落도目睫間!
海軍航空隊는蕭山을爆滅
徐舍鎭도今朝陷落

【常州에서 一日發同盟特派員】 京滬線을西進中인 ○○部隊는 呂城鎭의 殘敵의 掃蕩을 終了하고 今一日黎明에 다시 前進을 繼續하야 今日午前十一時半에는 陵口鎭을 奪取하엿다 벌서 丹陽의 敵部隊와의間에 衝突이 開始되야 南京方面 二線左翼의 堅陣인 丹陽의 攻略도目睫間에 切迫하엿다

【上海一日發同盟】 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海軍航空隊는 蕭山에 잇는 敵司令部와 集團部隊에 對하야 殲滅的爆擊을敢行하고 또 陸軍部隊의 追擊戰에 協力하야 敵에게 大損害를주엇다

【宜興一日發同盟】 宜興으로부터 西進中인千葉、山田等의 諸部隊는一日早朝부터 徐舍鎭을 占據하고 附近一帶의 殘敵의 掃蕩을 終了하고 文定河에沿하야 南京、杭州街道에 依하야 溧陽으로 向하야前進을開始하엿다 溧陽의 攻略은 刻刻으로 切迫하엿다

津浦線崮山附近서
敵軍用列車를粉碎

【天津一日發同盟】 遂勝部隊의○○機는 三十日午後二時 京漢線遂隆附近에서 約二千의敵大部隊를 發見하고 이를爆擊하야 多大한損害를주엇다 一方中部隊의○○機도同日午後津浦線濟南南方約二十粁의崮山附近에서 때마침 黑煙을 피우고 北上하고잇든 敵軍用列車一輛을 發見하고 荒鷲와가티 이를爆擊하야 徹壓과가티粉碎하엿다

日滿當路者에
南總督이祝電

伊太利國에서 滿洲國을 公式으로 承認함에際하야 南總督은三十日午後 左와如히 滿洲國 張總理大臣、熙宮內府大臣、廣田外相、堀田駐伊大使에 各各 祝電을發하얏다

今般 伊太利國이 貴國을 公式承認한것은 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世界平和、人類의福祉에 貢獻하는바 大하다고信한다 貴國 益益 隆盛하기를빌며 衷心으로써 慶祝의意를表함

滿洲國 張總理大臣 閣下

貴國을 伊太利國이 公式承認한것은 衷心으로써 慶祝하야 謹히 天機를奉伺함

熙宮內府大臣 閣下

今般伊太利國은 滿洲國을 公式으로 承認한것은 이것이畢竟滿洲國의 堅實한 發展을正히視한 伊太利의 賢明한政策이라고信하며 特히閣下의 盡瘁에因한 結果라고 確信하야 日、滿、伊三國의 友好에衷心으로 感謝와慶祝의 意를表함

廣田外務大臣
堀田駐伊大使 閣下

프랑코政權承認과
南總督談

十二月一日부터 帝國이 西班牙『프랑코』政權을 承認함에際하야 一日南總督은 一日午前十一時左와如히 談話를 發表하얏다

我帝國의 프랑코革命政權承認에依하야 世界平和를 爲한防共聯盟은 맛츰내 擴大强化하게되엿스니 世界人類를 爲하야 誠心으로 慶祝不堪하는바이어다 西班牙國은 長期間所謂人民戰線이 共鳴하는 共產主義의 魔手에 亂舞하고잇는政府의 壓迫에依하야 內亂을發生케하야 同胞血肉을 相鬪하는 悲慘事가 續出하야 國家基礎가 危地에陷하야잇는 西班牙國民을 衷心으로써 同情하야마지안는다 프랑코政權에依한 防共各國으로부터 精神的으로 支持를 受하야 光明한 國家가되엿스며 國民生活은 物心兩方面의 安定을得하게된것은 衷히欣喜하는바이다

今日부터實施!
滿洲國治外法權撤廢

【東京電話同盟】帝國의滿洲國治外法權의撤廢와 滿鐵附屬地行政權의移讓은 去十一月五日 新京에서 調印되엿다

滿洲國治外法權의 撤廢와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의移讓에 關한條約에따라 結局 一日부터 全面的으로 實施되게 되엿는데 日滿兩國民이 다가티關心을쏟고잇든 難事業도 建國以來數年이 되지못하야 處理하게되여 日滿一體의 意義잇는 擧는이에 더욱鞏固케되고 때마침伊太利의 滿洲國承認과함께 東亞의新興國으로서의 同國의存在는 더욱宇內에 빗나게되엿다 이는滿洲國建國以來 政府가 諸般의 制度를 整備充實하야 庶政의刷新에 最善의努力을 다함에 依함은 勿論이어니와 日滿兩國官民의 協力이 이를 齎來한것이어서 이에依하야今後에더욱 日滿兩國의 不可分關係는 强化되고 國際防共陣營의 强化에依하야 日滿兩國의世界的平和와 東洋安定에寄與한바 多大한것이엇스리라期待된다

滿洲國政府當局談

【新京三十日發同盟】治外法權撤廢實施와함께 日本軍의 駐屯에關한軍事關係法規는 別項과가티 滿洲定議書의 精神에基하야 滿用調整되여 그軍事的必要의措置가講究되엿다 右에關하야 滿洲國政府는 左와如한 當局談을發表하엿다

我國은 建國以來 아직六年未滿이나 治安의回復되고 庶政의制度가 速히整備되고 庶政이 顯著히 進捗되여 民心의安定을보게되엿은 勿論 聖明한帝國의終始 渝치안는 情誼援助에依함이 多大함은 贅言을不俟하며 御乾德下에 官民一致의 努力에依한것이나 實로友邦日本에서 特히 國防의 全然外侮를防禦하고 官民이 援助하야 治安維持의 完成을 볼은 日滿共同防衛의 主旨에依한日本國軍의 犧牲的援助의賜物에 不外하다 現下世界의情勢와 四國의 狀況에 더욱共同防衛의 實을 擧하야 一德一心으로 日滿不可分의 關係를 永遠히 鞏固케 할必要가잇다고 생각케한다 只今治外法權의 撤廢와 滿鐵附屬地行政權의 移讓됨을 當하야 日本國軍의 我國內駐屯에 伴한 軍事關係法規의 適用等을 調整하야써 그軍事行動上 必要한 自由保障과 前記事情을 一層完全케하기 爲하야 必要한 措置를 取하게하엿다 卽日本國軍事法規의 我國內의 適用과 我軍事法規의 日本國의利用은 모두我國令法에依하야그 範圍를 明瞭케하야써 그行動에 便宜하게하는 同時에 日本國軍과 警察機關도 또特定의 境遇에잇서서 我國令法을 適用하야 活動할수잇게하야써 그行動의 範圍를 明瞭케하기로하엿다 右는勿論 日滿議定書에依하야 日本國軍이 我國內에 駐屯함으로 오는 當然한 結果로 全然 日滿共同防衛의 趣旨에 基한것에 不外하다 그리하야 治外法權撤廢後의 日滿兩國의 關係는 一層緊密을加할것은 當局이 거듭 疑心치안는바이다

同盟國軍隊駐屯
滿洲國勅令內容

【新京三十日發同盟】滿洲國內에 駐屯한 日本國軍의 軍事關係法規適用에關하야는 交換公文의主旨에基하야 同盟國特殊軍事關係法規를 滿洲國法令으로 看做할 根據法制定의 必要에서 十二月一日附로써 公布되는勅令은 左와가티다

◀同盟國軍隊의 駐屯에伴한 軍事法規適用等에關한件

第一條 國防共同防衛의 目的으로써 同盟國의 軍隊가駐屯함에 當하여는 軍事行動上必要한自由의 保障과 이에伴한 秩序의保持를 完全케하기爲하야 安寧秩序의保護과 軍事行動의便益을爲하야 適用될同盟國軍에 關한法令은 命令의定한 바에依하야 滿洲國法令으로 看做함을得하고 그를犯한罪는 滿洲國法令을犯한 罪로看做함

第二條 滿洲國軍隊에게 適用될法令은 別로 法令으로써 定한境遇를除한外에 命令의 定한 바에依하야 同盟國軍隊에게適用됨

第三條 同盟國軍事警察機關(補助機關을包含함)이 行하는 軍事司法또는 行政警察의 事務는 그職務에相當한 警察機關의 事務로看做함

第四條 軍事警察官은 同盟國軍事警察機關에對하야 必要에應하야 搜索을 委囑할을 得함

第五條 共同防衛의主旨에依하야 共同으로 警務에服할境遇의警察機關의統制는 命令의定한바에依함

第六條 第一條、第三條와 第五條에關하야 必要잇는 事項은 所管部大臣의命令으로써 이를定함

第七條 前各條의戰時 또는事變의境遇의適用은 別로法律또는 命令의定한바에依함

附則 本法은 康德四年十二月一日부터施行함

本法의 適用되는 同盟國은 勅令으로써 이를定함

關東局
大使館當局談

【新京三十日發同盟】治外法權撤廢에關하야 關東軍駐滿大使館은三十日午後一時 左와如히 當局談을發表하엿다

日本帝國軍은 여에日滿議定書의 盟約에基하야 滿洲國內에 駐屯하야 共同防衛의 重任에當하게된것이다 勿論 滿洲國今日의 隆盛發展은 同國民의熱烈한 協力과 日本帝國朝野의甚大한 扶掖援助에 依함이多大하나 他面으로는 實로我日本帝國軍隊가 事變發生以來同國의 骨幹이되여 滿洲國軍을 誘掖하야 治安의 確立을圖하고 國家建設의 中核으로 威步를 宣揚함을 得함에依함이多大하다

더욱今日建國의 基礎가 定하고、日本帝國政府가 自進하야 治外法權의 全面的撤廢를 斷行하야 名實共히 獨立國家로서의 躍進을 보게될뿐아니라 때마침伊太利國의 滿洲國承認의機會를當하야 同國의 國際的地位가 더욱强固不動의 態勢를 構成하게되는것은 亞細亞의 新秩序建設에 一大光彩를 加한것이라할것이다 元來 駐兵權에 基한治外法權의存在는 國家의 法權에比하야 毫末의 疑惑도업는것이다 日本帝國軍의 滿洲駐屯의眞目的이 日滿一體의特殊的關係를 基礎로함에 鑑하야 이에對한 適當한 行政策이講究될것도 또한當然하다 卽今日의 滿洲國에 在來의 類例에빠지지안코 眞正한 日滿兩國의 特殊的立場을 理解하야 그根本精神을 沒却치안키를 希望하는것이다 今後 本法規의 適正한 運用에依하야 日滿兩國의 緊密과 不可分關係가 더욱 强化되리라고밋는다

治法撤廢에對해
宇垣前總督謝電

滿洲國治外法權撤廢에 伴하야 在滿總督府派遣員이 解散되는때를當하야 宇垣前總督은 三十日 松澤總督府外務部長에게 左와如한 謝電이잇섯다 外務部에서는 卽時 各在滿關係方面에傳하는同時에 返電을發하엿다

解散을當하야 從來의心勞를謝한다

右在滿派遣員에게 移牒을바란다

蒙疆銀行
一日正式成立

【張家口에서 同盟特派員三十日發】去二十二日發令된 蒙疆聯合委員會令은 察南、晉北、內蒙에各各今回에 成立한 自治政府의聯合委員會인데 右聯合委員會令에 依한 蒙疆銀行은 設立委員을 選定하야 着着創立準備를進行하고 잇섯는데 結局十二月一日正式으로 成立되여 本店을張家口에 두고 業務를開始하게되엿다

時事解說
廣東에國民黨政權再建說

國民黨再建이라면 現在의國民政府의 崩壞를 前提한것이니만치 蔣介石政權이 存在한 現在로는 勿論 事實化한것이 아니며、支那側에서 主唱 또는 肯定하려는것도 아니다。

◇

이것은 國府의南京放棄와 重慶移轉을 契機로 日本을 背景으로한 北支新政權樹立、國民黨政權分裂、共產黨의民衆武裝革命에의 抗日運動等이 必[illegible] 宋子文、白崇禧、陳濟棠等을中心으로 廣東에 國民黨을 再建하야 同黨의 支那支配權을 保持하려는 蔣政權을 꾸미고이다는 說이다。

◇

支那事變發生以來 가장 强硬한態度로써 日本에對하고 對支援蔣政策을 不惜한英國도 九國會議失敗와 日獨伊防共陣의 强化、米國의 消極態度等으로 이른바 對日牽制는 自日夢이 되어 이제는 一方으로는 伊獨에 接近하려는 "제수추어"를 보이는同時에 對日接近態度까지 보이게된것은 現在의國際情勢와 軍備狀態下에서는 日本[illegible] 對日平和的接近이라 할수가 업슬것이라고한다。

◇

英國의 目標는 支那의 헤게모니爭霸戰이아니오 支那、濠洲、新西蘭、印度等의 植民地의運命도 不安에 大英帝國의 生命을 脅威當하는데까지 發展할것을 覺悟하고 對支問題가 一時 和協的으로 解決되드래도 結局에는 衝突은 不可避라는 認識下에 太平洋艦隊組織 極東軍備擴充에 專念하는 同時에 米國協力獲得에 狂奔하고 잇는것이니 英國의 和[illegible] 드라도 香港을中心으로 粵漢鐵道를利用하야 다시勢力을扶植해서 南支南洋의 金融을支配하려는것으로 一見上海中心의 莫大한 利權을 放棄하는 것을 意味하는것이나 이는單純한 南支確保策만이아니오、支那에잇서서의 自國勢力의再編成인同時에 植民地再分割에 對한 日本勢力의 巧妙한 牽制이며 日本勢力阻止의 新防波堤構築을爲한 畫策이니 이英國의 一時的傍觀態度는 極히 注目할 일이라고한다。

英佛會談終了코
佛外相外交行脚
波蘭等小協商諸國歷訪

【倫敦三十日發同盟】三十日의英佛會談에서 主로는 伊太利에對한 英佛兩國의 關係와 西班牙프랑코政權이 最後的勝利를 獲得할 境遇 伊太利의戰略的立場의 强化等이 檢討된것으로 確信된다 델보佛外相은 一兩日中에 波蘭을爲始하야 小協商國歷訪의길에 오르게되엿는데 佛國側에서는 英佛會談의 結果 델보外相은 此等 諸國에 對하야 英佛協力이 確固不動함을確言할수잇게되엿스므로 그使命達成에 有利한 立場에잇다고 밋고잇다 쇼탕首相 델보外相一行은 三十日午後 倫敦을 出發하야 巴里에歸還할터인데 英國側에서는 佛國代表歸還後에는 歐洲의問題를 一時떠나 專혀 上海問題에 注意를 集中하리라觀測된다

支那政府所屬船
六隻抑留

【上海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昨卅日 帝國海軍은 支那政府의所有에屬한 船艇六隻을 抑留하엿다 此等船艇은 外國國旗를揭揚하고잇섯스나 帝國海軍은 細密히調査를한後 그것이支那政府所屬의 船艇임을確認하고 이를抑留한것인데 支那側의常套手段으로 第三國旗의 僞用이라認定하고 支那人이잇는 것에對하야는 支那人으로하여금 帝國國旗를 揭揚케하고 船員이 업는것에對하야는 我國旗를 그代身 揭揚케하야 第三國旗는 保存하고 帝國海軍은 第三國에對한 外國國旗에對하야는 恒常 이를尊重하고잇는中이다

明年度特別會計
豫算編成에移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明年度一般會計豫算編成을 마치스므로 繼續하야 特別會計豫算編成에 着手하기로 方針이다 그中一般會計豫算에 關聯하야 今後에남은 主되는 問題는 左와如하다

一、一般會計豫算中 滿洲事件費一億餘圓

一、出征部隊의 經常費約九千萬圓等臨時軍事費를 特別會計에 옴기여 同會計의 豫算編成과 함께 審議하게될

一、特別會計로부터의 一般會計에로의 (益金繰入額)에對하야는 今後의 折衝에依하야 그增加를 圖하고 이를 臨時軍事費特別會計의 財源에 充當할것

一、臨時軍事費特別會計의 財源捻出方法으로 戰時增稅를行할 것이냐 아니냐의 그與否에對하야 研究決定할것

一、厚生省의 職業紹介事業公營에 關한 經費에 對하야는 追加豫算으로 計上하기로 決定하고 細目에 關하야는 內務大藏兩省間에서 研究하기로 되엿다

正式承認公電
奉天伊總領事에到着
新任『코』代理公使二日新京서
承認通告文手交

【新京一日發同盟】滿洲國承認正式公電은 三十日午後八時 在奉天 伊太利總領事館에 到着하엿다 따라 聘키書記生은 곳電話로 大連에잇는 코르네제總領事에 通知 하엿다 코르네제總領事는 同時에 代理公使에 任命되엿슴으로 一日 午後二時四十二分 奉天驛着、곳 滿洲國外務局과 協議한結果 二日午後二時四十七分 奉天出發하야 滿洲國都新京訪問、正式으로 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通告文을 手交할 豫定이다

【奉天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의 滿洲國正式承認公電은 三十日午後八時在奉天伊太利總領事館에到着하는 同時에 伊政府는 코르네ー제 駐滿伊太利總領事를 代理公使로 任命하엿스므로 코르네ー제代理公使는 伊政府代表로서 二日新京에 赴하야 張國務總理와 會見 正式으로 伊太利政府의 滿洲國承認通告文을 手交할터이다

京綏線一帶에
日本商品大進出
蘇聯品進路는遮斷

【張家口三十日發同盟】張家口를中心으로한 京綏線一帶의 地方은 只今까지 蘇聯邦勢力의 南下通路에 當하야 市場에 山積한 商品의 大部分은 蘇聯邦의 商品이엇는데 日本軍의 進擊에 依하야 蘇聯의通路는 遮斷되고 蘇聯邦의 商品도 市場으로부터 形跡을 감초게되어 벌서 綏遠、大同、張家口의三都市에日本品의 見本市가 開催되려하고 잇다

石井使節
羅馬에到着

【羅馬卅日發同盟】國民使節石井菊次郞子一行은 三十日午前나폴리로부터 羅馬에到着하엿다 石井使節은 一日베네치아宮에무솔리니首相을 訪問할터이다

海軍定期異動

【東京電話同盟】海軍의 今年度定期異動은 一日付로써 正式發令 同日午前十一時海軍省으로부터 如左히 發令하엿다

海軍中佐大勳位 朝融王 補長門砲術長
海軍大將 永野修身 補軍事參議官
海軍中將 吉田善吾 補聯合艦隊司令長官兼第一艦隊司令長官
同 嶋田繁太郎 補第二艦隊司令長官
同 豊田貞次郎 補佐世保鎭守府司令長官
同 出光萬兵衛 補舞鶴要港部司令官
同 有地十五郎 補鎭海要港部司令官
同 古賀峯一 補軍令部次長
同 日比野正治 補海軍大學校長
海軍中將 住山德太郎 補海軍兵學校長兼海軍技術會議議員
同 吉成宗雄 補吳海軍工廠長
同 高須四郎 補練習艦隊司令長官
海軍少將 下村正助 補大湊要港部司令官
同 谷本馬太郎 補駐滿海軍部司令官
同 星埜守一 補橫須賀海軍工廠長
同 新見政一 補海軍省教育局長
海軍少將 水戶春造 補馬公要港部司令官
同 砂川兼雄 補佐世保海軍工廠長
同 宮田義一 補海軍砲術學校長兼海軍技術會議議員
同 小澤四郎 補水路部長
同 岩村淸一 補海軍艦政本部總務部長
同 御宿好 補海軍燃料廠長
同 侯爵 小松輝久 補海軍潛水學校長

南京防備强化
鐵條網架設塹壕構築等

【紐育三十日發同盟】三十日의A P通信社南京電報는 日本軍의進擊을目前에둔 南京의狀態를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南京의 入城의 城門은 閉鎖되고 나믄 四個의 城門에는 土嚢을쌓키게어드가 鐵條網을 둘러 防禦의 準備에奔忙하고잇다 또各防禦陣地의 連絡의電話가 網과가티 架設되고 數千의 市民은 將校指揮下에 塹壕를 構築하고 잇는데 大部分의 市民은 避難하엿고 貴重品은 約一萬五千의 箱子에 너어 奧地로 付送하엿다한다

貴重品一萬五千箱子는이미
奧地로輸送完了

美術工藝品奧地搬出
卅日夜南京當局發表

【上海一日發同盟】南京當局은三十日夜南京에 蒐藏한 美術工藝品의 奧地搬出을 開始하엿다고 發表하엿다 右美術工藝品은 四年前에 北京故宮博物院으로부터 南京에 移送하야 그一部는 昨年倫敦의 버링톤·하우스에開催한 支那美術展에서 公開된것으로 總點數十五萬點以上에 達하는데 運搬準備는 거의 完結되고 잇기때문에 가장 貴重한것부터 漸次로 搬送할 方針을 取하고잇다한다

支那行丁抹船中
武器滿載를發見
關係者를嚴重取調

【神戶電話同盟】死의 彷徨하는 中國民政府는 只今歐米列强에 哀訴하야 各種戰鬪資材와 武器輸入에 奔忙하고잇는데 偶然히 昨二十八日後 神戶入港의 丁抹船마루렌·멘스크號(五、○○○噸)의船艙內에 意外로 支那行 飛行機部分品이 多數滿載하여잇음을 臨檢한 神戶水上署係員이 發見하고 卽時兵庫縣外事課에 急報하엿다 同課에서도 事件을 重大視하고 取調를進行하엿는데 同船은 紐育으로부터 巴奈馬、마닐라를 經由하야 二十八日夜 神戶에 入港한것으로 米國製 新銳機爆擊機部分品을 滿載하고 이는 모두香港을 通하야 下關될것으로 判明되엿스므로目下 關係者를引致하고 嚴重取調를하고잇다

四大銀行高級者南下

【香港二十九日發同盟】昨二十八日香港入港의 伊國汽船司祺兒소號에는 蔣琪堂以下中央、中國、交通、農民四大銀行의高級職員七十四名이 便乘南下하엿는데 彼等은 近近漢口로 向할豫定이다 그大半은 當地로부터 廣東에나가 待機하다가 時局의 變化에應하야 行動할것으로 觀測된다

人事·集會

◀蘆原時三郎氏(總督府學務局長) 二日渡東할豫定을變更하야 二日午後二時三十三分 京城驛發 "노조미"로渡東豫定
◀岡久雄氏(總督府學務局事務官) 同上
◀小林利一氏(鐵道局經理課長)明年度豫算說明次松山技師를帶同하고 三十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渡東
◀李常春氏 二十九日 元山府館石洞十四番地 自宅에서[illegible]
◀能昌運氏(前大阪電報通信社長) 大阪市北區中之島二丁目 自宅에서身病으로 療養中 一日午前五時逝去 享年五十八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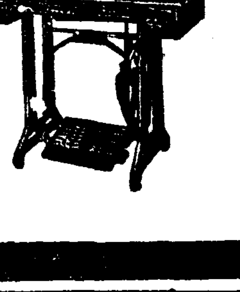
◇ 全世界 注視裡에 英國倫敦에서 英佛會談 開始。
◇ 英伊接近도 不成功、英獨親善도 無効果니 英佛兩國이 結合할밧게。
◇ 協商國을 몰아 英佛편에 너을수 잇을지는 모르지만、積極的 態度로 나오는 日獨伊三國의 團結을 어떠케 對抗할가는 問題。
◇ 明年度 豫算總額은 二十八億六千餘萬圓으로 今年보다 不過五千萬圓 增加。
◇ 但 事業費를 除하고 하는말 事變이 끝나면 一個月 三、四億圓식 計上치 안흘수 업다고。
◇ 이點으로 보면 民間의 富를 增進케하야 長期戰에 對應케함이 善策。
◇ 京城府內의 細民은 줄고、窮民은 늘엇다고。
◇ 生產都市가 못되고 消費都市로 잇는限 窮民이 增加할것은 天勢。
◇ 職業을 주고 向上할 결을 열어줌이 得策。

世界의자링
待望의吾社蛇の目ミシン
小額月賦販賣開始

多年內地에잇서서는東京、大阪、京都、名古屋、橫濱、神戶의六大都市三十餘個所의直營支店은 小額月賦와 品質의優良에依하야 壓倒的好評을博하고 그販賣數는 年年膨大한 數字를 算하게되는것도 亦是當然한일입니다 今回 비로소 多年의宿願인 全鮮에잇서서의 小額月賦를 大大的으로 取扱을開始케된 것입니다

◆カタログ無代進呈

國產蛇の目ミシ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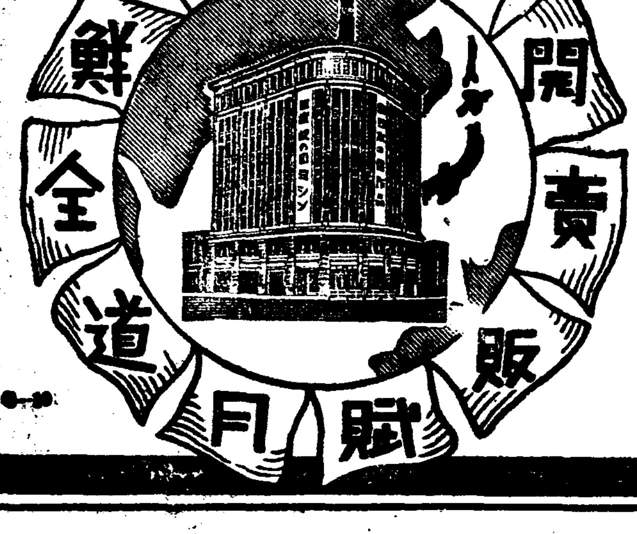
好機는다시오지안는다
全鮮에分店主任을急募함

當社는 全鮮에一郡一店의直營分店을 新設하고 小額月賦를開始함 널리 全鮮에서 識力才腕잇는人士를求함 好期는 다시오지안는다 希望者는 至急申込하라 履歷書에依하야 選考한後分店主任內規書送付함

店主任內規書送付함

朝鮮總中央社
帝國ミシン株式會社
資本金參百萬圓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三四四七番
振替京城一八二一九五番
本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
工場 東京府武藏小金井

總監 黃海道、忠清南北、慶尚南北、全羅南北、平安南北各一名宛採用함
採用 業界에精通한各道에在住하는者履歷書添付申込하시압



教育令改正審議完了

規定도全面的改正
明春四月부터實施!
"但書"로內鮮人共學에關한條文과
朝鮮語敎授에關한條文挿入

조선교육기관의 면실한계통일을 단행함에따러 총독부에서는 조선교육령의개정안을 작성하야 그동안 심의실(審議室)에서 심의중이든바 일전에 심의가끗낫슴으로 염원(鹽原)학무국장(學務局長)이 강사무관(岡事務官)을 대동하고 이일오후두시반 경성역발렬차로 동경에가서 법제국(法制局) 척무성(拓務省) 추밀원(樞密院)등 관계당국에 설명하야 량해를구한후 여러가지로 절충하기로되엿다 이에따러 총독부령으로 대정십일년이월에 발포시행중인 보통학교 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녀자고등보통학교 고등녀학교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아니하면 개정되는 조선교육령을 운용할수가업스므로 통일내로 이에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야 심의실의 심의를것처서 오는사월일일부터 실시할터이다 그런데 이초등학교로부터 남녀중등학교의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보통학교와 남녀고등보통학교 규정이 전연업서질터이오 그대신으로 소학교, 중학교 규정에 내선인 공학에관한 조문과 조선어교수에대한 조문이 단서(但書)로 편입될터이다

師範學校內容改革
二部는廢止一部로全部統一
附屬普通은附屬小學에合倂

명춘사월일일부터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명실함께 통일함에따러 사범학교(師範學校)조직과 제도에도 상당한개혁을 단행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엿다 그대책 그내용이라 현재경성사범은 일부와이부로 나누어잇서서 일부출신은 소학교훈도로 채용하고 이부출신은 보통학교훈도로 채용하여왓는데 명춘부터 보통학교가 업서짐에 따러 이부는 당연히 폐지하고 전부 일부로 통일하는동시에 내선인 공학에관한 다소의절충을더할터이며 경성녀자사범 대구(大邱) 전주(全州) 함흥(咸興) 평양(平壤)등의 각사범은 현재이부측 보통학교훈도양성하는 기관만잇스므로 이를지방사범학교에는 일부 즉소학교훈도양성기관으로개혁하는동시에 역시내선인공학에관한 약간의 절충을더할터이다 그런데 경성사범만은 일부에 부속소학교가잇고 이부에 부속보통학교가 잇스나 이부를 폐지한후에는 이부의 부속보통학교는 합동의필요가업슴으로 이것은자연 합병될모양이다

賭博現場襲擊

삼십일저녁 열한시쯤 룡산서에서는 도박개장중의 일당륙명을 체포하엿다 그들은 부내도화정(桃花町)사백십이번지의 십일호에사는 풍국제분회사직공 김재근(金在根)(三○) 금정(錦町)칠십오번지 오성일(吳成一)(三○)외 네명이 도화정 산이번지의 사십사호 리봉기(李奉基)(二○)집에서 화투를 가지고 륙백을하며 일회에 십전 이십전식 내여놋코 하다가 룡산서원에게 일망타진되엿다 현장에는 노름돈이 삼십여원이나 잇섯다한다

銃後守護!今日防火데ー
祈願祭擧行後 府廳前에서防火演習
道廳前廣場에서는令旨捧讀式

금일은 대일본소방협회(大日本消防協會)주최의 방화「데ー」이다 전국일제히 방화「데ー」에대한 모든행사가 거행되는데 금년은 특히총후의수호를 견고히한다는의미에서 국가총동원으로 중앙련맹(中央聯盟)도 참가함으로 이에호응하야 조선소방협회에서도 전조선이 일제히방화선전행사를 실시하게 되여서 이날오전아홉시반부터 경기도청(京畿道廳)아페 도경찰부장이하 각과장 부내에잇는 각경찰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원 전부가 참집하야 방화「데ー」령지봉독식(令旨捧讀式)을거행하엿는데 국기게양 령지봉독 황국신민의서사 국기강하 이상의순서로 식을 성대히 거행하엿고 동일오전 열한시부터 경성신사(京城神社)에서 경성부윤이하 부내각정총대 기타 각 단체가 참집하야 국방방화기원제(國防防火祈願祭)를 거행하엿고 화원(火元) 소화기(消火器)등의 일제조사가잇섯다 또 동일오후 한시부터 경성부청(京城府廳)아페서 경성소방서주최로 방화연습(防火演習) 괴난연습등의 행사를성대히 거행하엿다 그와동시에 시내각초등학교에서는 일반 아동들에게 대하야 방화에대한강화가잇섯다 이날밤에는 경기도 경찰부의 고(高)경찰부장이 방화「데ー」에대한 방송이잇슬예정이다 (사진은 경성신사에서 거행한국방 방화기원제)

府廳防火演習

경성부 에서는 일일의 「방화데이」에 부청산봉에서 방화연습(防火演習)을하엿다 연습장소는 산불보급수장설하고 정오로부터 령지반까지 삼십분동안에 경방반(警防班)경보반(警報班)방화반(防火班)등을 조직하야 만일의경우를 예상한 교묘한 연습을 하엿다

찬바람에떨고만잇는
鍾路商街의"五色旗"
大衆의"춤"은無氣力하다!
歲暮大賣出初日의風景閑散

조선의심장부 서울종로상가(鍾路商街)의 이해총결산인 년말대매출(年末大賣出)은 례년과가티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로 하로부터시작되엿다 「빠ー겐」 나스경기를 대중(大衆)으로하는 풍성풍성한경기에 날뛰는시민의 눈을 유혹하는대매출광과 행운(幸運)을노리는 경품추첨이비저내는 일년에단한번인대매출광기도 금년만은 시국관계로 더욱중소상공업자의목을 졸나대는 금융경색(金融梗塞)과일반대중의 구매력저감(購買力減)이라는 엇지못할 낭관재료(材料)로 활기는커녕 오히려 적막하기가 짝이업다 벽두부터 쓸쓸하기가 말이아니다 대매출에 가맹(加盟)한 상점의수효로나 지난해의절반도 못되는 형편으로 거리에 돌돌이보히는 기빨도 찬바람에 떨고만잇슬뿐 종로거리가 이러커든 지방의경기야 또다시무러무엇하리! (사진은거리의대매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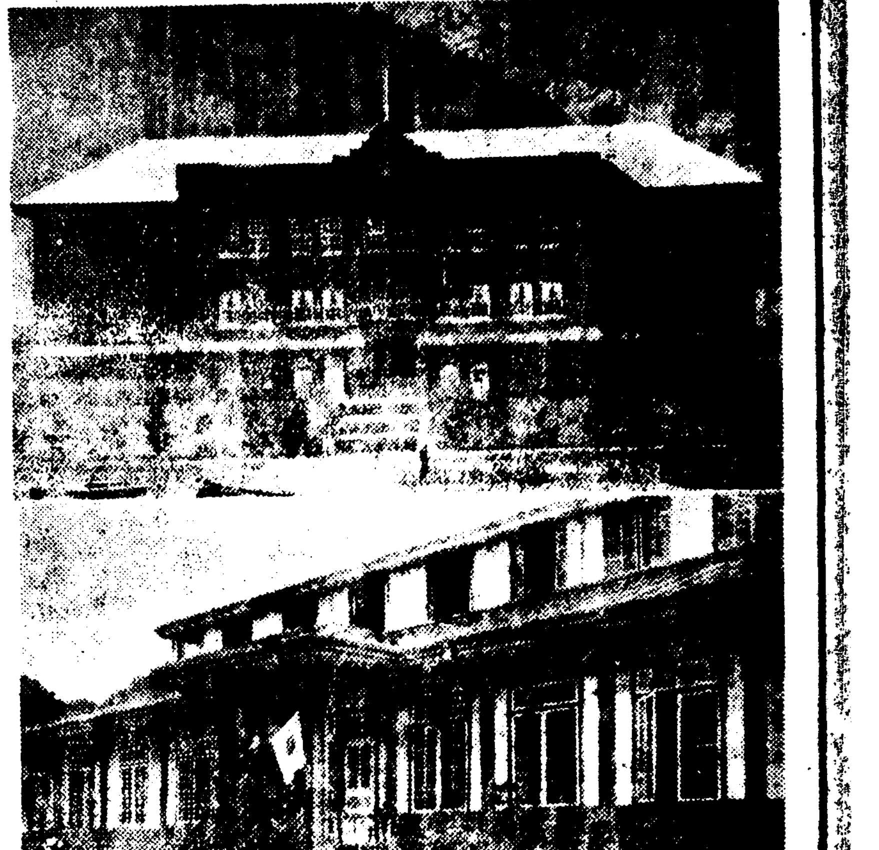
列車增發·時刻改正
今夜부터各線實施

기보=철도국에서 종래의불편을 덜기위하야 전라(全羅)경전서부(慶全西部) 호남(湖南) 군산(群山)광주(光州)등 각선에빼처개정한 렬차운전시간과 또경부선(京釜線)경원선(京元線)의야행렬차일부 운전시간 개정은드되여 일일부터 일제히실시하엿는데 호남지방의 각선에는 이번 이시간개정에따라 종래에회물렬차만 운전하든것에객차(客車)를 련결하고 또근거리에는 기동차(汽動車)를 운전하게되여서 종래보다는 지방려객의 불편이 훨신덜되게되엿다한다

外套專門竊盜
계집에게惑하야

현관으로나가는 갈래강이 만허서는 얼마전출한이래 도난을 당하고잇는 경성부청에서는 매년겨울 가장만흔『오ー바ー』도난사건이발생하고잇섯는데 삼십일오후경성역(京城驛)아페서 조영식(曺永植)이란 약삼십세가량의 청년이 붓들렷는데 그는 약삼개월전 일자리를구하러 상경하엿다가 우연히『거리의천사』 우리화는여자한명을알게되여 돈에궁하여지자 지난십개월경성부청 상공회에서『오ー바ー』二벌을 훔친것을 비롯하야 본정통『레코ー드』회사등에서『오ー바ー』를 십수벌이나 훔처다는데 계속취조중이라고한다

規定 信聖、保聖存續에는
篤志家出現이絕對條件
三老會、宣教會共同經營으로
努力如何론甦生可能



【宣川】기보=평북(平北)、의산(義山)、용천(龍川)세로회와 장로회의 공동경영인 신성(信聖)보성(保聖)량교에대하야 미슌회의 에서 인퇴한다는 결정을 지은데대하야 폐교까지 하리라는 염려는 업다고 헐지라도 남은 세단체에서 인계하여 살릴 방법을 수립하려는 성의 여하와 그리고 가장 중대한문제인 재정(財政)처리문제가 일반의 관심과 아울러 주목을 끌고잇다 그런데 전기 네단체 사이에 체결된 조문(條文)을 소개하면 아래와 가튼바 이를 합법적(合法的)으로 운용하는대에 량교의 재생(再生)의기운이 대두할것으로 보이나 자액이 근소하니만치 각로회측 어떤독지가의 출연을 보지못하면 역시 장래의 안전에 대하야 락관할수 업는형편이라는대 더욱이량교의 장래에 중대한 책임을지고잇는 각로회 선출리사(理事)의 활동과 성의(誠意)여하가크게 거대된다고한다

▲理事會憲章
◇第八章
第二十二條 本憲章에關하야協同管理에違背를完成한 根本目的은 信聖學校를 永久히發展시킴에잇스나 萬一不得已한事情에依하야 平北、龍川等의老會나 或은 朝鮮[illegible]가 本憲章의[illegible]時는 以下各項의順序에依하야

(1) 以上[illegible]가 다[illegible]할수잇스나 [illegible] 一年이 經過한後에야 [illegible]가 [illegible] 正式으로 [illegible]에는

(2) 가장[illegible]한[illegible]는 [illegible]時에잇서서 [illegible]가 [illegible]한 土地建物及設備品一般에 對한 管理[illegible]하며 또다른 [illegible]가 [illegible]

(3) 어떤새團體와 더부러 [illegible] 同[illegible]時는 各[illegible]로부터 [illegible]使用에關한 [illegible]

(4) 各團體에 모두[illegible] 어느限에야有效로한 [illegible]해서 學校[illegible]해서 維持及管理하기를 拒絶할時는 土地建物及寄附金을 元來所有者에게로 返還함 (사진은 상은신성학교 하는보성학교)

慎重을缺한
引退決議

【宣川】 남연리(南延里)교사집에서 당지 노회의 정례림시총회가 이칠일 다시 속회하야 당지 신성학교(信聖學校) 보성학교(保聖學校)에서 래명년인 소화십사년삼월까지에 인퇴한다는것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사실이 한번발표되자 일반 예정과 사실이라고는 추측하여왓스나 아직까지 인퇴(引退)설까지 나오지안엇든만큼 긴박한 위기에는 일반의 충동과 물의를 간작하 이회의 결의를 본 일반의 충동과 물의는 비등하고잇다 그러면 이초후적 인퇴언명을 밧은 신성 보성량교는 엇지되는가? 기자의 확문한바에 의하면금번 실행위원회에 신성 보성량교 문제가 상정될시는 당지 스테ー슨회원과 량교에 가장큰인연을 가지고잇는 오륙명이사에게 참석을구하야 시종의론하자는 요구가 잇섯슴에 불구하고 그사람들을 참석만 식히재 금전적 결정을 지게 된데 대하여는 그속에 어던 강석 사넘어 석이 잘재하여 잇지안는가를 녀 우축할수잇다한다

年內居住안으면
地方人入學을不許
府學務課의不良志願退治策

해마다 사월의 입학기만되면 경성부내 부외에서사는 사람은 물론 멀리남북각지의 시골로부터 경성의유명한 보통학교에자녀를 입학시키려고 물미듯이지원해오는터인데 경성부학무과에서는 래년부터는 번잡을 덜고 현상을 막기위하야 금년십이월안에 입학을 지원하려는 학교근방의 동리에 이사하야 살지안흐면 입학지원서를 밧지안흘방침을 세웟다한다 그러므로너무어 시골사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학교에 입학할 생각을가지고잇는사람은이달안으로 서울로이사하야 경성부호적과에 거주계(居住屆)를해두어야 될것이라한다

電車荷車衝突

삼십일오전여덜시오십분쯤 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시호 압에서 운전수 한기동(韓基東)(三○)이가 운전하는 전차 일백칠십오호와 부내도화정(桃花町)사번지외사십이호에사는 하마차부 정석구(鄭錫九)(三○)의 하마차가전차궤도상에서 정면충돌을 하게되여 전차 헨더ー가 부서지고 구루마텃바퀴가 파손되엿스나 인명에는관계가 업섯다

"婚姻申告"는無効
被害女性、確認請求訴訟提起

자기는 승낙도 안하엿는데도 장모위조하야 혼인신고를 하엿다고 남자를거러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녀자가잇다 부내신설정(新設町)팔번지 리춘회(李春花)라는녀자는 부내와룡정(臥龍町)삼십이번지 강광용(姜光用)을상대로 일일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소장을보면원고는 작년오월이십일에 소외(訴外)김창오(金昌吾)라는 사람의소개로 피고와 부처관계를 맷고 가리사러오든바 너무나 피고의 집생활이 곤난하야 그와의론한결과 그해팔월에 자기집으로도라와서 먹고살기위하야 전기상소에서 옷집경영을 하고잇섯는데 피고는 무슨생각으로인지 원고의 승락도업시 원고의도장을위조하야 작년사월이십일에 그의고향인 경기도광주군도척면(廣州郡都尺面)에 혼인계를 제출하야 원피고는 부부인것처럼 호적에 올렷다 이리한후 피고는 매일가티 술을 먹고 원고의 옷집에 차저와서 원고를 때리며 돈을내라고 요구하고또 숫간에 사람을노아 돈을주면 리혼을하여 준다는등 어느때는 경찰서에원고를 고발하야 취조를밧게하는등 살수업게하니 원고의승낙도업시 도장을 위조하야 계출한 혼인은 무효로 하여달라는것이다

人情世態萬華鏡
鍾路署에珍搜査願一束

이웃처녀 진정한데 처자를 빼앗기고 자기집머슴한테 딸을꾀임밧고 친척집에 놀러보낸어린딸을 유괴당하고 비분에넘치는 진정이 하룻날 종로서에 제출되엿다

其一…부산부룡당리(龍塘里)이백사십구번지 강장우(姜章佑)군의안해 김봉조(金鳳祚)(三○)는바로 이웃인 김재원(金在元)의셋재아들 삼표(三杓)(二○)과 어느사이에 정이드러 삼표를 얻어가지고 지난열드렛날 줄달 하엿는데 그뒤소식을몰르니 경성방면에 와잇다니 차저달라는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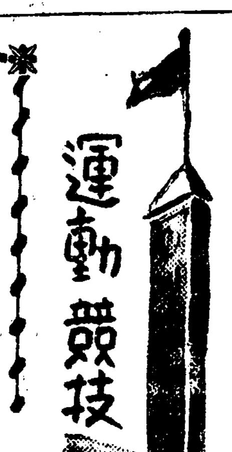
其二…황해도 황주군영풍면신성리(黃州郡永豐面新星里) 일천삼백이번지 한연동(韓演東)(五○)의 맛딸잡복(一○)은 [illegible]

其三…부내금호정(金湖町)사는 아버지의애원 [illegible]

靑年團指導
講習會開催

조선교화단체련합회주최의 전조선청년단지도자강습회는 명년일월십일부터 십사일까지에 경성에서 열기로되엿다 강사는 대일본련합청년단주사 웅진지랑(熊眞治郎)씨외 수명이라하며 강습료는 약일백명이라한다

運動競技



纖細한技術發揮할
明夜의延普籠球
意義잇는室內戰!

YMCA主催第十一回府年籠球리ー그戰의 白眉! 第一部決勝…延專對普專의第一回戰은 明二日午後七時부터 鍾路靑年會館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明春劈頭에 全日本制覇를目標로 東京에遠征할兩軍은 打倒早大를부르지즈며 벌서부터 緊張과興奮에 싸여 게임마다 新戰法研究에專心하고잇슴을 엿볼수잇다 今年드러서 延專이 八戰五勝三敗로 리ー드하엿는데 第九次로對戰하게되엿는데 新規則實施以後의戰績만을본다면 亦是 延專四勝, 普專二勝하야 延專이依然優勢하다고 볼수잇스나 지난달 二十四日의 綜合籠球豫選戰에 四十九對二十三의 大差를除外하고는 그어느게임을勿論하고 終局의『휘슬』소리를 드를때까지 勝敗의 判斷을 헤아릴수업스리만치 伯仲之勢를보이고잇섯다 今年中의 게임은 모두가 屋外에서 行한 것으로 全日本綜合籠球大會의競技場은 東京市一橋에完成된 國民體育館 室內코ー트인데 東京의各팀은 이미室內코ー트에서 리ー그戰을치르고난뒤이라 普專과 延專도室內코ー트에서 訓練을바들必要를 늣기게되엿다 그럼으로 이번室內코ー트에서의 對戰이 더욱意義잇는게임이 될것인데 狹隘混雜하야 코ー트가正規의것이못됨은 遺憾으로 생각되나 屋外에서는行할수업는 纖細한技術을 發揮할것으로期待된다 最近의普, 延兩軍은 改正規則에 따르는 籠附近에서의 精緻한코ー스와 速攻法、그리고 쎗트플레이를어서 自由投圈內의『코ー스트·플레이』로 볼만한것이 잇슬것과 速攻法에 따르는 體力이 不足한것을 늣기지 안을수업슬것이다 바라노니 延專은 激烈하고도 勇敢스러운 鬪志를發揮하고 普專은 室內코ー트에體驗만은 平壤出身選手들로서 打倒延專을 實現하기에 絶好한機會일수잇스므로 健鬪할터며 兩軍이모두 快活한 氣分으로 明春東京에 遠征하야 全日本籠球決勝戰에 또다시 이만나는날을 期待하는者 獨者 뿐이아닐것이다 (籠屋生記)

槐山李泰浩翁
總督府訪問코獻金

충북괴산군불정면 (槐山郡佛頂面)에사는 리태호(李泰浩)라는 칠십칠세의 로인은 이태전지사변발생이래로 황군의 활동에감격하야 륙십세이상의 로인동지삼백칠십인을 모아서 황군위문전승축하의한시(漢詩)를 지여가면서 헌금운동을한결과 요지음에 일백사십일원삼십오전이 모혓스므로 일일에 총독부로 남총독을 차저보고 그돈을 바첫다한다

正規의氷上競技場
設置키로決定

朝鮮氷上競技聯盟에서 理想的氷上競技場의 設置를 計劃中이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聯盟에서는 昨三十日에 委員會를열고 討議한結果 朝鮮體育協會의 後援을어더 工費는 二千五百圓을 드려 漢江里에 正規의 特設링크를 設置하기로 되엿다 右競技場은 從來에는個人經營이든것을 根本的으로 改正하야 스피ー드 四百米코ー스、하키ー링크二個所 피규어링크等을 整備하야 一般스케ー터ー에게 開放하기로되엿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北滿과南支那로 퍼저잇서 本邦方面은氣壓이 얏터저잇다 北支와 朝鮮, 日本海는 氣壓의 凹所가 되여 低氣壓이잇스나 日本海에잇는 低氣壓이 가장優勢하다 滿洲와朝鮮은 大體晴明하고 南滿과北朝鮮에는 處所에 따러서는 小雪이엇다 表日本海는晴, 裏日本海는雨 그리고 東北以北은 處所에따라 小雪이잇다

豫報 京城地方의오늘밤과明日은 曇小雨模樣이다 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七度六
同 最低 零度四
今朝最低 零度七
今日正午 七度九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무서운蛔虫을驅除합시다! 蛔虫은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 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해서 發熱腹痛嘔吐食慾血夜泣等 其他 各種病의原因이됨니다 特히小兒는 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잘듯는 再印 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식혀서 이무서운蛔虫을 驅除하고애기네를 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眼科 院長 金廣業 大明医院 平壤竹典里(和信東隣) 電話一三八五番

更紙 四六版、菊版、其他多數 在庫이오니 購買人士는 朝鮮日報販賣部로 問議하시오

全安 治療 十
麻藥中毒療養院
京城府西小門町一二一番地

不老長壽 強精回春 東少來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高級綢緞
錦花商會
옷감 婚需特別優待
京城鍾路三丁目 電光二四三

早漏防止
性器強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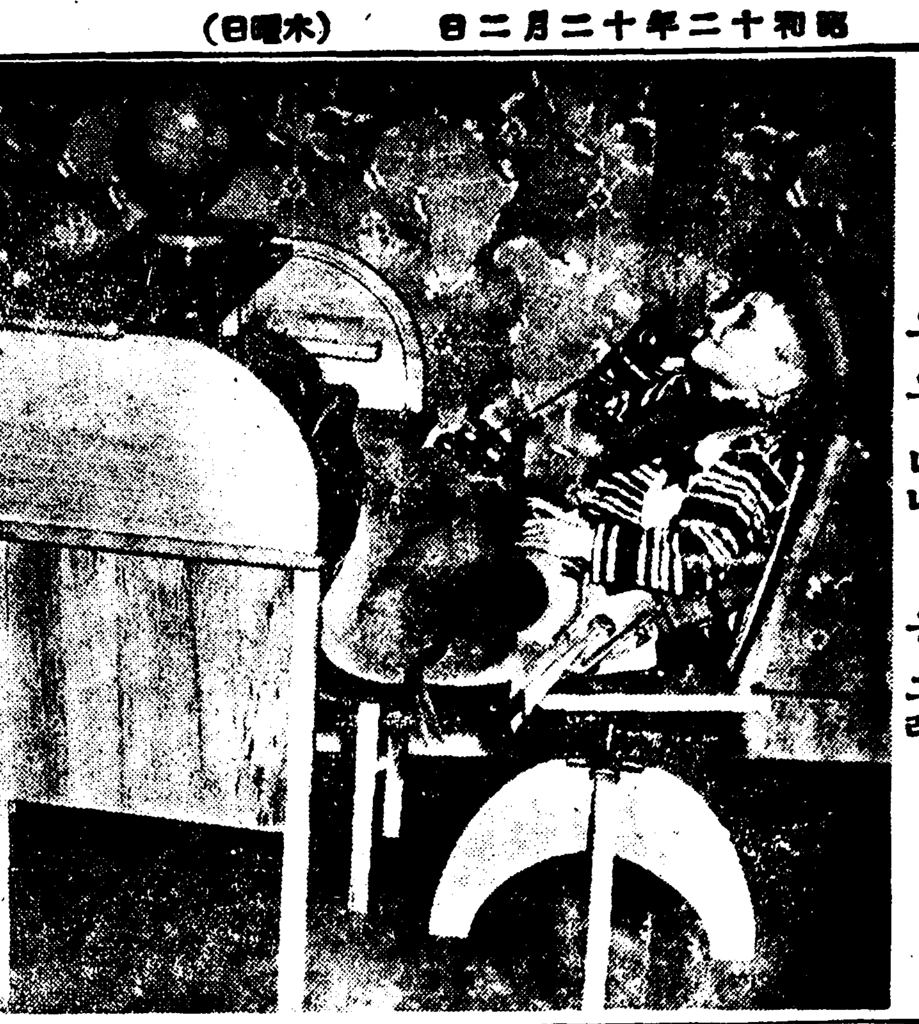
國境大藥房

男女外賣員招聘
一、資格 中等學校卒業又는此와同等以上의程度로 外賣의素質又는經驗이有한者
二、年齡 二十五歲以上四十歲以下
三、保證 確實한保證人二人이有한者
四、居住 現在市內에居住하는者
五、推薦 市內名士의推薦이有한者
六、締切 十二月十日
右希望하시는분은自筆履歷書에最近寫眞을添付하야推薦하시는분을通하야本社人事係로提出하시오
昭和十二年十二月二日
京城鍾路 和信

肺病專門
財團法人 海州救世療養院
◎本院案內書 ◎療養福音
院長 米國醫博 賀樂
醫學士 李廷雨
醫師 鄭士永
醫師 李点鎬

家庭

오오 너냐……응 그래



병의정도에따라 귀우는것도달러

아직은완전히설명못할그원인 못고치는수가더만타

귀가 우는 증세는 대단히거북한것입니다 더욱 그것을 모르는척하고 잇슬수도업고 아는척하면서 한번 편심을 갓게되면 조급증이 나서 못견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생각하거나 까다로운 게산을하는 등의 정신집중을 할수가업게되는것입니다.

잠을잘수도업스며 신경쇠약의원인이되는수도잇습니다 극단으로 고민하면 정신이상이생겨서 전연폐인이되고 마는수가적지안습니다.

가벼웁게 귀가울면 낫즈로는 분주한까닭에 이저버리는수가잇습니다. 그러다가도 밤이되여서 조용하면 울기시작하는것입니다

대개는 밤낫의구별이업시 귀가울어서 욕을보는 사람이만습니다. 귀우리도 여러가지종류가만습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매암이소리모기소리 종소리등 이루형언할수업시 여러가지 종류의 소리처럼 들려서 고저가 모두 다릅니다 이고저의 다르다는것이 즉 병이 얼마나한 정도로 나아가고 잇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종을 두드리는것과 가튼 소리가나는 박동성(博動性)의것도잇고 또 단속성(斷續性)의것도 잇습니다. 외이(外耳)와 중이(中耳)의 병으로말미아마 일어나는 귀우리는대개 적당한 치료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내이(內耳)나 청신경의 병으로 말미아마이러나는것은 대단히 소리가 노파서 치료하기어렵습니다 귀가 우는것은 대체 엇재서일어나는가하는데는 아직 완전한설명이 나타나지안헛스므로 내이의충혈이나 빈혈이라고 말하기는하나 그것을증명할만한구체적인 연구는되지안코잇습니다

그러므로 이병은 치료하기가대단히 곤난하다고합니다 외이나중이병이 원인으로서 이러나는 귀우리에는 그원인이되는 병으로서 외청도염(外聽道炎)이라던지귀지가만혀서구녕이막혓다던지 급성이나만성의 중이염(中耳炎)등이잇습니다 우에서말한것은 그원인되는 병을곳치면완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가운데서 만성은 치료하기어렵습니다 내복약으로는『오스토크레로—른』가 다소효과가잇다고합니다。그리고 아즉 조선에서는 쓰지안흐나『판토린』이라는 주사약이 대단히신효하다고합니다

이러한병을 치료하는데는 대개『암마』라던지 전기료법이잇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적으므로 의사들도 쩔쩔맵니다 청신경의 여러가지병 뇌막과 뇌의병으로 이러나는 귀우리는 그것을 이르키게하는병을 치료하면됩니다 가령매독성질환이 원인이러면매독성질환을 곳처야 편하다

귀병이외의 병으로 귀가 운다는것도 이저서는안됩니다 감기가드럿다던지 고열로말미아마이러나는 수도잇스고과로나졸음과 과음(過飮)등이 모두 귀우리원인이되는것입니다.

노인은 혈관경화증(血管硬化病)으로 귀가울게됩니다 그밧게 빈혈이라던지 혈액파심장에고장이 잇슬때면귀가울며 신장병에도 귀가우는수잇습니다

이모든것은 그원인되는병만나흐면 모두 전쾌되는것입니다

우리차지

국화꼿과 금붕어

나는 국화꼿을
조와한다。
꼿모양보다도
냄새가 조와서。

나두나두。
금붕어는 꼬리긴것보
다두 빨간빗치 더귀
엽다。

(京城사립 최수익)

주름살잡히는건 지구(地球)의인력(引力)때문

수술로곳칠수잇다

사람의 얼굴은 대체로삼십전후부터 잔주름이 잽히기시작하는겝니다.

그것은 인간의근육과 피부속에잇는 탄력섬유(彈力纖維)란것이 소모되서탄력을 지나면 점점줄어들기시작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잔주름은 사십전후로부터 점점드러해지고 기퍼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마나눈자위와 입가에 커다란줄이나타납니다. 눈자위와 이마와입가에나타나는 잔주름은 지구의인력작용을 바더서 알로처지게 되는것입니다.

그것이 비교적 지방이적은곳까지 떠러저 버리면거기서여러갈래의 잔주름살이 한데합하야 크다란게 줄을 잡는것입니다.

잔주름살이란것은 지방이 만흔곳일수록 더만해지는것입니다.

웨그러냐 하면 지방이만흔면 만흘수록 나이를 따라서 현저하게 적어지므로 피부가 느러지고 또한탄력섬유도 대량으로 소실되는 까닭입니다

그와반대로 지방이업는곳일수록 주름살이잽히지 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이만흔 눈자위라던지 이마라던지입가에 제일먼저 주름살이 잽히고 그것이일로 처저서 자방이업는곳에가서 정지하는것입니다

그와반대로 코등과가티지방이업는곳에는 좀처럼주름살이 잽히지안습니다

이와가티 주름살은 지구의 인력으로 말미아마 알로처진것이므로 이주름살을 펴는대는 쭈그러진 가죽을 우으로다라올리면 괴리라는것을응용한것이 근대외과의 수술법입니다。

이것은 빰으로부터 눈자위에걸처서 나무입사귀처럼 커다라케부른 느러진피부를 끈허내고 다시꾸여매는것입니다 더욱주름살은 지방이 만흔곳일수록 잽히기 쉬움으로 인간의체질을 따라서도 속히주름살이잽히는 사람과 늣게잽히는사람이잇습니다.

가령 젊을때 살이찐사람은 야웨여지면 주름살이펑창히 잡히는것입니다.

그와반대로 야웨인사람은 비교적주름살이 잽히지안습니다.

또한 피부가엷은사람은잔주름살이 잡히기쉬우나 기픈주름살은적고 이와반대로 피부두터운사람은 잔주름은 보이지안흐나 기픈주름살은 잽히기쉬운것입니다.

인격이드러나는 편지

출세하는데관게돼

붓놀린 자욱이 또렷하고 정당게쓴 편지는 그사람의 인격과 인정미의전부를 반영시키는것입니다.

편지는 손위에올리는것만이아니라 손아래사람에게나 공문서까지라도 례의를 다하며 정하게써야 합니다.

요사히처럼누구나 펜으로 날려써서 스피—디를 주장으로 하고잇스나 그러타고 례의를 전부 이저버려서는안됩니다.

주지나 편전지를불문하고 글자를 떼는데주의하며 줄우에 자기의일을 쓰는자칭사가는것은 일체쓰지말어야 합니다.

안써서는안되게 조히형편어될때는 몃자뛰어서쓰도록 하십시요.

그와반대로 줄아래에다가 저편존칭을쓰는것은 대단히 조치못하므로 절대로 쓰지 안케주의하십시요.

지명이라던지 인명은될수잇는대로 한대 다라서쓰되 하는수업시 줄을넘여야할때는 분간을지우도록하십시요

주지에 쓸때는 조히를 넓직하게 떼여서 쓰기시작하는것이조흐며 우에서부터아레까지 꽉꽉차게 쓰는것은 실례입니다.

처음에는 주먹한개자리만큼 뛰어서 쓸것이며 아래위는 정돈되도록 바르게써야합니다.

주지를 말때는 끄트로부터 마러올라가되 저편일홈어나 존칭이꾸겨지지안토록 조심하고 첫음에남겨둔 여백이 편지전체를 더퍼서글시가 가리어지도록하십시요

봉투의 일홈은 반듯이 중앙에 오도록하며 주소보다 일홈자가 굵어야합니다.

자기일홈을 굵게쓰지말고 봉투후면 미트로 잘게쓰며 날자는 왼편우으로 똑바루 쓰도록해야합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49】

盧春城 作
崔根培 畵

黎明의아침(一)

영식은 칠을두고 칠상에서 뛰굴며 공상을 마지안헛다. 자기가 모든것을 청산하고 영웅적출발을하는이상 어떤사업을시작할가하는것이 그의 머리를 몃십번이나 아니 몃천번이나 울고 나린 생각이엇다. 교 농촌사업 빈민구제 신문사—그럴듯한 제목은 만혓지는 막상 기빨을 들고나시려니 사실 주저되지 안는 바두 아니엿다. 그러나 영식은어느것이 가장조선사회를 위하고 조선사람을 위하여가장리익이 되고 행복이될가하는 초점을 일치안헛다. 조선사람의 생활우에 따뜻한피를주고 시원한 샘(泉)을주고 다시 그들의 거름우에 아름다운 꼿길을 열어주려는것이 영식의 심장을 뚤코 나오는 거짓업는 정열과성의 엿다.

영식은여러번이나 산판을쥐고 자기의 사업자본을 주판실해봐스다. 이천오백만원—실로 적지아니한 돈이엿다. 삼척금광을판 돈이 일천팔백만원 장진금광을 판돈이 륙백만원 그간 사업리익금이 이백만원—이중에서 한동안 지랄을 피우며 씬돈이겨우 백만원 이것을 제하고나니 합계 지금남은돈이 이천오백만원이다. 이돈은 전혀 영식의주먹과 영식의 활동으로 벌어진 돈이다. 자기집 유산백여만원은 부모의 돈이니 한푼 건드리지 말어두 이돈 이천오백만원은일전한푼 남기지말고 몽땅 사회사업에 써버리자고 그는 그의 량심에 향하여 몃번이나 단단한 맹서를 하엿다.

이천오백만원—꿈도 꿀수업는 큰 돈이다. 이것은 한울이 영식에게 그저 던저주다 시피한 돈이다. 이것을 모두 조선사람에게밧친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행동이냐?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일홈을남긴다— 돈을 철궤에 너코 신주처럼 밤낫 절만하는 사람은 도야지에게 진주를준것갓다 그는 돈의가치를 몰우는 돈의 종이거니와 이와반대로 돈을벌어 돈을쓸줄 아는사람만이 실로 사람이오 또는 돈을아는사람이다. 영식은 이러한 철학을 심중에 기피 가지고 잇섯다.

이천오백만원—이돈을 조선사회에 뿌린다는 것은 실로 누구에게나 지지안는 영웅적행동이엇다. 정치무대에서 세계를 흔드는것만이 영웅이 아니요 또는 전쟁만마를 거느리고 야전공성(野戰攻城)을 하는것만이영웅이아니다. 무엇이나 그사회에 큰일만 한다면 그것은영웅이요 위대한 사람이다—영식의 가슴에는 이러한 신념이 활활가티 불타고잇섯다.

영식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또는 여러번이나 설계도(設計圖)를 그려본결과 그는조선의 도회를 위하야 또는농촌을위하야 그리고 조선의 문화를 위하야 이돈을 쓰기로 결정하엿다. 어떤이는 세계제일의 대신문사를 건설하여 조선판영문판의 신문을 발행하고 또는 출판까지 대대적으로 하자는사람두 잇섯고 어떤이는 대영화회사를 건설하여영화와 『레뷰』를 해보자는이도 잇섯고 어떤이는 뿌라질루가서 조선이민으로 세계적 농장을 경영하자는 사람두잇섯고 기타 애중이 떠중이들이마치 고기냄새를 마튼 고양이가티 영식의 돈냄새를 맛고하루에두 장보듯이 맨십명식와서 떠들엇지만은 영식은 자기의주장과 초점을 잃지안코 결국은 자기사업의 윤곽을 결정하게되엿다. 말하자면 돈을 조선안에 뿌리고 또는 모든 불상한 사람들에게 뿌리고 시펏든것이다.

더구나 영식은 자기친구인최성춘의 의견을듯고 그가 신천지방에서 고생하며 민농갈의농장에서 일하든 불상스러운 옛이야기를하고는 조선의 갱생(更生)은 농촌구제에서 출발을하여야한다는 열렬한 의견을 듯고는 농촌사업에 적지아니한 열의(熱意)를 가지게되엿다. 그리고 자기 족하사위되는 오박사의 이야기로 한민족의 섯쇠는 그민족의 문화와 예술의 섯쇠에 잇다고말하고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것이 아닌즉 반드시 조선에 조선문화를 표방하는대학이 필요하다는말을듯고는 그는 적지안케 감동하엿든것이다. 그리고 선주가 늘 불상한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사업을 좋하라고 늘 악을쓰듯이 권고하든 말을 듯고는 그의마음이 움직이지안흘수가 업섯든것이다.

이리하여 영식은 대학을 하나 완전히세우고 또는 농촌사업을하고 도회에필요한 사업을 하고—이러케 윤곽을세웟다. 기타 자세한것은 여러친구와전문가의 손으로 운전하기로 결정하엿다. 영식은 이러케 결정하고 그날밤으로 선주를 차저갓다. 철룡을 이미 모두 청산하고 또는 자기가 새로운출발의 종을울리며 영웅적사업을시작한다면 선주가 얼마나 기뻐할가 생각하엿다. 그리고 그를 정식안해로 맞여드린다고하면선주가얼마나 조아할가하고 영식두 적지안케유쾌하엿다.

暴風的人氣의新本十五錢均一!

全書籍의價格二割引上하는此際 敢然大割引!

短期二週間限 大投賣!

著者	書名	定價	送料
小島威彦	世界創造の哲學的序曲	二、五〇	14
大倉燁子	踊るスパイ	一、五〇	10
尾崎秀實	嵐に立つ支那	一、五〇	10
佐渡愛三譯	スペイン革命基礎	一、五〇	10
アストン卿	英國の機密室	一、〇〇	10
ストロング	轉換期支那	一、二〇	10
長谷川春子 繪と文	滿洲國	一、五〇	10
武藤夜舟	熱河綺行	一、五〇	14
世界珍探檢	支那馬賊物語	二、六〇	14
田中忠夫	支那農業經濟問題	一、六〇	14
高津正道	社會病理學	一、六〇	14
江澤讓爾	獨逸思想史研究	二、〇〇	14
小山靜浩	非常科學戰隊	一、〇〇	10
夏目一擧	匪賊討伐物語	一、〇〇	10
大文館版	法律何でも來い	一、五〇	14
加賀谷朝藏	民衆と警察	二、二〇	14
品川洞二	面白い趣味の法律問答	二、五〇	14
加藤美侖	日常法律實際知識	一、二〇	10
高山三郎	趣味 法律の裏表	一、五〇	14
中村法學士	有効な證書書方	二、〇〇	14
六法に依る	諸願屆書式大全	一、五〇	14
代書いらず	正しき證書の書方	一、〇〇	10
青年雄辯會	式辭演說と挨拶	一、五〇	9
加藤美侖	式辭挨拶演說座談	一、二〇	10
雄辯協會	五分間大演說集	一、〇〇	9
縮刷 趣革	式辭挨拶演壇即時	二、六〇	9
國際雄辯會	祝賀弔祭演說辭典	一、五〇	10
畔上博	新修現代百科事典	三、四〇	14
寫眞說明	世界奇風俗大觀	二、二〇	14
西田巳四郎	人類學概論	二、五〇	14
谷井類助	歐洲見物所どころ	三、八〇	14
普通教育會	訓話新資料集成	二、〇〇	10
三宅昭	ものがたり論語	二、〇〇	14
宇野哲人閱	儒學概論	三、五〇	14
江部鴨村	釋迦一代記	一、五〇	14
道重大僧正	人生を歩み行く道	一、五〇	14
間宮英宗	碧巖錄講話	一、六〇	14
宮島蓬州	雲水は語る	一、〇〇	10
同	禪に生くる	一、五〇	14
同	續禪に生くる	一、五〇	14
辻野久憲	イエス傳	一、二〇	10
トルストイ	人生案內	一、五〇	14
トルストイ	人生讀本 上	一、五〇	14
同	人生讀本 中	一、五〇	14
同	人生讀本 下	一、五〇	14
ゲーテ・ハイネ	人生讀本 二册組	一、六〇	14
尾崎士郎	人生讀本	一、六〇	14
井上一廣	人生と幸福	一、五〇	10
淺井榮次郎	農村青年讀本	一、〇〇	10
島津嘉孝	夫婦間貞操讀本	一、六〇	14
村岡花子	母の學ぶ書	一、二〇	10
伊福部敬子	母への書 母なれば	一、五〇	10
ストープス	若き妻の書	一、〇〇	9
太田武夫	青年に教ふ	一、〇〇	10
式場隆三郎	處女に與ふ	一、〇〇	10
加藤武雄	晴れ行く山々	一、二〇	10
木村松代	結婚社會學	一、五〇	14
坂井邦夫	偉人暗殺史	一、六〇	14
淺野彌太郎	新修養 人間の力	二、〇〇	14
同	新修養 處世の力	二、〇〇	14
大井虔堂	信念の言葉 隨讀本	一、〇〇	10
伊藤痴遊	赤穗義士	二、五〇	14
維新史話	快傑大西鄉	三、六〇	14
雜賀博愛	維新英傑群像	一、六〇	14
鶴見祐輔	プルタク英雄傳	一、〇〇	14
清水狂風	新しい記憶術講義	一、五〇	10
叢文閣版	新興工業の吟味	一、五〇	10
猪野修造	最新圖解製圖便覽	一、五〇	10
渡邊萬次郎	金銀讀本	一、五〇	14
野口工學士	電氣工學の知識	一、二〇	14
横田工學士	機械工學の知識	一、二〇	14
足立藥學士	化學實驗室必携	二、五〇	9
湯川巖	最新製圖設計法	一、二〇	9
伊藤壽郎	實地 土木測量法	一、六〇	9
奧中恒一	ラヂオ原理組立	一、五〇	10
同	ラヂオ受信機製作	一、五〇	10
最新知識	ラヂオ術語年鑑	二、〇〇	14
赤坂正喜	自動車構造解說	一、五〇	14
最新知識	小型自動車年鑑	二、〇〇	14
近藤鳳一	建築設計便覽	一、二〇	14
小泉武夫	住宅と設計知識	一、五〇	10
本間五郎	地相家相店相方位鑑	一、五〇	9
松浦靜寶	地相家相方位秘傳	一、五〇	10
小橋正則	惡い家相の直方	一、〇〇	10
今村猛雄	三坪養鷄	一、五〇	10
草間德治	農作物一年	二、五〇	14
加藤行作	和洋蔬菜の栽培	一、七〇	10
同	盆木盆栽高山草木	一、七〇	10
同	果樹小果樹栽培	一、七〇	10
石井勇義	盆栽の仕立方	一、五〇	10
青木信一	四季の園藝手引	二、五〇	14
加藤行作	草花花木の栽培	一、七〇	10
大塚春雄	仙人掌の種類栽培	二、〇〇	10
石井勇義	球根の種類と栽培	一、五〇	14
同	菊花栽培寶典	二、〇〇	14
誰も出來る	木の實細工造り方	一、五〇	14
誰も出來る	松かさ細工造り方	一、五〇	14
誰も出來る	シダ細工造り方	一、五〇	14
ペン字入	商業書翰文作方	一、五〇	14
高木彌三郎	最新速記術講義	二、五〇	14
簿記學院	商業簿記覺え方	一、二〇	9
宮本軍治	最新珠算の詳解	一、〇〇	14
住友善之助	獨立營業讀本	一、二〇	10
吉田諒藏	米と肥料の知識	一、五〇	10
小汀利得	株式投資入門	一、六〇	14
富と證券	公社債株式投資	一、六〇	14
小汀利得	株式と相場知識	一、五〇	10
必らず儲る	株式相場實戰術	一、五〇	14
相性・金神	相場と競馬知識	一、〇〇	9
加藤美侖	金錢活用安全利殖	一、二〇	10
讀賣新聞社	こんな物が金になる	一、二〇	9
郡菊之助	統計餘談	一、二〇	10
實用新案 意匠商標	特許受け方	二、〇〇	14
孫六自慢の	高速度金儲け法	一、〇〇	14
倉本長治	小資本上手利殖	一、五〇	14
小資本成功	開業案內二百種	一、五〇	14
有望確實な	副業案內三百種	一、五〇	14
美術大講座	デッサン基礎學	一、五〇	10
同	デッサン科實習畫材別	一、五〇	10
同	デッサン科實習用具別	一、五〇	10
同	デッサン科名作解說	一、五〇	10
同	デッサン科名作解說	一、五〇	10
同	圖案科基礎學	一、五〇	10
同	圖案科平面圖案創作法	一、五〇	10
同	圖案科立體圖案法	一、五〇	10
同	圖案科裝飾美術史	一、五〇	10
同	圖案文字描き方	一、五〇	10
洋畫研究會	ペン畫の描き方	一、五〇	10
同	水彩畫の描き方	一、六〇	10
同	鉛筆デッサンの描方	一、六〇	10
同	圖案の描き方	一、六〇	10
平凡社版	名作挿畫全集	一、〇〇	14
細貝香塘	漢詩讀本	三、〇〇	14
淺川玄耳	支那閨房秘史	二、〇〇	14
同	支那獵奇秘話	一、五〇	14
金子泰次	滿蒙獵奇秘話	一、六〇	14
武田正憲	[illegible]ばなし	一、二〇	14
高井莊吉	情痴犯罪捕物帖	一、六〇	14
ゾラ	ナナ	一、〇〇	14
ホワイト	傑作 私刑(リンチ)	一、六〇	10
ロレンス	傑作 戀の放車	一、二〇	9
那須書房版	バイロン全集	三、〇〇	14
伊藤・永松	ロレンス文學論	一、五〇	10
ヴァレリイ	傑作 テスト氏	一、〇〇	10
ゲーテ	ウエルテルの惱み	一、〇〇	10
デューマ	椿姫	一、〇〇	10
ジイド	田園交響樂	一、〇〇	10
ロレンス	翼ある蛇	一、〇〇	10
三笠書房版	ソヴエト文學全集	一、五〇	14
ツルゲネフ	傑作 ルーヂン	一、〇〇	14
同	傑作 貴族の巢	一、〇〇	14
同	傑作 父と子	一、〇〇	14
同	傑作 煙	一、〇〇	14
同	傑作 獵人日記 上	一、〇〇	14
同	傑作 獵人日記 下	一、〇〇	14
同	傑作 散文詩	一、[illegible]	14
同	傑作 その前夜	一、〇〇	14
同	傑作 處女地	一、〇〇	14
同	傑作 村のひと月	一、〇〇	14
ドストエフスキ	傑作集 幼き人々	三、〇〇	14
河東碧梧桐	山水隨想	一、六〇	10
東鄉青兒	カルバドスの唇	二、五〇	14
森田草平	のんびりした話	一、五〇	14
吉江喬松	自然の煉獄	一、五〇	14
五十嵐力	我執轉々記	一、五〇	14
大和資雄	かたばみと環境	一、六〇	10
今井慶松	松の吹き寄せ	一、六〇	10
松原至大	童心叢書 子と遊ぶ	一、六〇	10
本間久雄	わが鑑賞の世界	一、五〇	14
白鳥省吾	隨筆 世間への觸角	二、〇〇	10
坪田讓治	隨筆 班馬いななく	二、〇〇	10
村上浪六	すてうり勘兵衛	一、六〇	14
長與善郎	傑作 この男を見よ	一、六〇	14
和田傳	傑作 納屋と物置	一、六〇	10
芥川龍之介	傑作 煙草と惡魔	一、五〇	14
丸岡明	生きものの記錄	一、五〇	10
佐藤紅綠	長篇 富士に題す	一、五〇	14
同	樂園の扉 幸福物語	一、五〇	14
同	傑作 美しき人々	一、五〇	14
同	愛の巡禮第一步	一、五〇	14
德田秋聲	傑作 黴・足迹・爛	一、五〇	14
同	青い風 外廿一篇	一、五〇	14
井手町六	新しき生へ 二册組	三、〇〇	14
菊池寬	恩讐の彼方に	一、五〇	14
川口松太郎	傑作 戀愛三十年	一、〇〇	14
長田幹彥	白鳥歌空の花々	一、〇〇	14
同	旅役者祇園夜話	一、〇〇	14
同	傑作 霧・鳥・娘	一、〇〇	14
同	波のうへ紅い太陽	一、〇〇	14
同	傑作 愛戀二筋道	一、〇〇	14
尾崎士郎	傑作 情熱の傳說	一、五〇	14
室生犀星	傑作 弄獅子	一、五〇	14
武田麟太郎	傑作 下界の眺め	一、五〇	14
芹澤光治良	傑作 春	一、五〇	14
中野實	熱風・哀戀散華	一、〇〇	14
濱本浩	都會の虹 朝風の歌	一、〇〇	14
三上於菟吉	長篇 青空無限城	一、六〇	14
吉川	延片手劍法旅しぐれ	一、〇〇	14
林二九太	バンカラ優等生	一、〇〇	14
同	新婚テキスト	一、五〇	14
宇野浩二	傑作 軍港行進曲	一、六〇	10
奧野他見男	ユーモア傑作集	一、二〇	10
井東憲	重役病患者	一、六〇	14
佐藤八郎	愉快な溜息	一、六〇	14
杉村幹	腦病院風景	一、五〇	10
太田千鶴夫	人生探訪 檢屍	一、五〇	10
坂部護郎	山岳遭難 雪崩	一、六〇	10
大探偵小說	スタイルズ事件	一、五〇	10
千葉鼓堂	滑稽問答大會	一、〇〇	14
講談社	講談文庫 五册組	三、〇〇	14
松山思水	よく寫る寫眞術	三、〇〇	10
同	趣味の寫眞術初步	一、五〇	10
同	スケッチ寫眞術	一、二〇	10
片岡春洋	趣味の寫眞術	一、六〇	14
[illegible]	カメラ讀本	一、五〇	10
鈴木信也	寫眞の第一步	二、〇〇	14
小鳥飼育會	趣味 小鳥の飼方	一、五〇	10
鈴木	圖解 玉突術入門	一、二〇	14
田邊尙雄	レコード名曲解說	一、五〇	14
[illegible]	音樂讀本	二、五〇	10
[illegible]	商業に志す人へ	一、六〇	10
長田進	山スキーの技術	一、二〇	14
[illegible]俊吉	オールスポーツ	一、六〇	14
服部	圖解 柔道新教範	一、二〇	10
同	圖解 劍道新教範	一、二〇	10
入澤	和漢書道講話	二、〇〇	14
鈴木香雨	圖解寫明書道通解	二、二〇	14
池田	最新書道法帖	一、五〇	9
鈴木香雨	書體字典	一、六〇	14
中村方義	書法圖解三體千字	一、五〇	10
小林	書千字文	一、五〇	9
同	草書千字文	一、五〇	9
小島文夫	字くづし辭典	二、五〇	14
高橋	眞行草ペン書道寶典	一、六〇	14
井上千圃	ペン毛筆七體辭典	一、五〇	10
文學研究會	現代文章讀本	一、二〇	10
作文研究會	自習作文讀本	一、五〇	12
靜哉	自習現代文讀本	一、五〇	10
ペン文字入	明解書翰大辭典	一、六〇	14
佐山順吉	ペン字入書翰新辭典	一、〇〇	10
一ヶ年	應用手紙作方百科辭典	一、五〇	14
相澤春洋	ペン青年書翰文	一、〇〇	14
加藤美侖	手紙文章必須要訣	一、二〇	10
模範・獨習	英語會話リーダ	一、二〇	10
學會	自習英語の學び方	一、二〇	12
黑田俊幸	代數問題徹底解決	一、五〇	10
山內太一	詳解算術	一、六〇	14
武田建滿	算術速成講義	一、二〇	10
學人	算術問題考へ方	一、〇〇	10
研數學館	初等數學全書	一、〇〇	14
鈴木芳松	英語單語と成句	一、〇〇	9
講談	自修佐川の英文解釋	一、六〇	9
自習・受驗	漢文新解釋法	一、〇〇	14
橋爪謙二	漢文構成と解釋	一、六〇	10
堤	自習國文新解釋法	一、〇〇	12
齋藤惇	模範漢和辭典	一、五〇	10
地名人名入	新語常識辭典	二、〇〇	9
高野博士增補	机上辭典	二、〇〇	9
中山博士	和英併用 新式辭典	二、〇〇	9
齋藤惇	最新辭典	一、五〇	9
成光館	行草書入 芳賀辭典	一、五〇	10
藤村博士	便利重寶辭典	一、五〇	9
岡田實磨	新式英和辭典	一、五〇	9
大倉書店版	增訂新撰辭典	二、〇〇	14
同	新和佛辭典	二、〇〇	14
小田博士	科學的の家庭看護	一、六〇	14
貝原益軒	先生養生訓	一、五〇	14
藥學協會	臨床醫學處方全集	二、〇〇	14
調源太	新藥對照便覽	一、五〇	14
青木信二	萬病治療藥草圖鑑	一、五〇	14
堀越龜蔵	圖解 お灸新療法	一、五〇	14
萬	診斷 新術仙掌療法	一、六〇	10
增井博士	蓄膿症根本治療法	一、五〇	10
久保田	中氣中風根治療法	一、二〇	10
羽太博士	生殖器圖解と性	一、〇〇	10
同	性典	一、五〇	10
加藤美侖	性愛秘訣 男女衛生	一、五〇	10
若き男女と	夫婦性知識 三册組	一、五〇	10
澤田順次郎	姙娠調節 性の圖解	二、〇〇	10
福井正憲	性と月經 月華物語	一、六〇	14
何でも分る	もの知り辭典	一、二〇	9
加藤美侖	宴會座興かくし藝	一、二〇	10
木村書店版	禮儀作法挨拶仕方	一、〇〇	10
岩村秀太郎	洋服裁縫圖解	一、五〇	14
滿草園花香	生花入門と秘法	一、五〇	14
阪井末雄	人相の新しい見方	一、五〇	10
必ず出世す	名前の附方手引	一、五〇	14
永島眞雄	手は運命を語る	一、二〇	10
松田軍衛門	新易典	二、〇〇	14
五年間連用	重要日記	一、五〇	10

急告!!

定價元價를無視한大投賣! 全面어느것이나一册五十錢均一! 本日부터二週間限 至急注文하압시오。三册以上은代金引換便大歡迎、葉書一枚로直時送本함。其他振替、小爲替、郵券代用무엇이나조흡니다。아무조록送料加算코直接東京神田神保町讀書新聞社特賣部로注文하심을願하옵니다 以上

大景品 實用日記 昭和十三年度日附

現代人에快適한此評判日記는本廣告에依하야三册以上注文하시는이에게對하야빠짐업시無代進呈합니다

東京 神田區神保町一ノ三〇 讀書新聞大洋社 電話神田四七二七番·振替東京三〇六八七番

高城地方紹介版

東海岸의寶庫로서 水陸產物이豐富
飛躍的發展따라人口도激增
長箭、巨津、烽燧는天然의良港

距今二千五百餘年前에 濊貊國의領屬이되엿다하며 其後高句麗의州가되고 新羅景德王時에는郡이되고 高麗朝에는縣이라稱하엿다가 李朝에至하야郡이라改稱하야只今에至하엿다 大正三年三月一日부터杆城郡에 倂合되엿다가 同八年五月十五日 郡의名稱位置變更에依하야 高城郡이라改稱하고 通川郡臨南面一部를新北面에編入하는同時에 舊杆城郡의土城面과東湖里를 除한竹旺面을 襄陽郡에編入하엿다 新北面長箭里는 昭和十二年七月一日 邑制實施에依하야 長箭邑이되는同時에 新北面은 外金剛面이라改稱하엿고 東海線의 開通과 함께 產業文物의發展施設이 자못邁進하는途上에躍足하고잇다

地勢 本郡은江原道의東北에在하니 東은日本海에 西는淮陽、麟蹄의兩郡에 南은襄陽郡에 北은通川郡에接하니 面積은東西三十二粁 南北六十粁餘이오 西部郡界는 金剛山連峰이重疊起伏하야 地勢가一般으로高하고 海岸으로向하야急傾하엿고 平野가比較的小하나 神溪川、南江、北川、南川의流域은灌漑의便이利하고 地味가肥沃하야 農耕에適하고 海岸線은比較的曲折이多하야 天然의良港인 長箭、巨津、烽燧港等이잇고

氣候는 大概溫和하야 夏季는攝氏卅四度를最高로하고 冬期는零下廿一度를最低로하며 天候는大概良好하나 冬期는積雪이數米突에達하는때가有하며 陽春三月早터六月까지는强烈한風이吹하는때도有하다

人口 昭和十年十二月末現在內外國人總計는 六萬八千五百六十四人이나 昨今長箭邑의飛躍的發展에依하야 現在는顯著한增加를示하고잇다

水產 本郡의海岸線은延長[illegible]이오 長箭과如한天然의良港을爲始하야 巨津、烽燧、猪津、大津 等 著名의漁港이잇고 漁產이豐富하야 水產業으로서는 全朝鮮의第一이다 業者戶數는

種別	日本內地人	朝鮮人	合計
漁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兼業及被傭者戶數入）

此에對한 十一年度漁獲及製造表는 如左하다

（一）漁獲高種類別價格類表（單位圓） 十一年度分（ ）內는 他管內에서의 漁獲高

種別	日本內地人 管內在住者	日本內地人 管外在住者	朝鮮人 管內在住者	朝鮮人 管外在住者	合計
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片口鰯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明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若布	—	—	[illegible]	—	[illegible]
岩苔	—	—	[illegible]	—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水產製造種類別價額表（單位圓） 十一年度分

種別	日本內地人	朝鮮人	合計
鰯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鰯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魚骨粉末肥料	[illegible]	—	[illegible]
鰯諸	[illegible]	—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우리는 右表에依하야 本面의 水產業이 얼마나發展되고잇는가를볼수잇는同時에 一四二戶에不過하는 日本內地人이 三千二百五十戶라는 朝鮮人보다 漁獲高나 製造高에잇서서 훨신 더만흔것을 볼수잇다 이原因은 勿論水產業에 對한知識의優越、巨大한 資本、따라서 近代的漁具의 使用等에 잇스나 一方政治的優位에도잇는것이다 이제 漁具와 船舶에 重要한例를 擧하면 今日 水產業者들이 서로어드랴고 몸을사고 덤비는 巾着網의 十一年末 本郡統計는 二十四件中 日本內地人二十一이 朝鮮人三이라는 數字와 大敷網二百十八統 이는朝鮮人은 꿈도못꾸는施設이며 動力잇는船舶六十八隻中(汽船發動船)朝鮮人의所有는 一割弱이다

農村의振興은遲遲 漁村엔活氣漲溢
農業과水產은產業의兩大宗
水產總額千萬圓突破

農業 本郡의 耕地面積은 十年度統計가 田四、五四五町步 畓四、五七四町步 合計九、一一九町步이오 農家戶數는 六、○六六戶에 一戶當耕地面積 一町四反九畝에當한다 그러나 昨年의 大水災로因하야 流失、埋沒、浸水된것이 田畓合하야 四、○○六町步 即總面積의四割四分에 該當하고 그中에서流失面積만이 三○五町一反 埋沒面積 八七九町五反으로서 耕地面積을 만히縮小식혓다 前記農家戶數를 다시細別하면 一割八分가 自作農及 地主階級이오 四割八分가 耕地를 所有치못한純小作人으로서 그所得의 太半은地主의所有로 돌라가고 그들 自身은 自立自營을 不許하는狀態이오 三割四分가 自作兼小作農으로서 겨우自立自營을하나 이도또한 劣惡한小作條件 過重한負擔 其他諸原因에依하야 每年小作農에의 沒落過程을 밟고잇스며 더욱昨年의大水災는 此에拍車를加하얏다 이제本郡內에 貸附된 金融組合의 貸附金總額은 六十萬에近한것으로서 그大部分이 農村에 貸附된것이며 其外一部高利貸金業者의 高利債金과 拓殖銀等의 貸附金을加算하면 실로더만흔債金이 우리의農村에 貸附된것이다 一方으로 耕作方法의進步에依하야 얼마式 收穫이 增加된다고하나 이增加率은 每年늘어가는 借金利子、諸課稅 金肥代、其他諸支出의 增加率을 따르지못한다 이狀態를 그대로繼續하는것은 우리地方農村의現狀이다 이엇지 우리地方의現狀뿐이리오 우리는 이 朝鮮의農村問題에 對하야 重大한 關心을가지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이제 本郡主要農作物의 十年統計를들면左와如하다

種類	作付反別（町）	收穫高
米	四、六三一	四四、七六三
粟	一、一四三	八、三二五
大豆	一、三三五	六、五三五
小豆	一、六六五	六、五六八
馬鈴薯	六六八、三二	一一〇四、二五一貫
裸麥	三〇八、四	一、六六五石

緊急한當面問題

巨津築港工事와 陳富嶺의復舊
巨津 張基奭氏 談

地方問題로서 急을 要하는것은 勿論 만히잇습니다만 나는 우리地方의 產業交通上으로 巨津築港과 陳富嶺復舊工事가 가장急하다고 봅니다 巨津築港이 交通產業上으로 必要한것은 더말할것이업것지만 나는 그보다도 昭和五年以來 아즉 記憶에 顯然한 今年四月까지 巨津을中心으로한、近海의 百有餘隻의漁船과 九十餘生靈의 遭難을 想到할때에 當局의 通牒에依하야 地方民의 醵出을 完了하지 六年이되는 今日까지도 아즉 起工을보지못하게되는것은 甚히遺憾으로생각하며 巨津築港問題와 相俟하야 本地方의 心臟線인陳富嶺이 昨年水害以後 아즉 復舊되지못하고잇는것은 우리地方의 큰 損失입니다 우리는이 兩問題의 達成을 爲하야 萬難한努力이잇지아니하여서는안될줄 압니다

漁夫待遇改善 農村副業獎勵
水產業 金延壽氏 談

各漁村마다防波堤를 設備하고 漁船을改良하야 災害防止에有効하게할것 漁夫의生活條件을向上식힐것이 水產業者인 나로서 平素에생각하고잇는問題입니다 그리고 우리漁村에서 每年漁期에 쓰는『筵』과『繩』의 大部分이 日本內地產입니다 이것을보면 우리朝鮮農村은아즉도 이러한副業에 눈뜨지못한證據입니다 압으로 우리地方에서도 農村에서 自作自給하도록 힘써주엇스면조켓습니다

民意에順應된 人事行政이急務
高城郡守 金昌斗氏 談

나는 慶南平昌에잇다가 本郡에 赴任한지 겨우 三個月밧게 안되엿슴으로 아즉까지 本郡의事情을充分히 알지못합니다만 大體에잇서서 나는山岳이多한平昌郡에 잇슬때에 山에對하야는 多少研究한바잇는바 本郡은 뒤에는山이오 압에는 大海이어서 山에잇는者는 山을利用하도록하고 漁村에잇는者는 바다를利用하도록하야 各各特徵된 富源을 民生의途에充分히 利用케하려고합니다 더욱 本郡은 水產에 잇서서 現在全鮮의第一이오 아프로 얼마던지發展할수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對하야 漁業에 對한巾着網其他도 今日보다 더 잇서야할것이오 水產의郡長箭에는 아프로 水產學校의 設置도 必要하다고 합니다 나는아프로 여기에對하야 더研究를하랴고하오며 地方의情況을 充分히把握하야 民情에適合한行政方針에 注力하려고하며 地方의 有志諸氏와의 理解를 提携하야서 官民一致의 諸般建設에努力하고저합니다 여기對하야는 地方의有志諸氏로부터 恒常間隔업는 問題의 提起와意見의開陳이잇서주기를 바랍니다 一般地方人士에게 希望하며 貴紙가 今番地方版을 刊行함에應하야 本郡의具體的狀況을 널니 宣傳하며 一般의注意를 喚起하야 地方發展에 貢獻이多大함을 期합니다

警察의民衆化
高城署長 山下政雄氏 談

나는 昨年大洪水以後에 本郡에오게되야 이제겨우 一年이되는바 本地方에오던때의 첫印象은 爲先 昨年의 大水災時에 地方의有力者、有志諸氏가 罹災民의 救濟에잇서서 隣他地方이 追及지못하리만치 熱誠을다한데 對하야 感激을 마지안헛스며 그뒤 一年을 잇는동안 地方的으로 人心이 淳朴하고 協同的精神이 豐富한데 對하야 非常히 好感을가지게되엿다 本地方은 各方面으로 施設의 急을要하는것이 多하고 이에는 地方의有力者有志諸氏의 더큰 協同的『힘』을 기다린다 나는本郡에在任하는동안 行政者의立場에서 本地方의 有力者有志諸氏와 協力하야 微力이나마 地方發展의 一助에資하고저하며 警察의民衆化에 一層努力하고저한다 貴報가 今番 地方版을 刊行함에當하야 地方의 懸案을 表現하기에 主力함은 가장 賢明한 方法이라고 思하야 祝賀함을 不已하며 所懷의 一端을 表한다

金剛山開發이 가장緊急한일
道會議員 崔龍富氏 談

金剛山開發을 速히하야 널리 內外國人에게 觀覽식혀서 同山의價值를發揮할것 水害復舊事業을 速히完成할것 巨津築港을 速히할것 長箭에防波堤를 만들것 京春鐵道終點을高城으로할것 中等校設立과 水產業發展을圖할것

教育、產業의施設과 農漁村救濟機關
水產王 黃雲天氏 談

（一） 本郡은 水產業이 郡單位로서는 全朝鮮의首位이요 每年急激한發展을 하고잇스며 當局은 水產業의 發展에 對하야 銳意研究施設을 不怠하고잇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보다第一線에서일하는 漁夫의 生命을威脅하는 災害防止에對한 施設이 가장急務인줄생각하며 이에따라 重要港灣의修築、漁船改造等에對한施設、漁船改良等이 急務인줄로 압니다 오 아직까지 漁夫가 遭難한때에 家族의救濟에對한 施設이업슴은 遺憾이다 여기對한方法을 講究確立하는것이 우리들의 當面任務인줄압니다

（二） 其他農漁村을 通하야 窮細民의 救濟、各學校의學級增設、學年延長、補習教育機關의 設置가 急務인바 이는 全地方的으로 有力者有志가 協心努力하면 쉬운問題라고봅니다

長箭과城北里連結 防波堤築成急務
水產界重鎭 李順興氏 談

氏는 今年三十四歲의 青年實業家로서 水產界에 投身한지는 이미 十三年이란 淺時日임에도 不拘하고 公益을 爲하야 바더오는 地方的 긴全信任과 天來의 敦厚한性格 水產의地인 本地方에서 斯業界에 重要한 存在를가지고잇스며 今年七月에 長箭邑制實施에 依하야 邑會議員에 當選되고 青年層을 代表하는 重鎭이다 堤設에對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本郡은 水產業으로서 全鮮의第一이오 여기에는 勿論長箭港이中心이되여잇습니다 이에따라 長箭은 今年七月부터 邑制가 實施되여 城北里도 長箭邑에編入되엿는바 나는아프로 長箭과城北里를 一環으로한 大長箭의實現이잇슬것을 미드며 이實現은 全朝鮮水產業의 發展에잇슴니다 우리는아프로 斯業에對하야 微力이나마 다하고저합니다 그런데 某消息通에게서 들으면 現在長箭港灣의 南端에서부터 約二百間의 防波堤를 築成할計劃이 當局에 立案되여잇다고 합니다 이것이事實이라면 防波堤에依하야 波濤의反響은 반드시 城北里에미칠것이며 城北里는 큰威脅을받을것입니다 現在長箭港內는 油肥工場이 더욱設置할餘地가 少하고 不得已 그發展을 城北里에 伸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며 이런 傾勢에서 現在城北里에는 巨大한 工場이 急速度로 建設되고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防波堤의設備가업서서 船舶의出入 漢砂地의 利用等에 만흔制約을 밧고잇습니다 만일 當局으로부터 前記長箭港灣南端의防波堤에 對한立案이잇다면 越便對岸城北里 大選通里까지 着眼하기 바랍니다 將來는 五、六百間의 距離로서 兩便에다 同時에 防波堤를 築成한다면 長箭과 城北里는 一環으로한 大良港이 出現될것이다

는同時에 現在城北里의 波濤로因하야 利用하지못하는 三四萬坪의 漢砂地가 그대로利用되고 城北海岸은 水深이 茹淺함으로 만흔工費를 不要하고도 數萬坪의 埋立地가 一氣呵成으로 生할것이며 城北里臨域內의 無蓄殺한地帶가 그대로 利用되야 今日의 長箭邑은 十倍의 躍進을 보리라고합니다 압흐로 이主張을爲하야 굿게努力하려고 합니다 云云 （寫眞은 李順興氏）

烽燧港의生命線 河口埋沒防止는
水產界巨星 芮奉來氏 談

（一） 烽燧里는 南江岸에沿한 漁港으로서 東海岸에 屈指하는 良港입니다 그런데 最近數年以來로 南江의主流에 變動이生한關係로 港의河口가 流沙로因하야 漸次埋沒하여저서 現在發動船의出入이 不便하여지고 때로는 帆船의 出入도 不便합니다 이대로나간다면 東海岸의 有數한漁港인 烽燧港의 存廢問題이오 따라서 烽燧港을中心한 地方民의 死活問題이며 高城邑의 休戚에 直接關係를 가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防止하기爲하야 여기對한 防止工事를 當局이 調査研究를 速히하야 烽燧港을中心한 一帶의 生命線을 保全케하여주기를 바랍니다

衛生에對하야
醫師 某 氏談

一、傳染病이나 一般으로 아즉傳染病에對한 觀念이 薄弱하고 全郡을通하야 隔離病舍가 長箭（今春에생긴것）外에는 업다 여기對한 設備가 促急하다

二、近來 鰮油肥工場地帶化한以後 地方에는 副產物로서『파리』（蠅）問題가 頭痛꺼리다 各工場經營者는『파리』의 繁殖에 便利한 工場附近의 물이고이는곳과 其他 不潔한場所를 乾燥消毒하도록 最善의方法을 講究할義務가잇다

三、特히 長箭地方은 下水溝의施設과 塵埃物의處置에對한施設과 共同便所의設置를 急速히하지안해서는안된다

四、本郡內의 各學校를 通하야 兒童이 大部分이요 寄生虫이九十%나잇다 營養不足問題는 朝鮮人全體의 生活의反映이나 寄生虫의驅除에對하야는 家庭과學校當局에서 각별留意하면될것이다

大本山乾鳳寺
宗教社會事業에盡力

乾鳳寺가 歷史的으로 오래고 今日朝鮮에서 三十一本山中에서도 屈指하는 大刹인것은 世上이 知悉하는바이나 그보다 同寺의 存在의 光輝는 宗教社會事業에잇다 同寺는 舊韓國時代에 同寺境內에 鳳鳴學校를 設立하야 杆城社會의 重要人物을 만히 養成하엿고 그後에 鳳棲學校로 改稱하고 普通科와 中等科를 置하야 오래 英才의 養成에 努力하다가 원체 巨大한維持費問題로 廢校하는不得已에 至하엿스나 다시 佛教專門講院을 設立하야 現在三十餘名의 公費生을 養成하는一方 外科를 置하야 中等科普通科에 九十人을 收容하고잇스며 每年留學生을 派遣하야 將來의 敎導를 養成하니 現在專門과大學에 十三人 中學校에 七人이오 일즉養成해노흔 人物이 多數에達하고 朝鮮의 重要地에 八個所의 布敎所를 設置한바 附屬事業으로 幼稚園을 設立하고 講習所等을 經營하는데도잇다 明年에는 또杆城에다 幼稚園을 設立한다고 하며 同寺는 本郡內에서 大地主階級에 屬하나 엇던個人이나 團體보다도 小作條件이 寬厚하야 農民은 모다 同寺의 小作人되기를 願하며 救濟事業에 언제던지 손을벗치고잇는바 昨年의大水災時에는 同寺가 獨自的으로 만흔 救濟事業을하엿다 同寺의 慈光은 遐邇에 비최는것이다

杆城鄕校
文敎에貢獻多大한

杆城鄕校는 距今九三七年前 高麗忠烈王時에 元杆城郡北大使坊（今大使面）老姑峰下에 建設되엿고 李朝明宗丙午 距今四三九年에 杆城面下八音里（今校洞）에 移建되야 今日에 及하엿다 朝鮮에잇서서의 鄕校의役割은 李朝五百年을 支配하여온 儒道의 一要的任務를 하여온것은 勿論이나 杆城鄕校를中心한 元杆城地方은 古來文鄕으로서 有名하엿고 現在에잇서서도 恒常彩霞를 보이고잇는바 同鄕校에는 오래前부터 儒林會라는 儒林團體가 存在하야 儒道의振興에 努力하고잇스니 同會의 重要役員은 鄭鎭黃、崔秉昌氏外 尹德鉉、金澤植、鄭義泰、黃炳周諸氏이오 昨年에 早大政經科出身 朴仁權氏가 直員으로 任命된以來 本府의 方針에依한 心田開發運動의 先頭에서서 不休의活動을하고잇다 一方同鄕校에서는 일즉부터 地方敎育事業에對한 準備로서 相當한資金을 醵金貯蓄하고 압흐로 地方敎育事業을 實現할計劃이라 한다 現在 方今準備中인데 이것이 實現되는때는 地方的으로 큰曙光을 보게될것이다

（五面繼續）

教育界와宗教界

教育 本郡에는 아즉까지 初等敎育機關밧게업스니 公立小學校는 三校 七學級 二百六十八名을 收容하고 잇스며 公立普通學校는 七校로서 一面一校制는 完成하엿스나 아즉까지 四學年制의學校가 三校이오 郡全體의 學級數는 겨우三十一、在籍兒童二千四百餘名인바 每年學齡에達하는兒童은 千餘名以上임에不拘하고 收容能力은 僅히四百餘名에不過한다 이는暫時도 施緩하지못할 緊急한問題로서 學級增設、學年延長、學校增設의 緊急한施設을要하는바 이에對한 當局의 計劃施設은 何等積極性을 볼수가업다 吾人은 여기對한 當局의積極的施設을 促하는同時에 우리의 子弟를 敎育할 機關을爲하야 民間의自發的運動으로서 여기對한施設을 促進식히지아니해서는 안될것을 主張하며 學校卒業生中에는 或上級校에入學하는者도잇다 그러나 이는極히少數이오 多數는生活狀態가 不許한다 그리하야 鄕으로 모든實力程度로 편지한장도 올케쓰지못하는——가 實社會에 나가기도 不及하고 家事에從事한다 이 一員으로서 彷徨狀態를 未免한다고하나 各個의 家庭狀態는 이를 容受하지안코 일즉實社會에 나가게 되니 우리는 地方的으로 이들에게 適當한 補習敎育機關을 設置하여 實社會에 一員으로서나 活動할수잇도록 하여주는것이 急務한것임을 指摘하며 이事業에 對하야 地方有志諸氏의 協同을 기다린다

宗教 佛敎는 乾鳳、楡岾의 兩大本山과 神溪等 寺刹이 잇고 基督敎는 本郡에 布敎所五、信徒總數三百餘人이오 [illegible] 三七五人이다

◇教育界美聞◇
◇杆城公普校의增築運動◇

杆城公立普通學校는 現在六學級으로서 每年 入學兒童의 半數도 收容할수업는 狀態로서 學級增設의 急을 要하는바 昨年에 校長 原勝多氏의 着任以後 同氏의 熱誠과 同校後援會長 咸慶哲氏外 諸氏의 熱誠으로 學級增設의 準備로서 校舍의新築을 目標로 이建築資金을 만들기에 努力한바 벌서 二千五百圓에 達한다고하며 明年에는 이實現에 邁進하리라고한다

自然科學의標本室 藝術源泉金剛山
그存在는世界的이다
名勝古蹟

金剛山은 西南二十粁에在하니 一萬二千峰의 崇高는 天下無雙의 絕勝이다 本郡에關係한部分은 外金剛이라고한다 그 奇奇怪怪한 絕景은 이제새삼스럽게 말할것은 아니나 科學的으로보아서 地質學及氣象學的領域의 寶庫로서 世界學者들의 驚異的標點이되여잇고 植物로도 七百十五種이 있어 世界的多植物地域으로 匹敵이업다한다 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이라함은 外人의金剛山을 그리워하는 말이다 옛날사람들은 金剛山을 한번보기만하여도 곳羽化登仙할것처럼 생각하야 後世의 罪根을 소멸하리만큼 崇拜하엿다 果然 金剛山은 靈秀하다 엇더나라사람이라도 敢히自己의所有로 認定치못할 世界的偉大한存在이다 世界의가장 奇拔한 天才兒가 畢生의努力을다하야 千萬團書를 盡費하여가면서 金剛山의 萬分一의 勞作이라도 그表現코저 勞心焦思할지라도 그勞作의 勞務조차 描寫할수업는 宇宙의 奇巧神秘한 [illegible] 이제 幾個의 古蹟을 적어볼 [illegible]

神溪寺 溫井里의南三粁에在하니 新羅法興王六年에 普雲祖師의 創建한것이니 距今一千四百十九年前이다 觀音峰、文殊峰、世尊峰等의 壯觀秀麗한 屛障이 四面에 圍立하고 九龍淵에서 흘러오는 百曲溪流가 洞口를 流하엿스니 진실로 玉流乾坤이라 創建以來로 高僧碩德이 만히하엿다 數回의 火災로 僅히 四五殿閣이 남엇슬뿐이오 本殿인 普光殿과 六層舍利塔은 一千四百餘年의 蒼然한 古色을 남기고잇다

楡岾寺 邑西南二十八粁에 在하니 新羅南解王甲子에 創建한 二千年古刹이니 옛날 月氏國이란 나라로부터온 五十三佛을 奉安한 [illegible]

곳으로서 羽客、高僧의 [illegible] 遊하든곳이며 李朝宣祖王의 役에 泗溟大師의 唱義한곳이니 至今에 森嚴한 釼水刀山은 大師의 指揮를 기다리는듯 天한 老木高枝는 壯士의 凜然한 [illegible] 壯嚴秀麗한中에 別다른 偉彩를 發揮하고잇다 三十一本山의 一로서 寺僧百餘名이 有하며 長安寺 表訓寺等 六十餘處의 末寺가잇고 五十三佛을 爲始하야 歷史上으로 價値잇는 藝術品과 遺蹟이 多하나 近年寺僧의 藝術에 對한 見識의 少함과 不注意로 因하야 五十三佛중에 八位가 見失되고 其外 紛失이 多하엿스며 現在는 大雄殿이며 塔과 大鐘等이 有名하다

乾鳳寺 杆城面西十粁에在하는 距今一千四百十七年前 新羅法興王庚子에 阿道和尙의 創建한 [illegible] 百三十年後 新羅景德王十七年戊戌에 發徵和尙이 重建하고 念佛萬日會를 設하니 이가 海東念佛萬日會의 始初이다

海金剛 邑東三粁에在하니 金剛山의 一脈이 立石里압 海中에 자뿌라질하야 仙姿玉骨을 萬頃蒼波에 다시처 淸淨한 頂骨을 水面에 露出한이니 船頭岩、佛岩等 奇石亂態는 鳳凰世上과 隔斷함을 意味한듯하다 이를가르처 海萬物相이라한다

永郎莊 邑南約四粁의 地點에在하니 白沙靑松의 幽閑한곳으로서 西으로 蒼空에 소사잇는 金剛山을 우러러보며 南으로는 九仙峰을 바라보며 北으로는 岡巒이 起伏한 赤壁江口이며 東으로는 蒼漠無涯한 海上에 十數個의 島嶼가 點點히 水鳥와함께 浮沈한다

溫井里 邑西二十五粁에在하니 外金剛의 門戶로서 山明水麗함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金剛山案內의 最適地이며 [illegible]

三日浦 邑北一粁餘에在하니 周圍六粁의 湖水로서 幽閑淸靜하야 奇岩怪峰이 琉璃를 新磨한듯하며 湖上에 影映하야 마치 萬朶芙蓉이 물위에 倒揷한듯하다 中間에 白鳥의 往來하는 [illegible] 新羅王子 [illegible] 只今은 四時遊覽客의 根據地로서 大盛況을 이루어잇다

花浦 杆城面北二粁에잇서 天然의 [illegible] 三日浦와 永郎湖의 中間에在하다 [illegible]

張良塚 [illegible]

史蹟과傳說

金剛山을 차고도는 史蹟과傳說 地境이 神秘한것만치 說話와神話는 가장幽雅하고 가장浪漫的인것이 만타 一萬二千의 峰峰谷谷에 거의 아름다운 傳說과神話로서 充 [illegible] 가지안코서는 아니될 運命이란 말이드냐?

太子陵
新羅敬順王의太子

張良塚이 [illegible] 太子陵은 [illegible]

江原道의模範組合 杆城金融組合

二千二百三十二人의 組合員과 三十二萬四百圓의 貸附金을 가지고 昨年度의 延滯金이 僅히五圓이에 依하야 組合員의 利益을 本位로 江原道의 模範組合을 자랑하는 杆城金組에서는 全職員이 文字그대로 不眠不休로 負債整理、產業指導、夜學會、主婦會、慶弔會、一般組合員의 利便을爲한 生活必需品의 共同購入等 廣汎한 部門에 亘하야 活動하고잇는바 今春一期만의 共同購入品中 粟五八三俵、鹽五七六俵、配料二九四四俵、醬油二九四俵에 依하야 組合員의 獲得利益은 市場時勢에 比하야 粟一俵에 九十錢、鹽一俵에 四十五錢 配料一俵에 一圓弱으로서 合計三千六百三十八圓에 達하고 一方市場時勢를 抑制하는데잇서서 더有効하엿스며 全職員은 全組合員의 두터운 信任잇는데서 더욱더욱 躍進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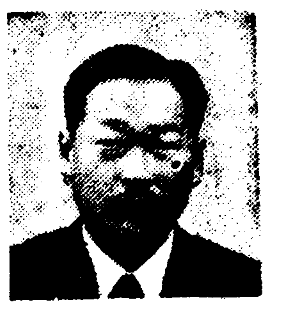
祝高城地方紹介版刊行

高城郡廳
高城郡農會
高城警察署
高城稅務署
長箭邑事務所
外金剛面事務所
高城面事務所
縣內面事務所
梧垈面事務所
杆城面事務所
西面事務所
水洞面事務所

江原道漁業組合聯合會
長箭鰯油肥組合
長箭邑 長箭印刷所 主 劉鳳烈 電話四八番
長箭邑 米穀 水產 金鐸商店
外金剛驛前 ◉代行店 李載秀
高城酒造株式會社 趙東秀
杆城釀酒所 金泳燊
杆城驛前 布木 百貨 우리商店 鄭日順
杆城驛前 布木 百貨 興華商店 全澤淳
梧垈公立普通學校長 日高件平
襄陽郡竹旺面文岩里 藥種商 李炯奎
襄陽郡竹旺面三浦里 醫生 魚在謙
杆城面長新里 金鼎權
杆城面廣山里 南上鳳
杆城驛前 文龍海商店
杆城郵便所
杆城面廣山里 金鳳紀
杆城和信連鎖店 黃正根

各界重鎭의面面

水産業界의王者 社會의恩人黃雲天氏



氏는當年四十一歲의 壯年實業家로서 水産業에잇서서 本地方의王座를占하엿다 그러나氏의今日이 잇기까지는 決코偶然한것이 아니오 本來貧寒한家庭에서生長하야 青年時代에는 온갓苦難을經驗하고 刻苦勵勉하야 今日을築成한것이다 그럼으로 氏는自身의 쓰라린經驗에依하야 넘어지는者를붓들고 弱한者를 도으며 地方의公益을爲한活動으로 半生을一貫하여왓스며 더욱昨年의大水災를當하야 物質精神兩方面으로도 一般罹災兄弟를爲한 獻身的努力 其他不斷히日常生活에잇서서 氏의 施惠는廣汎하게밋치고잇다 이러한德望과實行力者的性格은 모든方面으로부터 信賴과推仰을밧게된다 氏는現在長箭水産會長、長箭漁業組合長、長箭港期成會長、高城普通學校評議員、江原道水産會特別議員、江原道水産會特別議員、京城水産株式會社取締役、朝鮮鑛油肥料株式會社監事役等重任을 가지고 거의자리에앉을사이업시 奔忙하고잇스며 今番새로된 長箭邑의新築을爲하야 커다란役割을 하엿스며 새로設置되는 長箭道立醫院을 爲하야 私財五千圓을投하엿다 이와同時에 七萬圓의 巨額을勸誘하엿다 氏는 本郡에잇서서 實業界의代表的地位와 同時에 地方發展事業에 잇서서 支柱的役割을 하고잇스며 社會事業、公益事業으로도 地方의 貢獻을 頂는다 巾叔組水産組合의 共議員으로서 實業界方面으로도 重要한자리를 가지고잇다 (寫眞은 黃雲天氏)

水産業界의重鎭 長箭港開拓者 崔燦鉉氏

氏는 當年四十五歲의 壯年實業家로서 일즉二十五年前에 長箭의發展性에 着眼하고 高城面米茂里에서 來住하야 爾來 長箭의今日을 築成하기까지 獻身努力하야 長箭開發에 가장만흔功勞者中一人이며 實業의經綸에對한 先見의明이 有하야 今日江原道水産業界를 代表하는 巨屬群의一人이다 氏는 무엇보다人品이 寬厚하며 德望이深長하야 弱한者를도으며 넘어지는者를붓들어서全地方의 推仰을 바드며 公益事業을爲하야 不斷히 貢獻하여오든바 今年에는 新設되는 長箭道立醫院、普校의學級增設 幼稚園의期成을 爲하야 五千餘圓의大金을 貢獻하엿스며 長箭公普校後援會副會長으로서 同校의 發展을 爲하야 애쓰고잇다

地方繁榮의先驅 宗利小一氏

氏는廣島縣出生으로 大正十年에 渡來하야 巨津郵便所長으로서當地에 오게되엿다 爾來 氏는衆務爲하야 努力하는一方으로地方의施設과 公共事業을爲하야貢獻을하여왓스며 일즉水産業에着眼하야 近代的漁具의施設等으로는 한記錄을 차졋고 巨津漁業組合의 初代組合長으로서 十年을一貫하야 再選을 거듭하고잇스며 本地方의興衰에 至大한關係가잇는 巨津港의築港期成을爲하야昭和五年同期成會創立當初부터 一貫하게 先頭에서서 만흔業績을 남기고잇다 氏는 大正十五年부터 現巨津繁榮會를 創設하고 今日까지會長으로잇서서 여러方面으로 地方을代表하며 東海岸

地方發展功勞者 木田幾太郎氏

(夏日廻漕店)

氏는 愛知縣出生으로 일직大正二年에 渡來하야 本郡巨津港에서 廻漕店을始作하야 今日에 及하엿다 氏는當時 아직幼稚한 地方商業의 發達을爲하야 商業者들에게 만흔便宜를取하엿스며 巨津港의開拓과 地方敎育其他公共事業을爲하야 만흔貢獻을 하여왓고 現在에는 本地方의熱望하는 巨津築港期成會의 副會長으로서 巨津築港의 速한實現을 爲하야 모든精力을 다하고잇다 氏는 性格이 寬厚하며 抱容力이無限하야 氏의機關에서從事하는

水産業界의巨星 實業家 丙奉來氏

氏는 當年三十九歲의壯年實業家로서 今日 本地方에잇서서屈指하는 巨富이다 그러나 氏의今日이잇기까지는 決코偶然한것이 아니오 十數年間一貫한 勤勞와奮鬪로서 모든不運을克服하며 여기對한 地方的信任밋에서 實業家로서의 現在를築成하엿스며 一方으로 地方의 公益事業을爲하야 精神物質兩方面으로 크다란貢獻이잇스며 鄕里儒城港의發展과 多數漁民의 利益을爲하야 努力하고잇다 (寫眞은丙奉來氏)

臨床界의名人 公醫 崔圭河氏

氏는本道鐵原出生、今年四十三歲의 老練한醫師이다 일즉大正五年에 京城醫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本郡에서 三年間 道立醫院에 勤務하다가 그後 二年間 自營하다가 昭和四年에 長箭公醫로 就任되엿스며 昭和四年에 다시長箭으로 와서 氏의不幸한公醫로 對하야 技術과誠意를 다하야 도라오지 몰랏스며 그後 다시 長箭으로 와서 公醫로 就任되엿다 信任과 誠意는 全地方的으로 人氣를 가지고잇스며 新開拓地長箭의醫療를爲하야 만흔貢獻을하면中 開業當時부터 나라고하야 全地方的으로 信任을바다 氏는個人事情으로因하야 不得已辭任하게되엿다 氏는 무엇보다臨床에對한 技術이卓越하며 患者取扱에對한 誠意가一貫하야 氏의門前에는 毎日患者가絡繹한다

實業界의長老 長箭開拓의功勞者 崔永福氏

氏는 今年五十四歲의 老紳實業家로서 二十年前에 原州地江陵으로부터 長箭에來住하야 當時一個寒村에不過하던 長箭의開拓을爲하야 努力한 功勞者의一人이오 일즉 協成青年會의 四十餘年間 新興青年運動에 多大한援助를하엿스나 一方實業界에잇서서 一貫한勤勉과奮鬪로서 今日江原道地方에서 朝鮮人實業界를 代表하는巨屬中의一人이다 氏는 現在長箭의敎育事業을爲하야 努力하고잇스며 地方의發展期成會長으로서 長箭道立醫院에 三千圓을 寄附하야 公益事業에 만흔貢獻을 하고잇서서 一般의 信望을 밧고잇다 (寫眞은崔永福氏)

鄕土啓發의功勞者 水産業 黃正炫氏

氏는 本郡高城面出生、當年三十四歲의 青年實業家로서 일즉春川農校를맛치고 故鄕인本郡에서 技術員으로 十有餘年을 在勤하야 農村의 振興과 鄕土의 啓發을 爲하야 盡力하엿스며 事業으로는 水産業에 着手하야 多大한成績을 올리고잇다 氏는現在長箭漁業組合 代議員으로 잇으며 鄕土의 發展을 爲하야 貢獻이 적지 안타 氏의現在의技術보다도 그의不惑하는 研究에對하야 將來를 더한 期待하고잇다

木材業界의王座 善益商會 車善君氏

氏는 當年三十九歲로서 本郡木材界의 王者이다 氏는 본래 寒微한 家庭에서 生長하야 三十이넘도록 世情의 辛酸에 시달리다가 奮鬪와 努力을 하야 手腕으로써 本郡에잇서서木材界의 王座를 占領하엿고 斯業界에 잇서서 全朝鮮的으로屈指하는 存在를 가지게되엿다氏는 現在高城邑에서 善益商會、協和製材所를 設置하고 「보이란」一臺를 使用하야 大規模製材를하는 一方 멀리滿洲의 無盡藏한 木材에 着眼하고 牧丹江에다 出張所를 置하야 延吉林務署管行所代한 木材를 請負流送하고 立木을 拂下하야 大規模의 作業을하고잇는바 氏의經營과 手腕은 우리에게 큰期待를 가지게한다 氏는一方으로 育英과救濟事業에 만흔貢獻을하고잇서서 氏가住宅水洞面에서 作業을 하고잇는동안은 同面의敎育事業을爲하야 不朽의貢獻을 남겻스며 高城公普增築에 一致寄附하야 獨力으로建築하엿고 昨年大水災時에는 一般罹災兄弟를爲하야 만흔貢獻을하엿고 不斷히地方事業에努力을다하고잇는바 氏의今日의成功의裡面에는 모든方面을總察하는 氏의弟君善淳氏의 周到한計畫과烱眼이 絶大의힘이되고잇다

醫療界의彗星 高城救世醫院長 白永祚氏

氏는 黃海道載寧出生으로 일직京城「세부란스」醫專을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元山救世病院에서 在職하다가 四五年前에 高城邑에와서 個人으로開業하야 未幾에 氏의 一貫한 誠意와 優秀한技術은 高城地方의 두터운信任을 바들뿐아니라 멀리 襄陽、杆城、通川、淮陽一部에서까지 患者가 輻湊한다 氏는 外科手術에는 獨特한技術을 가진데다 手術을할때는 손의 手術을 바로거질 때에는 執刀할하여 獸醫을하며 또한 小兒科、內科에對하야도 造詣가깁고 現在 城邑公醫로서道警察醫로서 한몸에 加하야 氏가 崇世하게된것이라고한다 이는 氏의名譽가 지고잇는데 公醫와 城道醫를 한몸에 兼하야 모다患者가 오지아니하야 自然히 그만두고 갓가히에 道警察醫로 되엿다

刀圭界의泰斗인 內科 小兒科 鄭民澤氏

氏는 當年四十四歲의 老練한新開拓地長箭에 着眼하고 移來하야 開業을하자 患者로서 一般의 尊敬을 밧는다 氏는 上京하야 朝鮮人으로서 一般의 尊敬을 밧는다 氏는 依하야 濱近各地에서 患者가 輻湊하는바 氏의 專攻은 內科、小兒科인데 그病院에는 重症의外科患者도 入院治療를 밧고잇서 外科에對한 手腕도 매우 높은 醫療界뿐아니라 高尙한人格에 對하야 各方面으로부터 尊敬을 밧고잇다 氏는 天生의 學者로 노라온 社交的場面에는 一切 나서지안는다 이로因하야 一部에서는 非社交的이라는 非難도 잇는모양이나 氏는 貴重한 精力을 社交에 슬時間이 잇다면 기다리는病者一人이라도 더 보아주는것이 自身의 義務라고하면서 언제던지 臨床의 남은時間 을 研究에서 싸코잇다

醫療界의巨人 李鍾化氏

氏는 咸南端川出生 當年四十二歲의 壯年實業家로서 運輸界에 오래 經驗과 큰手腕을가진 斯界의 巨擘이다 氏는 東海北部線의 起工始初부터 歡谷驛에서 運輸業을開始하야 爾來 歡谷、庫底、通川、高城에서 큰存在이다 再昨年 杆城驛의 開通을期하야 杆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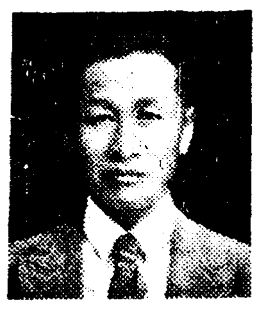
洋漢醫를兼全한 三省醫院 崔弼鎬氏

氏는 當年三十六歲의青年으로 洋漢醫로서地方的으로 名聲이 높다 氏는 어려서부터 父親以來의 遺業인 漢方醫學을 專攻하야 秀才의稱을 들엇스나 다시外科에 對한洋方을 學得하고저 京畿公醫에 春川道立醫院에가서 實習하고 春川道立醫院에가서 實習하다 郷里인 雅城에서 開業하엿는데 洋漢方을綜合한 優秀한技術과 至誠一貫한 奉仕的精神은 遠近地方에 好評이 자자하고 그의門前은 文字그대로 患者가 輻湊하고잇스며 治療에 對한 거의實費에 近한奉仕와 一般貧民病者에 對한 特別한 同情은 地方的으로 稱讚의的이 되고잇다 近間에는 一時韓方醫에서 因하야 同伴 小兒 기다리면서 後援會를組織하고 後援會員으로 氏는本地方이 나은 立志傳中의公益家이다 (寫眞은徐廷九氏)

天才的青年醫師 咸錫玖氏

氏는當年三十歲의 青年醫師로서 高城地方의 자랑할만한天才이다 일즉二十歲時에 咸興高普를 卒業하고 더배우고저하나 家庭의形便이不許하매 意를決하고 京鄕의有數한病院에서 實習을하면서 獨學으로 學的工夫를 하야 二十六歲에 堂堂히 醫校出身의 追從하지못하는成績으로 醫師試驗에及第하고 곳襄陽邑에가서 開業을하야 至誠一貫한 親切과 天才的技術로서 全襄陽의人氣를 集中하엿스며 未幾에 大浦公醫로任命되야 江原道土木課東草出張所囑託醫를兼하고 全地方의歡迎을밧다가 二年前에新開拓地長箭에와서 個人으로開業하야 一般患者의人氣가 높흔데 小兒科、婦人科에對하야 特히 精通하야도 名聲이 있스며 其他內外科에 在하야도 醫業가 노픈데 氏의前 日關東地인 襄陽과大浦에서까지 患者가遠至하다 氏는 現在長箭湖岬立工事請負인 中村組의囑託醫인데 續出하는負傷者에對하야 큰病院에서할手術도 호자서 이 일즉터바 昭和七年十一月에

實業界의巨星 長箭開拓의功勞者 金斗益氏



氏는當年四十五歲의 壯年實業家로서 長箭開拓의 가장만흔功勞者中의一人이오 일즉協成青年會의 第二代會長으로서 新興青年運動의 後援에 多大한功勞를남긴 一人이오 現在江原道鰯油肥製造業 水産組合高城郡代議員으로서 本地方의 水産業의發展과 長箭公普校의學務委員으로서 同校의發展과 增築等을爲하야 不斷히努力하고잇스며 細民의 育擴이업시 設置되는 長箭道立醫院에 三千圓을投出하는等 여러가지로 地方의公益事業에 貢獻하고잇다 氏는 産業에對한先見을가젓스며 他人의追從을不許하는 周到한計畫과 꾸준한努力으로 今日에는 江原道에잇서서 朝鮮人의實業界를 代表하는 一人이다 (寫眞은金斗益氏)

鄕土啓發의恩人 立志傳中의人 徐廷九氏

氏는當年三十九의 壯年實業家로서 일즉 農事經營에잇서서 耕作方法의 改良과 經營으로써 農村에 典型的活模範을 示하엿스며 農事經營에잇서서 廣大한 基盤을作한一方 水産業의發展에着眼하고 六年前斯界에 進出하야 農事經營에서 全地方의 模範을 示한經濟的手腕은 水産業에잇서서도 水産의都인 本郡에서相當한地位를 占하고잇다 그러나氏의存在는 水陸兩方을 通한實業界에對한 鄕關의 成功보다도鄕土啓發한 貢獻에잇다 氏는二十時代부터 今日까지 鄕土新興里에잇서서 鄕土의啓發을 爲하야 半生을 一貫하여왓다 일즉新興學院을 設立하야 普通學校에入學하지못하는 兒童의 敎育에貢獻하엿고 今日新興簡易學校의 基礎를 作하엿스며 一方夜學會를 設置하야 文盲의 退治에 專力하엿고 十年前부터 振興組合을組織하야 新興里의 啓蒙繁榮에 推進力을 더하야 今日新興里로 하야금 斷然模範村을 建設하엿고 關係當局으로부터 累次榮譽의表彰을바덧다 氏는 現在水産業을爲하야 城北里에住居하면서도 鄕里에對한努力은 조금도間斷이업서서 鄕土의指導的役割을하고 아니하며 그의힘으로만들엇다고 할수잇는 新興簡易學校를爲하야

輿論의中心團體 金剛山繁榮의總本營 金剛山繁榮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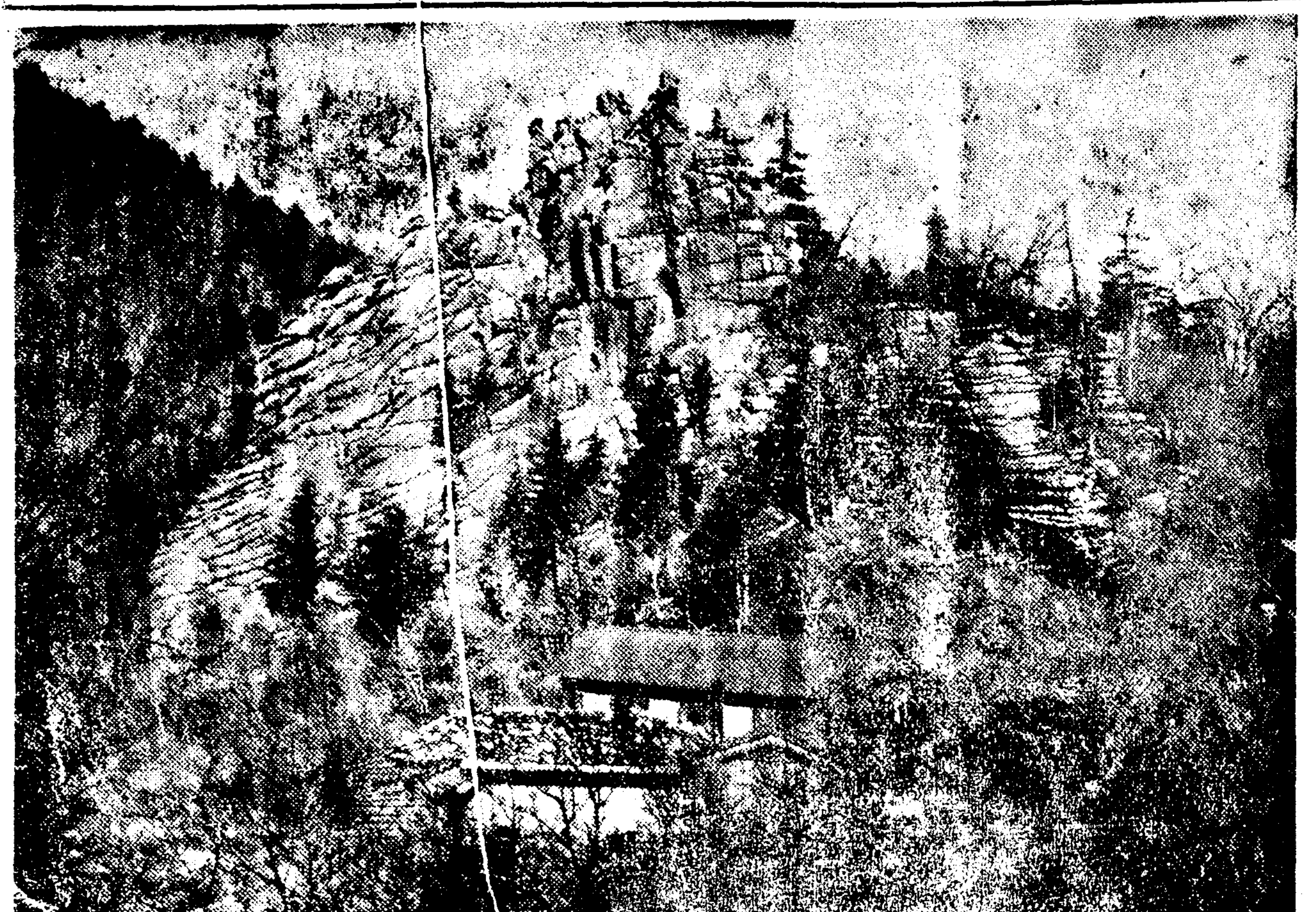
金剛山은 今日에서 朝鮮的金剛이아니오 全世界的金剛이다 이에는勿論 金剛自體의 奇拔靈妙가 全世界人으로하야금 憧憬케하게한바이나 神秘의 金剛을 全世界的으로 宣傳한 功勞에는 金剛山繁榮會를中心한 有志諸氏의 힘이 絶大하다 同會는일즉 金剛山의宣傳과 觀覽客에 對한 諸般便宜를 圖하여오든바 再昨年부터는 陣容을 一新擴張하야 從來分散的이든 寫眞、案內、旅館等各組合을統一하고 새로工藝品製作所를 設置하야 精巧를 다한 純金剛特産의 工藝品을 製作하기에 專力하고잇다 同會는 名稱이 示하는바와 如히 金剛의 繁榮을 爲한 團體이나 元來人物이 濟濟하야 自然히 地方輿論의 中心機關으로서 地方의 利益을 代表하다 同會의 幹部는 會長國本朝一 常務理事朴承權 理事文明鎭 金甲辰 國本一郎 上田一義 文成德 李鍾萬 李炳道 朴承業 監事金榮吉 崔鍊萬諸氏이다

寫眞說明 一

金剛山의 長寶塔인 毘盧峰암에 잇는 毘盧石이요 그아래보이는것은 毘盧峰이다 朝鮮人의 旅館이 金三龍氏의 經營하는 毘盧峰의 金剛의 最高上에 旅館이 잇다는 것만도 普通에는 夢想도 못할일이다 사람으로는 通來할수업다고 생각하는 던 九龍淵에서 毘盧峰의 直通道路를만들고 內外金剛의 連絡을 서 利用으로하게된다 內金剛의 奇勝을 探覽하고 넘어오는客과 外金剛의 雄渾을 探勝하고 넘어가는 客들은 嚴高峰의 덕이며 서 一夜의 安眠을 엇고 雲霧를 마음대로마신다 同館은 百四五十人의 客을 收容할수 잇고 同館에서 嶺衣太子陵은 咫尺이다

金剛山繁榮前衛 外金剛寫眞師同業組合

本組合은 昭和八年春 江原道令에 依하야 寫眞業者들이 同業者間의 弊害의防止와 相互生活權益의 擁護增進을 目標로 組織된 바로서 現在金剛山內의 各寫眞業中 모든業者에 組合에 加入되어잇다이에 잇서서는 寫眞業의 撮影에는 探勝客의 特別한 便宜를 取하기爲하야 萬全의 努力을 다하고잇다 이러하야 往年에는 探勝客中에 或該地方寫眞業者들의 間에 衝突도 잇섯스나 技術의 向上──特히 金剛山에 對한 專門的 技術은 前記의 努力을 一掃하고 探勝客에게 百%의 好感을 주고잇다 此組合은 昨年에 金剛山繁榮會의 組織에 따라 그組織體로 同會의 寫眞部로 變更하야 現在에는 同會의 寫眞部로 變更하고 同會의部署에 屬하나 實相은 同會의 中心的支柱가 되여잇다 即寫眞部의 發展如何를 發하는것이므로서 一般은그의將來에 對한 만흔期待를 가지고잇다



南部高城의支柱 水産界重鎭 張基奭氏

氏는 當年四十一歲의 壯年實業家로서 本郡水産界에 明指하는 重鎭이며 地方의 繁榮과 啓發을爲하야 多大한 貢獻을하고잇서서 南部高城의 支柱를 作하고잇다 氏는 일즉 二十二歲時에 鄕里의 永光學校를 맛치고 고잇다 氏는 일즉 二十二歲時에 넘지못한 家庭을 復舊하나오 면서 오즉 信用과 努力으로써 모든難題를 克服하고 一般의 두터운 信任을 어더서 今日에는 巨津에서 朝鮮人으로 水産業의 第一人者가 되고잇다 氏는 現在 巨津漁業組合仲買人으로서 同組合의 今日을 築成하기까지 多大한 貢獻을 하엿스며 元山、釜山、浦項方面과 取引을하는데 半生을一貫한 信義로 漁期마다 取引이 輻轢한다 氏는巨津築港期成會의 幹部의一人으로서 不遠한將來에 實現될 鄕土巨津港의 築港을爲하야 가장만흔功勞者中의 一人이며 모든方面으로 一般의 信望을 바드며 地方을代表한다 (寫眞은 張基奭氏)

運送界의先驅 廣田廻漕店 廣田五男氏

氏는 三重縣出生으로 大正初年에 夏目廻漕店員으로서 渡來하야 當時아직幼稚한 當地商業界에 만흔便宜를 주엇스며 爾來地方公共事業에 對하야 만흔貢獻이 잇서서 왓다 氏는中年에 夏目廻漕店員을辭하고 獨立的으로 廣田廻漕店을 設給하야 相當한業績을 내고잇는 一方 再昨年에 朝鮮運送巨津代行店을 木田氏와 共同으로經營하고 그責任者가되야 陸海兩面으로 運送界에 雄飛하고잇다 氏는現在 巨津築港期成會의 理事의 一人으로 巨津築港問題에 對하야 多大한힘을 提供하며 巨津鰯油肥製造業者組合長 江原道鰯油肥製造水産組合代議員으로서 斯界에 만흔功

水産界의二大本營 驚異的業績보이는 巨津漁業組合

巨津漁業組合은 昭和五年創立以來漁業의 發達과 漁業者의 福利를爲하야 努力을 繼續하여오는바 歷代幹部諸氏의 不休의努力으로 業績은 顯著하야 創立初年度에는 總決算額이 겨우九千五百五十六圓이던것이 昨十一年度에는 百八十七萬六千八百七十五圓의 驚異的 增加를 示하고再昨十年五月에 巨津漁業地帶에도 보기드믄 總延長十七間五九의私設燈臺를 架設하엿스며 現在大津과 猪津에 出張所를 設置하엿고 漁業의 近代的發達과 組合員인 漁業者以外의 漁民大衆의 利便、生活改善을 爲하야 現理事人 朴鍾驕氏와 尹佐鎬氏를 首班으로한 書記九人은 恐히 不眠的活動을 하고잇는바 特히 各部落마다 災害防止共同의 設置、漁村의 文盲退治事業、巨津의 商業改良施設、漁業收益改善、漁業者의 共同購入、漁民의 漁期中 自作自給을 圖하는 製鹽業의 大量購入年賦配給、漁村婦人會의 組織과 婦人의 屋外勞働獎勵、節米貯金、各漁村마다 一般漁業者의 漁業以外 水産製品을 保管하는 共同倉庫의 設置 各漁村마다 共同井戶와 洗濯所의 設置와 其他 新規事業을 研究하고 잇는데 事務의 擴張에依하야 昭和九年에 總工費一千三百圓을 投하야 瀟洒한現事務所는 넘어狹窄함으로 十四年에 工費二萬圓을 投하야 新築하여 急進하야 黑島附近에다 事務所를新築할豫定이라한다 一般漁業者와 漁民大衆은 同組合을 惟一한 支持하는 同時에 一步를 進하야 漁民自身의 自治機關이 되도록 힘쓰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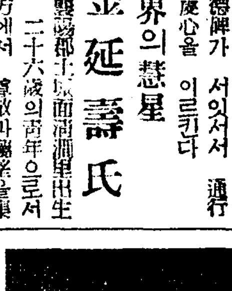
東海岸唯一의 長箭漁業組合

長箭漁業組合은 創立以來水産에 잇서서 天與의 良港에 豊富한 長箭港의 發展을爲하여왓스며 現在全東海岸에서 第一을 屈指하는 漁組로서 爾來組合員인 漁業者의 利益과 漁村의 發展을爲하야 多大한 貢獻을 하고잇스며 今日의 大長箭을 建成한 部長들이 잇서서 朝鮮을 잡고 있스며 今日에잇서서 現在의 水産의 實驗的 一任을 다하여왓다 여기에는 水産界의 王者인 同組合長 黃雲天氏와 斯業에 敏腕을 가진 三池理事外 모든일에 잇서서 協同的精神이 豊富한 長箭人士諸氏의 努力이 根幹이 된것이다

裏陽、高城의先驅二人 牧畜界의先覺者 青年實業家 朴周夏氏

氏는 原籍을 襄陽郡土城面栢村里에두고 今年겨우二十四歲의 青年으로서 벌서襄陽 高城地方에서 多數人의 尊敬과 囑望을 集中하고 잇다 氏는 어려서 嚴親을 여이고 偏母膝下에서 生長하야 蘆正高普를 卒業한後 年老하신 母堂의 偏獨之寶으로 育英의 初志를 未遂하고 歸鄕하야 오즉 鄕土의 開發을 爲하야 公益을爲하야 貢獻하고잇든바 城郡杆城面乾里의 大平原地帶를 利用하야 牧畜事業을 할것을 着眼하고 方今三百餘町步의 貸附願을 提出中인데 主로 朝鮮牛를 飼育하야 將來朝鮮牛의 價値를 世界的으로 發揮케하라고한다 그리하야 方今準備를 進行하고잇는 데 一般은 氏의 經營이 니만치 만흔 囑望과 期待를 가지고잇다 氏는 偏母膝下에서 至孝하야 一般은 時에母堂에게 孝事의 模範이 되는데 氏의完成의 裡面에는 熱誠家로서 地方的 尊敬을 밧는母堂申氏의 家訓이 크다고하며 그 鄕里의 入口에는 母堂申氏의 頌德碑가 서잇서서 通行人의 敬虔心을 이르킨다

水産界의慧星 金延壽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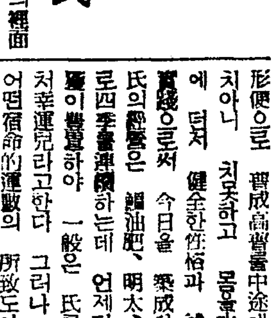


氏는 襄陽郡土城面淸澗里出生 今年겨우 二十六歲의 青年으로서 벌서該地方에서 尊敬과 囑望을 集中하고잇스며 新進實業家로서 水産界에 雄飛하야 鄕里에서 벌서 巾着網 其他 近代的漁業의 施設을 完備하엿스며 다시本郡長箭의 發展性에 着眼하고 現在 鰯油肥工場의 準備에 着手하고잇는데 압흐로 氏의 斯界의 雄飛는 크게 期待된다 氏는 幼時에 嚴親을 여이고 偏母膝下에서 生長하야 家事의 形便으로 普成高普를中途에 退學치아니치못하고 몸을 水産業에 던져 健全한性格과 誠勤한 實踐으로서 今日을 築成하엿다 氏의 經營은 鰯油肥、明太、 鰊魚로 四季를 連續하는데 언제던지 漁運이 豊富하야 一般은 氏를 가르처 幸運兒라고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宿命의 運數의 所致도 아니오 平素 漁夫에게 對한 溫情과 使用條件이 寬厚함으로 氏의 집에서 일하는 漁夫들은 自身의 일처럼 忠實하게하는 所以라고하며 그 鄕里에서 我也津防波堤에 二千圓을 寄給하야 地方의 公益事業에 貢獻이 多大하며 母堂에게 至孝하야 一般의 模範을 作하고잇는바 氏의 今日의 完成을한 裡面에는 母堂朴氏의 薰陶의 힘이 根幹이 다라고한다 (寫眞은 金延壽氏)

運輸産業의霸王 京春鐵道杆城出所

京春鐵道에서는 昨年十月一日에 京江驛前으로부터 事業을 引繼하야 杆城에 貨物自動車出張所를 두고 本地方에서 信任이 두터운 黃潤根氏를 所長으로 擢拔하야 爾來他方의 産業發展에 盡力하는바 同會社의 方針과 黃所長의 信望은 크게 歡迎을 밧고잇다 在杆城地方은 陳富領水害復舊工事의 未完으로 嶺西와의 連絡이 杜絶되엿음으로 當分間活動이 嶺東地方에 局限되여잇는바 陳富嶺이 開通되는 時에는 麟蹄、洪川、春川을 經由하야 京城으로 直通하는 東海岸과 京城을 連結하는 重要幹線에 貨物自動車와 乘合車의 運轉이 잇스리라하며 今後同社의 活動은 地方産業上으로 多大한 期待를 하고잇다 續을 넘기고잇다

京春鐵道出張所長 黃潤根氏



氏는 當年三十一歲의 新進實業家로서 一躍運輸界에 屈指하는 巨星이다 氏는 일즉 杆城金融組合에서 十年을 勤續하는 동안 만흔業績을 남기엇고 地方의으로 稱讚가 놉흐던바 再昨年에 實業界에 投身하야 朝鮮運送杆城代行店을 引受經營하는바 氏의 寬厚誠實한 人格과 地方的으로 氏에 對한 두터운 信任은 그의事業에까지 影響하야 만흔支援을 밧고 一躍運輸事業에 屈指하는 巨星이 되엿스며 昨年에 京春鐵道杆城出張所長으로 擢拔되야 압흐로 斯界에 對한 보다더 큰雄飛와 大成을 期待한다 氏는 一方으로 鄕土의 發展과 地方의 公益事業에 對하야 多大한 貢獻을 하고잇서서 一般은 將來杆城地方의 支柱的 役割을 期待한다 (寫眞은 黃潤根氏)

他地에서活動하는先輩諸氏

立志傳中의人物 通川郡守 尹熙再氏

氏는當年四十七歲 本郡梧垈面出生인 本地方의先輩의一人으로 現在 江原道通川郡守로 在職中이다 氏는 누가對하든지 一見하여 好紳士의 風이보다 郡의 行政官을 對한다기보다 親切한 先生이나 友人을對하는 感을 주는 溫厚長者로서 今日 江原道에서도 有名한 行政官의 一人이다 氏는 일즉 高普에 다니던時 아 杆城郡廳에 雇員으로 採用되야 勤勉一貫으로 文官試驗을 突破하고 誠勤한 實踐中에서 高等官에 採用되엿다 氏는 恒常故鄕을 爲하야 獎學的 後援도 뻑지안코 獨學하는 立志傳中의 人이니 일즉 學校이지나서 杆城에 와서 상투를 짜고 夜學에서 地、歷、讀、算等을 배웟서고 其他 機會 잇스면 서도 故鄕을爲하야 努力을 다하고잇다

法曹界의先輩 辯護士 韓奎鏞氏

氏는 當年四十七歲로 本郡出身으로 本地方이 나은 朝鮮法曹界의 先輩의 一人이다 氏는 일즉 二十內外에 高等文官試驗에 合格하야 故鄕의 新明學校에서 天才의 名聲을 날리엇고 當時에

法曹界의重鎭 大邱辯護士會長 咸升鎬氏

氏는 當年四十四歲 本郡杆城面新安里의 出生으로 本地方이 나은 朝鮮法曹界의 重鎭이다 關東의 大德望家 故咸有彦翁의 三男으로서 어려서부터 父翁의 薰陶中에서 成長하야 衆人의 囑望을 集하야 여왓섯다 일직 大正五年에 京城法專의 前身專修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井邑과 大邱에서 判檢事를 歷任한後 大正十五年에 大邱에서 辯護士를 開業하야 爾來十有餘年 法曹界에 名聲을 날리고 今年四月에는 大邱辯護士會長에 當選되엿다 氏는 卒業에 孝養이 至極하야 二十餘年 他鄕에 잇는 동안 每年一次式은 꼭 歸省하엿스며 歸省하는 機會마다 鄕土의 後輩들에게 對하야 恒常 指針을 提示하고 鄕土의 啓發을 爲하야 不斷히 努力을 하고잇다

氏는 平素에 豁達圓滑하야 交遊에 上下淸濁이 업스며 언제던지 光風霽月의 表情을 보인다 그리하야 氏가 故鄕을 와다가는 機會마다 鄕黨의 父老나 後輩靑年들까지 언제던지 特別의 心情을 不禁케하고 爾來二十餘年 故鄕을 떠나잇스면서도 鄕黨하는 機會마다 後輩의 指導에 만흔 心慮를 하고잇다 京城法專의 前身專修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大正十年부터 大邱에서 辯護士를 開業하고 爾來十七八年間 朝鮮法曹界에 異彩를 放하고잇스며 昭和七年에는 大邱辯護士會長에 當選되엿다 代의 進展에 着眼하야 殆히 善學으로서 大正二年에 京城法專의 前身專修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한後

巨津港 水産業 林元相

外金剛 東海內 自動車運輸株式會社 外金剛共同營業所

巨津鰯油肥組合

襄陽郡竹旺面文岩津里 文岩津漁業組合

襄陽郡土城面梧岩里 韓致鷹

外金剛溫井里 朝鮮料理 甲種 逢春館 主 柳春逢

外金剛主要旅館

東洋旅館 主 崔鍊

京城旅館 主 明文鎭

金剛旅館 主 尹三悅

溫井旅館 主 李鍾海

九龍閣 主 裵再學

外金剛閣 主 金東振

萬龍閣 主 佐久間淸作

嶺陽館 主 沼安太郎

學藝

李朝畫家誌
金禔과 三絶 (五) 湖岩

李上佐와 申夫人 다음에 金禔가잇스니 그는 當時를 代表한巨匠이다.
李芝峰(睟光)이 일즉當時 著名의人物을 評하야갈우되 簡易의文과 石峰의筆과 詳眠의畫는 間世의才라고하엿다. 詳眠은 金禔를 이름이니 그는延安金氏로 字는季綏、號는 養松軒인데 或은詳眠를 號라이라고부른다.
金禔는 成宗朝名臣金新의 孫이오 그兄金巖는 修撰이엿스니 그는名門에 태여나섯다. 그러나 金禔는 科擧를 보지아니하고 圖畫를別擇가되어 平生에 畫畫로써 自娛한것을 보면 그의人品의 高潔하엿슴을 알것이다.
그의畫品은 絶妙하야 山水人物로부터 牛馬翎毛草虫에 이르기까지 모다잘하엿는데 世間에서 흑이 그를 簡易石峰과 並稱하야 文界의三絶로 꼽는것은 理由가 업는바 아니다.
金禔의以前에 一能으로超出하기는 姜希顏의 申濟(蓮川子)과 翎毛의 李巖(杜城令)이잇섯고 그後에 一技로有名하기는 梅의魚夢龍(雪谷)과 竹의李霆(灘隱)이잇스며 그他名家에 尹毅立 李成吉 李慶胤等이 업는바아니나 그러나 斯界의月桂冠은 神畫各體에 俱稱한金禔에게 讓與할수밧게업다.
可惜하는것은 그名畵가 만흘히散失流亡하야 오늘날畫帖을 어더보기困難하게 되엿어다. 李王家博物館에 所藏한 夏山寒雨圖는 그의山水畫로서 비록小幅이나마 高古雅淡한 風格을 彷彿하엿볼수잇다.
그의人物畵로서는 일즉 鶴命을맛도러 鞠醉龍集卷首에 그린 歸去來圖가 잇섯다하나 이는다만 文獻우에 보일뿐이오 後世에 傳하지 아니하므로 알수업다. 그리고 牛馬圖로서는 일즉李退溪先生이 金禔牛帖에 挑林春草長 飽食臥閑時이라고 題를 지엇거니와 翎毛草虫에 어른하는 그畫幅이 文字에 나타난것조차 보이지 안는다.
畫帖에 依하면 金禔畫가잇는데 萬曆甲申春 養松居士爲安士確作이라고 落款까지한것이 잇다 하엿스나 그의內容이 어떠한것을 說明하지아니 햇스므로 推察할길이다.
宣仁間에 有名한詩人白光勳이 일즉金禔의畫에 題하야 갈우되 泊舟臨古渡。片雨過前村。浩蕩人歸岸。靑山半掩門。이라하엿스니 이五言絶句를 通하야 살피건대 그것이 역시山水畫의 一種인 江村風景圖가든것이 아니엿든가한다.
그러나 金禔의繪畫가 흔히民間에 아지못하게 珍藏되어잇는지도 모르겟다.

文化의構造를論述함
文化의求心과遠心의二重性
(二) 徐寅植

個人의性格에 各各 獨特한型이 잇는거와가티 文化의性格에도 各各 獨特한型이 잇는것이다. 우리는 이意味에잇서서 古代文化와中世文化를나누아말하며 英國文化와獨逸文化를 區別한다. 그러나 엇더한文化를勿論하고 그가

人間

對自然의物質代謝體制라는側面에잇서서는 모다 同一한性質을가진것이다. 다시말하면 모든文化는 그自然的構造에잇서서는 모다 同一한것이다. 그것은 個個의人間이 그性格에잇서서는 各各달르면서도 物質代謝體制―生理的構造에잇서서는 모다 同一한것과 다름것이업다. 人間이 自己의生理體制를維持하기爲하여서는 生理的法則에適應하지안흘수업는거와가티 文化는 自己의 物質代謝體制를維持하기爲하여서는 自然의 一般法則에 適應하지안으면안된다. 生理的法則에違背하는 個體가 個體로서 存續할수업는거와가티 自然의 一般法則에 違背하는 文化는 文化로서 存續할수 업는것이다.
그런데 自然의 一般法則은時空을 超越하야 어느때 어느곳에서던 늘 同一한것이다. 그럼으로 古代文化와 中世文化 英國文化와 獨逸文化는 그性格에잇서서는 모다 異質的이나

自然

的構造에 잇서서는 모다 同質的이 되지안흘수업다.
그리고 文化는 이와가티 自然的構造에 잇서서 모다 同一性을 가지기때문에 모든文化는 發展하면 할사록 差別에서 普遍으로 分立에서 統一로 나가는것이다. 東洋文化와 西洋文化 英國文化와 獨逸文化가 各各그 性格型을 달리함에도 不拘하고 한낫의 普遍文化 世界文化로統一되여 나가는것은 모든文化가 그自然的構造에잇서서 모다 同一하기때문이다. 만일 모든文化가 自然으로서의 同一性을 가지지안엇다면 異質的인 諸文化가 한낫의 同質的인 世界文化로 統一되여나가는 現象을 우리는 說明할수 업는것이다. 이意味에잇서서 文化一元觀도 一面의 眞理를가진것이다.
그러나 文化는 人間對自然의 物質代謝의體制인同時에 또한人間對人間의 物質分配의 體制임으로 그는 時空에 따라 各各 그構造形態를 달리하는

社會

形態로 具現한다. 그런데 人類史上에 繼起하는 個個의社會 形態는 各各 歷史의特殊法則으로 規制되여 잇는것이다. 古代社會는 中世社會와판特殊法則이 支配하고 中世社會는 近代社會와판特殊法則이 支配하고 잇다. 그럼으로 人間이 自己의 獨特한性格―個性을 維持하기爲하여서는 그性格型에順應하여야 하는거와가티 文化는 自己의 物質分配體制를 維持하기爲하여서는 그가 對應하는 社會의 特殊한歷史法則에 順應하여야한다. 그럼으로 個個의 人間이 그生理的構造에 잇서서는 모다 同一하나 個性에잇서서는 모다다른거와가티 모든文化도 自然的構造에 잇서서는 모다同一하나 그社會的構造―性格에 잇서서는 모다 달르지안흘수업다.
그리고 모든文化가 이와가티 社會的構造에잇서서는 모다異質的인까닭에 文化는 發展하면할사록 普遍에서差別로 統一에서 分立으로돌어오는것이다. 한낫의 國際文化로 成立하엿든 希臘羅馬의

古代

文化가 地域的身分的文化로轉化하며 한낫의 民族文化로統一되엿든市民文化가 階級文化로 分化한것은 文化가 그社會的構造에잇서서 異質性을가지기때문이다. 文化가 만일 그社會的構造에잇서서 異質性을가지지안엇다면 우리는 한낫의統一된 同質的인文化가 異質的인 諸文化로 分化하는現象을 說明할수업는것이다. 이意味에잇서서 이른바文化多元觀이라하는것도 一面의眞理를가진것이다.
이와가티 文化는 그自然的構造에잇서서는 同一性을 가지고 그社會的構造에잇서서는 異質性을가지기때문에 文化는 그自然的構造에잇서서는 普遍으로 分立에서統一로志向하는것이며 그社會的構造에잇서서는 差別로 統一에서 分立으로 志向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文化는 自然으로서는 遠心的傾向을가지는것이며 歷史로서는 求心的傾向을가지는것이다.
文化란 엇더한文化를勿論하고 이와가티 對立된두낫의契機―自然으로서의 同一性과 歷史로서의 異質性을

內包

하고잇는것으로 自然性(自然的構造에對應하는)은 말하자면 文化의肯定的契機요 歷史性(社會的構造에對應하는)은 말하자면 文化의否定的契機일것이다. 文化는 이와가튼두낫의契機를內包하엿기때문에 發展하는것이다. 文明은 文化로서具化하기爲하여서는 自然性을否定하지안흘수업스며 文化는 文明으로서『살기』爲하여서는 그否定―歷史性을 다시 否定하지안흘수 업다. 이리하야 한낫의統一된文化가 形成되나 그는 다시 歷史性을媒介로하고 文明으로서의 自然性을 否定하지안흘수업슴으로 文化는 文化에서文化로 끈임업시 展開하여나가는것이다.
그리고 文化의展開次元이란 一方에잇서서는 文化의分化次元을 말하는것임으로 文化는 發展하면할사록 內容이 多樣化하여가는것이며 他方에 잇서서는 文化의展開次元이란 文化의 統一次元을 말하는것임으로 文化는 發展하면할사록 內容이 一般化하여 가는것이다.

小品…◇ 窮巷點描 (二)
朴魯甲

마차꾼의 사죄도 듯기 실코 동리 사람들의 입문도 듯기실코 나중에는 천금가티 역이든 내집내가가 까지 실혀질는지 그 큰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안되 저렇게 가가를 집어동댓고 이 마을을 떠나버리엇다는 것이다.
아직 까ㅣ로 린 이 가가를 지날적마다 이 사단을 알만한 다정한 사람들은 허 그것 가열은 일이란 탐식을 며다디시 터저 주는 모양이다.
이것으로 보면 세상은 그처럼 악독한 사람만 사는것도아닌 모양이다. 요따위 처지에 요따위 동정만은 아직도 그들은 대개 가지고 잇는 모양이다.
이 가가를 지나 돌어 갈스록 가가가 자주자주 눈에 뛰인다.
어떤 것은 갑우더이 빔무더이 감자무더어 모두 캐면 어삼원어치 될것도 잇고 못될것도 잇다.
이 숫간에 제법 집보다 큰 간판을 가지고 넓은 문을 가진것은 막걸리집이엇다. 안주는 업스나 술잔만은 패만히 벌려노핫다.
이 과일 가가나 술집은 물론 나무가가와 달라 길을 상대로 한、러바갓손들을 보고하는 장사일것이다.
러바갓 손이란 대개 마차를 끄는 이들 일러인데、그들로 아모 꿀꼭 꿀꼭 술맛 조코 [illegible] 다 가지고 이니、쓸쓸한 어마을 구래여 맛을 부릴 필요가 업을 것이다.
자본이 부치니 안주를 잘해노흘수 업고、가저온 술이 잘 나가지 안코 케케 묵게 되니 맛이 변할것은 정한 이치、술맛이 언잔으니 술군이 실혀 할것은 물론、한집 두집 이 마을의 술집이 문을 닷게 된것도 괴치 안흔 일이다.
술집이야 흥하건 망하건 어마을 안에서 마음 것을 뜨더먹고 제일 잘지나는 것은 무당이다.
영험이 잇고 업는 거야 뉘 알고 마는、의원 못잔케 무당을 조하하는 서울 여인네의풍속을 나워 바든 이마을의 여인네 들도 무당을 뒤서덧 가젓다。서울 처럼 무당 흔한 곳어 어데 또잇슬고ー아이들이 알는데 무당한테 안가는 주부가 잇다면 서울의 안룻숨은이 주부를 인색한 주부로 숙덕공론을 한다。부모가 알른데 무당한테 안가는 며누리가 잇다면 서울의 안룻숨은 이며누리를 불효 며누리로 도장을 처버리는 셈이다。이따위 이웃이 이웃을 연달아 사는 서울의풍내 동내는 무당의 대대를 떠노코 먹여살려 온것이다。
문안의 이풍숨이 쓰러기에무더 나왓든지 동풍에 무더 나왓든지 이 마을의 여인네들도 자기네가 가지고잇는 무당 뒤세넘좋은 의례 먹여살려야 하는것처럼 되엿다.
쉬둘 엄마 돌쇠 엄마의 청을 바든 마을의 무당은 펀퍼집한 보군이를 여페끼고 마울 박그로 나오다.
그가 마울로 돌아올제는 보군이에 갈득 흥성을 해이고해 죽거리는 것이다。잘발 베쌀산자 콩 팟 술 이것들은 보군이 속의 내여이다.
문안서야 굿한번을 하려면저어도 명쌀합동은 보통이겟지만 이마을 무당이 보군이 속에 팔어가는 명쌀은 만하야회인하되 그러한호면 의례 목관한되다。작은 풍업에서 먹는법레는 작고 큰나무에서 먹는법레는 큰것이나마찬가지다。

詩情畫意 (廿七)
……尹善道 詩
……李麟祥 畫

더우면 꼿픠고 치우면 입지거늘
솔아 너는어이 눈서리를 모르는다
九泉에 불휘고든줄 글로하여 아노라

僞裝의科學評論
◇…其實리알리슴에對한侮瀆
(二) 蔡萬植

李箕永氏는 그의 忠實한 崇拜者 金龍濟氏의 强調이기에이리하는배니 再三흘주어넘을 寬恕하라.
舊 카프時節에 作品的活動을 만히햇고 그리고『故鄕』그것이 잇대서 李箕永氏를 모서안치고는 敢히고개를들어 正視하지못하는 金龍濟氏만 아니고서야 李氏의 近日諸作에 對해서 多少 不滿을 품지안흘者 업스리라.
藝術的缺陷을 政治的暗示로다가 補充할것가트면 설사 그『政治的』인것의 內容이 正當한것이라고 하더래도 文學은 그런짓을 拒否하거든 하물며 이미 止揚된바 農民의 自然發生的인 그무엇하나를 千篇一律로 十年後의 오늘에도 繁殖하시 울거내는『麥秋』의 二重選擧를 보라.
況且『돈』이며『背囊』이며『追悼會』며『人情』이며 그리한作品들을보라. 實로 李箕永氏의前進을 疑心케한다.
上掲의 諸作은 모다 小市民의 生活에서 取材한것들이다. 거기 對해서는 勿論 아무도 異議할수없다. 問題는 作者의 世界觀이다.
萬一 李箕永氏가 정말로 李箕永氏답게 할것가트면 어떠한 形態로써든지 그런 作品을 通해서 作者의 進步的世界觀이 반듯이 나타나보여서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업섯다. 업고서 그代身作者인 李箕永氏의『小市民的이데아』에로 投降이 잇슬따름이다.
『돈』에잇서서 貧困問題『背囊』에잇서서 現制度下의 所有問題와 良心問題『追悼會』에잇서서 沒落한 인테리問題『人情』에잇서서 人情問題等等 그 어느것에고 우리는 作者의 進步的인 世界觀이라고는 볼수가업고 단지小市民的이데아의 肯定과 그것의安協이 잇슬따름이다.
그리하야 李箕永氏는 李箕永氏면서 그러나 世界觀의 過誤 乃至 頹落으로해서 李箕永氏아닌 딴 作家가 되고말엇다.
그러니 前日에 素朴 生硬하나마 進步的世界觀 하나로 겨우 命脈을 지탱해내려온든 李箕永氏언들 그것마저 뽑아바린 오늘날에 이르러 그의 서투른고 香氣업는 文章技術에다가만이라도 昔日의 盲目評價를 그대로 던저야할 義務가 우리에게 어데잇슬것인고?
自稱日 科學的評論家라고하는 단 한사람이 이 물음에 擧手를한다. 卽 金龍濟氏다. 그의 噴飯할 다음의 結論을보라.
曰 唯物論的方法이요 曰 科學的評論이요 曰 進步的世界觀이요 하면서 天地라도 開闢한듯이
歪曲된 朝鮮現實의 豪華版인『肯定的全面』을 떠받고 나서든 그 氣勢는 寒心하게도 李箕永氏評의 그리한作品에다가 자!『健康한 文學』이요 자!『레알리슴의勝利』요하는 레헬을부티는것으로써 乾尾를 지엇든 것이다. 巨木을 넘어티리고서 이쏘시개 한개감을 어더가지고나서는者와 比較가 어떠하고?
차라리 그처럼 作品들에서 實例를 들지말고서 그대루 抽象論으로나 終始햇드라면『꼬리』는 재괴지 아니헷을테고 그리고 文學의 功利性이며 上層構造가 下層構造에 逆作用을한다는 原理의 盲目的使徒하야 公式主義는 할망정 그 社會的情熱이나마 可賞타 햇을것이다.
金龍濟氏여! 氏가 所謂『레알리즘의勝利』라는 一文中에 보인 李箕永氏의『돈』에 對한 辯明은 어쩌면 그대지도 옹색하뇨? 또 남을 전러지도 안흔『故鄕』을 치켜들고 나섯든 무슨 魔法이뇨? 내가『故鄕』을 나부다 햇드뇨?『레알리즘의勝利』라는 그一文은 果然 轉來있는 論文이라고 自處하드뇨? 眞實로 學藝中心의 純藝術誌이라고 생각지안는뇨?
그러고『故鄕』[illegible] 意味한 中傷이며 내가 [illegible] 런말을 햇든가 [illegible] 인 망녕이뇨?
敢히 活字로써 謝罪할 勇氣업을량이면 스사로 自責이라도 해서 自身의 良心에나마 贖罪를 할지어다.
◇
아무튼 以上과가티 李箕永氏等 一聯의作家는『小市民的이데아』에로 投降을하고 唯物論的方法이란 虎威를 빌어科學的評論家로 僞裝한 金龍濟氏는 그러한 作品들을 레알리즘의勝利 [illegible]
그러고 이 亡하는 文學으로부터 발을빼치려고 애쓴者를, 金龍濟氏는 異端이라고 烙印찍어 公衆의압헤 誣陷을하다.
曰『頹廢文學』인『정』의 作者 蔡萬植이가 그 被告다.
『길레테오』의 敵手는 그대도 모기(蚊)는 아니엿섯다 나는 붓을 들기는하되, 見蚊拔劍의 어리석음이 한편으로는 엄지도안타.
―(게속)―

科學

戰時의必需品인 火藥과및爆藥 (中)
一記者

無烟火藥의 主要成分은 前述한바와 가티 綿火藥으로서 그것은 綿의 세룰로스物質을 硝酸으로 硝化한 것인데 큰 火砲用의 것에는 綿火藥外에『니트로그리세링』이라고 하는 그리세링의 硝酸에스텔을 二〇乃至三〇%을 混化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아세톤으로 膠化해서 可塑性으로 한것도 쓰니 前者를 니트로셀루로스式 無烟火藥이라고 稱하고 後者를 니트로그리세링式 無烟火藥이라고 稱하다. 砲彈에서 오로지 使用하는 爆藥은 [illegible]
小銃彈은 니트로셀루로스式 無烟火藥이요 砲彈의 [illegible] 藥이다. 이와가티 無烟火藥에는 綿과 그리세링가튼 有機物의 硝酸에스텔을 主成物로하고 잇기때문으로 그것을 燃燒하더라도 거의 完全히 瓦斯化해서 烟氣라는 조금도 나거지안히되는 日 硝石、木炭、硫黃等을 混合해서 만드는 黑色火藥과 한방울 노홀때마다 硝烟이 銃口의 아페를 가리어 目標가 보이지 안는 일은 絶對로 업다. 딸아서 一分間 數百發을 射擊할수있는 精巧한 機關銃이나 速射砲가튼 것이 出現하게 되는 것이다.
×
綿火藥의 原料는 삼부라지나 솜으로서 戰時에는 그 需要가 莫大한것이나 一方 솜은 被服其他로 日常生活에도重要한 物品이여서 棉花가 만히生産되지 안는 나라에서는 戰時의 그 補給이 重大한 問題로되지 아니치 못한다. 지난번 歐洲大戰때 獨逸서는 海上封鎖로 因하야 綿의 輸入이 杜絶되여 잇든지라 木綿 卽 펄프나 헌두데이로 조히를 맨드러서그것으로 棉花를 代用해서 綿火藥을 製造하여 冒니로로 그리세링의 原料인 그리세링은油脂內에 含有되여잇는것으로 油脂의 分解에따라 脂肪酸과 그리세링이 成生하는것이다 우리는 일은 비누製造의 副産物로서 그리세링을 生産하고잇다 以前에는無油라든지 大豆油라든지로는 비누를만들지 못했고 도 그러기 때문에서 分離해내면 그리세링에는 不純物이 만하서 니트로그리세링의 原料로 使用치못했엇스나 近年硬化油工業의 發達과 함께 魚油와 大豆油도 거기다가 水素를添加시키어 가지고 固體의 脂肪으로 맨드는 同時에 그로부터 비누나 純良한 그리세링도 成生하게되는 것이다.
硝酸은 現今 거의 모든 爆藥의 主要原料로서 前述의 피크린酸、TNT綿火藥、니트로그리세링等 모다 硝酸化合物인즉 大略 그러한爆藥과 同量의 硝酸이 必要하니 딸아서 戰時에잇서 硝酸의 需要量은 모든 爆藥의 需要量과 同數量을 要하는만큼 如何히 그波量이 莫大할까를 想像키 어렵지안타. 以前에 이硝酸은 南米智利에서나는 硝石으로 製造하야 어느나라나 모다 智利로부터 輸入하든것인데 歐洲戰爭때 獨逸서至中堅業를 固定시키어 암모니아를 合成해가지고 그酸化에 依하야 硝酸을 製造한까닭에 海上封鎖를 當한속에서도 能히自作自給할수 잇섯다는것은 有名한이야기다.

趣味娛樂
映畵는속임수?
메리、픽포ー드의一言
허리웃드에議論提起

허리웃드 銀幕界의 先驅인 메리•픽포ー가 最近 인더아나포리스의 젊은 새악씨들에게 映畵라는것은 맨『속임수』이니까 잘못 발붙들려노치말라고 忠告한때문에 허리웃드에서는『속임수』라는말이 大流行을하며 一部에서는 당장에 이問題를 잡고서 여러가지 議論이 沸騰하게되엿다
그래서 우선 性格俳優로 有名한 위ー나、박스타ー는 어데까지든지 自己流로 解釋을해서
『픽포ー드의말은 萬若『속임수』에 걸림만한 才能이잇스면 허리웃드에 머물러 잇슬것이다 그러나 戰火와가튼 試鍊이 사람을 말삭하는 고 그才能을 發揮할 그때에 가지는것이 必要하다는 말일것이다』
하는 意見을 發表하엿는데 또 怪奇映畵『고링케슈타인』의主役을한 포리스•카ー로프는 만약 映畵가 속임수라고한다면 그것은 俳優가 그러한것이 아니라 資本家側이 그러한 때문이다
하는 자못 尖銳激越한 一面을 나라내엿는데 明眸 베티데바스는 만약『속임수』라도 富와 名聲을 齎來하는것이라면 아모리『속임수』라고 편계여서요 하는 正直한 意見을 나타내엿는데 果然 이 議論은 엇더케 結着될것인가?

골드윈作品 眞珠와未亡人
市內明治座上映

죤•크로포ー드 윌리암•포웰 로버ー트•몽고메리 의 主演하는『眞珠와未亡人』은 市內 明治座에서 上映한다고한다.

라디오

十二月一日(水曜)

◇午後六時兒童と先生の時間 一、[illegible](讀本卷四、十課) 二、[illegible](讀本卷八、十五課) 仁峴普通學校 二年生 四年生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防火데이에就하야』 京畿道警察部長 高安彦
◇同七時四〇分 講演『朝鮮常線作에對하야』 朴萬奎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皇軍…』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五分 一、楚漢歌 二、[illegible] 三、山念佛 四、興打鈴 五、朴淵瀑布 六、興打鈴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四〇分 滿洲로부러(哈爾賓) 滿洲新歌謠 一、秋江憶別 二、月明之夜 三、夜來香 四、好朋友來了 六、昭君怨 七、感友邦 唱 李香蘭 伴奏 白露管絃社 編曲及指揮 神原泰男
◇同九時(東)管絃樂(獨唱合唱附) 日比谷公會堂으로부러中繼 交響曲 第二番D短調 베ー토ー벤作曲 終曲(矢田部勁吉譯詞) 獨唱소프라노 武岡鶴代 同알토 西內靜子 同테너ー 木川 靖 同베스 矢田部勁吉 合唱 東京高等音樂學院生徒及同調會員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山田耕作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物語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一〇(東)聯曲 ◇同八時四〇分 滿洲音樂

二日(木曜)

◇同九時(東)管絃樂
◇午前一〇時 觀兵式實況(國語)―步兵第七十七聯隊營庭으로부러中繼―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散調 二、城主푸리 三、새타령 玄琴 申快童 伽倻琴 丁南希 大笒 朴鍾基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保健三題『蓮菜과保健』 朴容海
◇同六時 唱歌劇『孝女沈淸』全二景 旺新童友會 指導伴奏 金泰晳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防空法施行에對하야』 總督府資源課長 丹下郁太郎
◇同七時四〇分 講演『時局과半島同胞의自覺』(國語) 沈天風 中樞院參議 成元慶
◇同八時一〇分 歌謠曲 一、遲軍歌 二、鷗鶯歌 三、曠野의달밤 四、新傷哀曲 五、放浪哀曲 劉鍾燮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江上에든 二、唱劇調 赤壁歌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古談『言中有言』 申弄玉 競手 池龍九 金璟雲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蓄音 ◇同六時(東)日本英傑 ◇同六時二五分(東)講演(城)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東)戰線風景 ◇同八時三五分(東)講談 ◇同九時(大)小說

三日(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魚膾類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風雲兒아도바스 崔禮得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保健三題 食物과保健 金東益
◇同六時 童謠 齊唱과獨唱 一、齊唱 하ー니카 二、獨唱 꽃동지(李鮮榮) 三、齊唱 병정라팔 四、同 눈 五、倂唱 울빠생각(李相淑、朴乙順) 六、齊唱 달마중 七、獨唱 참새의발자국(金順得) 八、齊唱 나무닙 九、獨唱 어머니사랑(朴乙順) 十、齊唱 작은별 十一、同 귀뚜람이 귀뚜람이•아동會 伴奏 柳慶孫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言語로본京城習慣』 延專敎授 鄭寅燮
◇同七時四〇分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農夫歌 林鍾成 姜南薑 丁南希 申快童 韓成玉 成秋月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皇軍戰勝歌』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五分 樂調『고무신』 全景 配役 靑踏會
◇同九時 時事解說 每申 金麟伊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城)레코ー드 ◇同六時(東)日本英傑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라디오드라마 ◇同八時(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大)小說 ◇同九時(東)時事解說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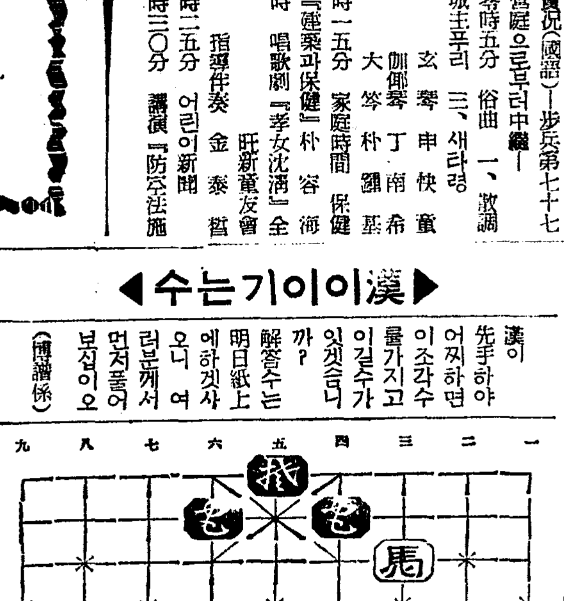
◇短篇小說 賞=一等一篇 五十圓 二等一篇 三十圓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떼여쓸것
◇戲曲 賞=若干篇 每篇 三十圓 三幕以內、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詩 賞=若干篇 每篇 五圓 長短、題目隨意
◇時調 賞=若干篇 每篇 五圓 題目隨意
◇童話 賞=若干篇 每篇 十圓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純朝鮮文으로 떼여쓸것
◇童謠 賞=若干篇 每篇 五圓 長短、題目隨意
◇實話 賞=若干篇 每篇 五圓 題目은 호랑이에限한것으로서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兒童作品 賞=入選品에는薄謝進呈 自由畫、習字、作文

【註】應募作品은 不拘하고 一切返還치안함. 보내실때는 朝鮮日報新春懸賞文藝係라고 明記할것

朝鮮日報學藝部

◇博譜大集 47 【問題】
◀漢이이기는수▶

漢이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이오 (博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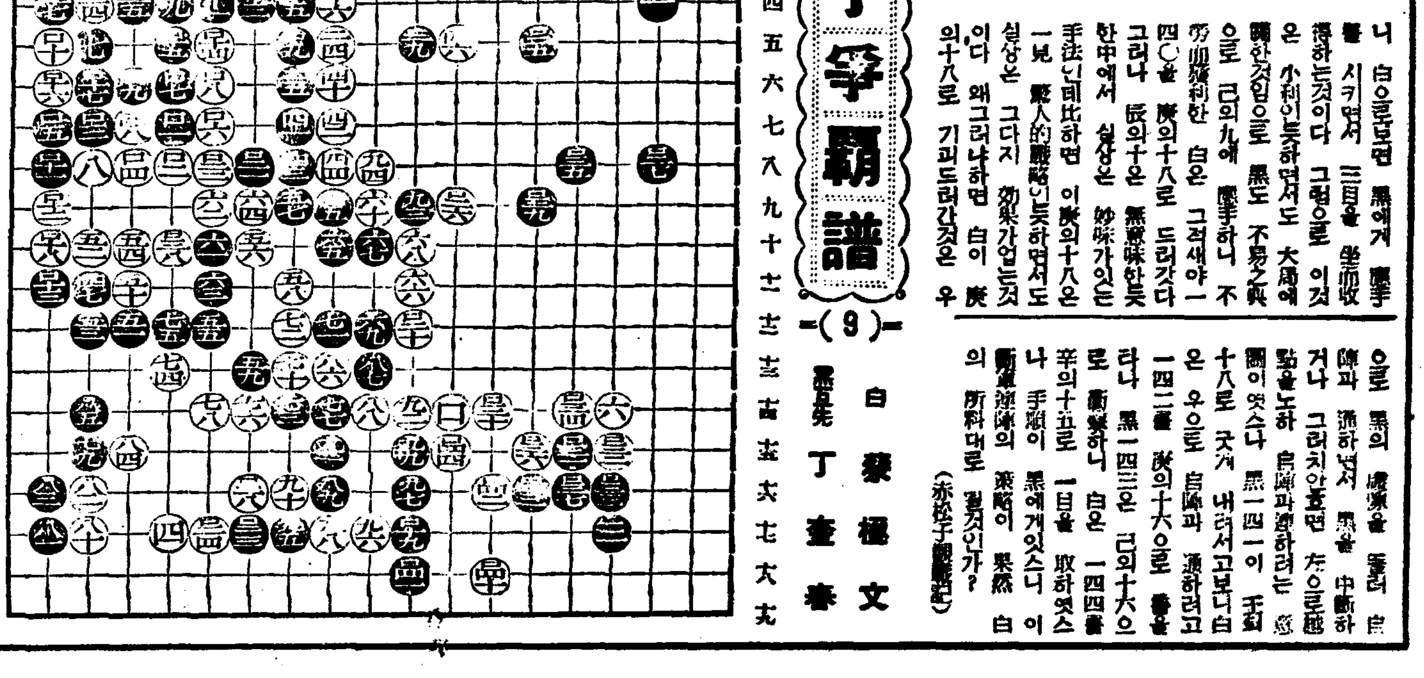
國手爭覇譜 (9)
白 黎樞文
黑先 丁奎春

本社獨占

無意味의妙味는 小利도大局所關
그러나白庚의十八은 다만厭人術에그칠뿐

黑一二九 庚의十五는 白이一一八이 庚의十六으로 黑二目을 奪取한때문에 西北邊의 黑陣과 北角의 黑陣이 斷絶되여 그者中一步의 危險이잇슴으로 白의侵入을 막기위한것이나 白一三〇은 庚의十四로 連하니 그래도 黑은自陣의 連絡이完全하지못한지라 다시 一三一을 戊의十五로 벌니니 白은 一三二를 丁의十五로 찌흐니 一三三을 丁의十六으로막으니 白一三四는 戊의十四도 바더서外勢가 자못堅固하게되엿다. 그러나 黑으로서는 아직도白이 侵入할 餘地가 업지아니한데거기壞버리고 一三五를 戊의八로 벌니는것은 利益打算에大小가 달르다는것을 잡작한모양이나 白으로 말하면 구타여 거기가서 應手를하는것보담은 일이야되든 안되든간에 우선 黑으로하여금 應手를하게하는것이 得策이겟슴으로먼저 一三六을 己의十五로 드러가니 黑 一三七은 허는수업시 戊의十六으로 이엇는데여기서 白이 다시追窮하지안코 一三八을 멀니辰의十으로 가서 黑一三九로하여금 己의九에 應手하도록 하는것은 一見泛然한듯도하고 前後의 錯道잇는듯이 보이나 실상은 그런것이아니고 이辰의十에 妙味가잇는것이니 이大局을 말하면 비록 節이라고 하드라도 節인以上 꼿까 手順을해야할것이니 辰의 十한점으로말미암아 黑은 두번이나 白을敗戶하는데 三目을 提供하게되니 白으로보면 黑에게 應手를 시키면서 三目을 坐而收得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小利인듯하면서도 大局에關한것임으로 黑도 不易之與으로 己의九에 應手하니 不易而爆利한 白은 그러한야一四〇을 庚의十八로 드러갓다 그러나 辰의十은 無意味한듯한中에서 실상은 妙味가잇는 手法인데比하면 이庚의十八은 一見 厭人的戰略인듯하면서도 실상은 그다지 効果가업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白이 庚의十八로 기괴드러간것은 우리가 黑의 虛隙을 뚫러 白陣과 涌하면서 黑을 中斷하거나 그러치안흐면 左으로躍點을노하 白陣과涌하려는 意圖이엇스나 黑一四一이 辛의十八로 굿게 내려서고보니 白은 우으로 白陣과 涌하려고 一四二를 庚의十六으로 돌을러나 黑一四三은 己의十六으로 衝擊하니 白은 一四四를 辛의十五로 一目을 取하엿스나 手順이 黑에게잇스니 이衝擊進陳의 策略이 果然 白의 所料대로 될것인가? (赤松子觀戰記)

●一二九	庚의十五
○一三〇	庚의十四
●一三一	戊의十五
○一三二	丁의十五
●一三三	丁의十六
○一三四	戊의十四
●一三五	戊의八
○一三六	己의十五
●一三七	戊의十六
○一三八	辰의十
●一三九	己의九
○一四〇	庚의十八
●一四一	壬의十八
○一四二	庚의十六
●一四三	己의十六
○一四四	辛의十五



中部版

金泰治氏講演

【仁川】강화도이천면에서는 일반국민의 시국인식에 대한것을 鞏固히하며 총후의 적성을 다하도록 하기우하야 금번에 金泰治씨를 청하야 지난이십칠일 오후일시부터 이천공회당내에서 이천면장 최규환씨의 개회사와 연사의 소개등이 잇슨다음 김태치씨가 청중에게 약이시간가량 열변을 토하야 일반에게 만흔감상을 주엇스며 더욱히 군내중요지에서 순회강연까지 한다는데 [illegible]에서 시국강연을 하기로되엿다고한다

春秋兩繭모두增産 百十萬圓의巨額

投機的企業化만을嚴重警戒 京畿道養蠶도飛躍的好績

農家副業의王座

경기도농무과에서는 판내농가의 제일는부업이되는 양잠(養蠶)에대하야 그전부터 투기적또는 기업적 경영을 피하야 어대까지던지 농가부업의 성질상농가의잉여로력(剩餘勞力)의 리용을 기초로하야전가족의로동으로써 로력환금(勞力換金)의 실을내고저 노력하여오는결과 근자에와서는 그양잠성적이 현저하게발전하야 금년춘잠(春蠶)도 공판(共販)된것이 륙십칠만칠천팔백륙십칠원이엇고 개인판매가 구만륙천칠백삼십삼원으로 합계 칠십칠만사천륙백원이라는 놀라운성적을 내엿고 이번추잠(秋蠶)에잇서서는 공판량(共販量)이 [illegible]관(貫)에 가격이 삼십사만칠천팔백칠십일원이고 개인판매량이 [illegible]원으로 이를합계하여보면 [illegible]에 달하야 금년 일년의 춘추잠합계가 일백십만원에 달하고잇다 이러한 성적은 근년에업던 대호성적으로 경기도판내의양잠호수가 약오만구천호에 달함으로 매호당 약이십원식이나 농가수입이된세음이다 어수일도농가에서는 돈이 제일귀하게쓰이는 불모내기전과 가을추수전에 엇는 현금수입이어서 경기도농가에서는 이양잠의 덕택을 크게입고잇는것이다 금년의 이조흔성적에 한층더 힘을어든 경기도농무과에서는 금후 일층더그장려개선에 나아가게 되엿는데 첫재양잠의장려를 농가의 개생계획에 통합하고 식상(植桑)에잇서도 개생계획에따라 조방적(粗放的)경영을 고처서 잠업증산의중진과 경영법의 합리화를 책려하야 잠사의안까생산을 도모하고 또는 상전(桑田)비료의자급과 공판(共販)의정량(正量)추인을 장려하기로 되엿고 양잠지도원의설치등 제반시설의충실강화를 하게되엿다

가마니飢饉酷甚 正租그대로出廻

江華精米界도打擊

【江華】강화 정미업계에도 곡용가마니(穀用叺)대기근으로인하야 타격을 밧는데 이는 오로지가마니 생산감축으로 자처하는 강화에잇서 일반의 큰수요켜기가 회에서는 종래곡용가마니를 생산치안코 다만 비료 염용곡용등으로 이왕에 잇서도 역수입을하야 사용하고 잇섯다는 현상으로 밀려드는 현상에 엇지 할수업는 강화군내 정미업자는 이제와서 그대책을 강구하야 보앗스나 별조흔 방법이 업스므로 하는수업시 정조그대로 출회하는 비참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엿고 이에반하야 일반에잇서 부족되여오든 연료(燃料)를 대충대일길이 끈허지게 되여 세민층 주방경제에 잇서도 일대영향을미치엿다고 한다

開城에굴러들어온 大膽한少年少女

男妹로假稱코旅館에投宿 綻露되여警察에留置

【開城】지난이십사일밤 일곱시경 개성부내 서본정(西本町) 조선려관(朝鮮旅館)에 나이겨우 십사오세밧게 안돼보이는 양장에 단발까지한 소녀한명과 학생복을입은 소년한명이 한방에 투숙하면서 밤이깁도록 무슨이야긴지 속은대고잇섯다

그이튼날 순시온 경관이 물으매 그들은 오경숙(吳慶淑)(自稱十三歲)오경복(吳慶福)(十五歲)이란 남매로서 선천(宣川)으로 새남편을어더시집간어머니를차저갓다가 학대가 심하므로 다시 아버지를 차저 부산(釜山)으로가는 길이라고 대답햇스나 얼굴모습이 갓지안흔것이나 또는 소녀에겐 너무나 분수에넘치는 장신구(裝身具)를 가젓슴에 아모래도 수상하야 이들남매를 본서로 다려다가 문조한결과 이들은 실상인즉 남매가아니라 사랑에눈이른 홍롱한련남련녀(戀男戀女)로 그남매로 성으로 밀월려행(蜜月旅行)의가지고 천기려판을 회혼곳방으로삼어 운월지몽(雲月之夢)을 꿈꾸웟다는 것이다 아직젓내가나는이들이 이가튼 불의의정을 매젓다는데는 취체하는 경관을 그만아연(啞然)케하엿다 이들은 어떠케 맷게되엿스며 려비는어떠케 통해내게 되엿든가?

×

원래기생의 몸에서 태여난김경숙(金慶淑)(一三)(自稱吳慶淑)의 本名은 본적을 부산에두고 열살부터 부모의따스한사랑의 그늘을떠나 일정한 주소가업시 남의집에봐주는 고용녀로 기생집하녀로 떠도라 다니는 처에 고아로서 그는지난봄부터 함흥역전(咸興驛前)에서 모오좌정을 경영하는일본내지인 좌좌목(佐佐木)의 집에서 고용녀로 지내오든중 아모런교육도업고 누구의지도도업시 자라는 그에겐 매일보고듯겨온것은 사랑과허영 이것박게업섯다 그래 아직 철잘알면해야할 경숙소녀는 일즉이 이성에그리움을 알게되엿고 따라 가지회장을 얼골에 분대를빗칠엿든것이다 그래서 그는지난이월밤 주인아씨가 끈히사랑하든 [illegible] 현금[illegible]원을 훔처가지고 [illegible] 선천(宣川)까지 갓든 것이다 그의말에 의하면 이곳엔 자기양어머니가 잇는데 그를차저 자기몸을 의탁하려햇든것이라한다 그러나 결국은 양[illegible]

[illegible]울우해보고십허 가치살동무가되기를 청하얏다 그런데이소년역시 부모의정을모르고서 부랑하는 불행한고아로서 [illegible]의 아들 한인구(韓仁求)(一七)(吳慶福의本名)로 한때는 평양모양복점에서 양복견습생 노릇을하다가 실직을당한후 신의주(新義州)로직업을구하러가다가 실패를보고다시 평양으로 도라오든길이엿다 이때에 [illegible] 경숙은 [illegible] 위로해주든 나머지에 나와가티 부산가면 아버지께 사정을말하야 양복직공으로 취직을 시켜줄테니 가치가자고 그를 꾀엿다 그래 평양서내릴 「권군」소년은 경숙이가 사주는 부산가는 차표를 바더가지고 개성까지오게되엿다 그리자 경숙은 개성이 구경할곳이 만타고 도중에 하로ㅅ밤 려관에서 자고 구경이나 도라다니다가 자고하야 이틀은 지난 어제사일 개성역에 내리게되자 경숙은 권군에게 학생동복과 양말구두등 의복일습을 사서입힌후 리발까지 시켜주워 랄루하기 짝업는 여소년은 당장 남부럽지안케 호사를 하얏다 그리고[illegible]

"김장"지낸仁川街頭에 汚穢物을放置山積

掃除料金은 초롱초롱바더가고 等閑視함에府民不平

【仁川】매년주기를당하면 항상 문제가되여잇는 김장은 벌서그 시기를 지나고잇스나 인천가두에는 처처에 김장쓰레기가산적하야 심한곳은 통행조차자유롭지 못하다한다 물론 금년뿐 아니라 매년 문제되는 더러 오물소제료를 징수하고잇스나 명년[illegible]까지는 현정부인한 소제료를 징수하기전이나 다름업시 등한시하고잇슴으로 정부인도 금년까지에 사업이 태만하야지고잇는반면에 오물만이시란도 오물소제료를 징수하는이상 종전보다는 좀더충실한감독을 하여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상 적지안흔문제가 될뿐아니라 이것이 동결(凍結)되면소제하려하나 할수업는 지경에이를 것이라하야 시민부민의 불평만 날로 비등되고 잇슴은이라한 내용처에 산적하게되야 부민위다

叺飢饉의救急策

各郡에增産奬勵通牒 約一千五百萬枚는緊急需用

경기도의 금년농형은 미작(米作)예상고 어백삼십만석이라는대 풍을 어르잇서 농촌에서는 작년의흉작끄치라 바야흐로 희색이 돌고잇는데 미곡을담을 미곡용가마니(米穀用叺)가 크게부족하야 큰곤난을 밧고잇서 가마니갑시 엄청나게 폭등하고잇다 매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가마니는 약 일천이백만장에달하는데 금년에는 약일천오백만장은 잇서야 할터이나 방금도 내에는 중앙선(中央線)공사며사금(砂金)채취등의 벌이자리가만흔관계로 자연농민들이 급한대로 그리로흘러서 농한기에가마니생산에주력하지안케되는 현상에비최여 경기도농무과에는 방금이가마니의 공급난을해결하고저 각군의농회에 통첩을발하야 가마니생산을 적극적장려하고잇다

第二次滿洲移民

江原道에서二七○戶 明春四月頃에移送할計畫

【春川】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의 제일회 이민공작으로금춘 강원도에서 칠백호를 만주국 간도성 안도현(滿洲國間島省安圖縣)에 이식을 식혓다함은루보한바어니와 명춘을 기하야이백칠십호가량 배당에의하야 이번에부터 그준비에 급급하고잇는데 대체로 김화(金化) 회양(淮陽)등지에서 모집할터이다하며그중 우수한자를 선택하야 세포(洗浦)이민훈련소에 입소케할계획으로만반준비를 거듭하고잇다

三吉社會主事談

이민사무담당자(移民事務擔任者)인 삼길사회주사(三吉社會主事)를방문하니 다음과가티말한다

「강원도(江原道)농민은 소식(粗食)에견되고 성품이순박(淳朴)하며 인내성이만흠으로 이민에는 가장적당하다 금춘의이민(移民)에도 상당한성적을나타내이고잇다 명년도강원도로서 오백호까지는 넉넉히 모집되겟스나 배당이 얼마되지아니함으로 그중에서신청을 하여야되겟다 여하간개척지(開拓地)이니만치 우수하고 농촌을 가진자를보내지안으면 효과를 나타내일수업슴으로 인선문제에 우리로서는상당한고려를 하고잇다」운운

船腹不足에運輸難 鐵道便으로輸送

京濱、阪神地方에가는移出米 穀港仁川의窮餘策

【仁川】경빈(京濱)관신(阪神)지방에서선복이 부족되야 인천미곡계에 적지안흔타격을 밧게된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근일은월수회에 불과하든선복도절영된상태에 함하야 그야말로이출미에잇서서 선편수송은 절대불가능하게되야 종전에는대판(大阪)신호(神戶)등지의 부두에서수도착제로 매매하게되든것이 선복부족과 한가지부득이철도편으로수송하야 부산(釜山)부두에서 수도하지아니하면 아니될만한정도에일으러 그불편으로 운임에잇서도매석(石)홍십전이나중가되게되야 상방미영자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는것과한가지 업계에적지안흔 타격을 밧게되야 각방의천에는 미증유의 치명상을 주고잇다한다

四千七百餘圓으로 自作農七戶創設

江華에서今年度에

【江華】강화군내의 지주관계를 조사컨대 군내지주가 구할이분요 군외지주가 불과할분에 지나지안는다면 전조선을 통하야 례가업는 복지임에도 불고하고 군내에 지주 소작관계를 보면 이는 년부터 상당이상으로 대립되여잇다 이리하야 군내에 소작농가를 자작농가로 전화시키기 위한 자작농창설운동은 년년이 그성적에잇서서 호조를 보이고잇는바 금년도 창설된 자작농가의 수효는 모두 일곱호인데 [illegible] 논이 [illegible]평 밧이 [illegible]평으로 이에드는자금이 사천칠백[illegible]원이라 한다 이로써 자작농 창설사업이시작된이래 모두 [illegible]호로써 이들의 생활정도에는 다소의향상을 가지게한다 그리고금년도에 설치선정된 사람은 다음과가티한다

佛恩面斗雲里 吳炳一 資金四五一圓 吉祥面吉祥里 吳泰吉 資金七二○圓 河岾面望月里 黃永吉 資金八○○圓 同 徐[illegible] 資金七一五圓 河岾面[illegible] 韓禎洙 資金八○○圓 吉祥面[illegible] [illegible] 資金七七○圓 府內面南山里 李斗賓 資金四八○圓

胚芽米一萬袋 名古屋에移出

【仁川】백미는 거개배아(胚芽)를여새이것으로 이를 항상식용으로 사용하고잇든바 근일은명고옥(名古屋)지방에서 배아미를 식용키로 결정되여 동지국을바든 조선내각정미소에서도 배아미를 제조하게되자 검사소에서까지 금년도 시작부터 배아미를 검사실시키로되야 인천조선정미회사에서는 일량금 일천오백대(袋)를 생산할수잇는 기계를 설비하고 일회작품 일만대(袋)를 지난이십칠일 명고옥으로 이출하엿다는데 통배아미는 배아(胚芽)가 칠십내지팔십퍼센트가 달리여잇서 가장우수한것으로 영양가치가 가장만타하며 이를또한 하기(夏期)에 발아할우려가잇서 "하도롱"지로써서 이를포대에 느엇다는 그야말로 조선정미계에 일대변혁을 일으키고잇는 현상이라한다

地方人事

◇高龍男氏(江華[illegible])今般本町署에 榮轉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張昌鎬氏(朝鮮信託江華駐在主任) 新任人事次同上

◇崔海鵬氏(東亞日報伊川支局長) 三男命根君과 朴玉蘭의 華燭典을 十二月二日 午前十一時 伊川邑禮拜堂內에서 尹滋學牧師主禮로擧行豫定

初等敎育 京城府의計畫進捗

回基町과上水溢町에 新設普校基地選定

校名은清凉、西江으로決定하고 基地代金은兩校에九萬圓

경성부의 금년도예산으로신설하게된 청량(淸凉) 서강(西江) 두공립보통학교의 신축경비의 기채인가(起債認可)는이미보도한바와가티 수일전에야 겨우나왓스므로경성부에서는곳그 기지(基地)로 [illegible]매수하기에착수하엿는데 평수는각오천평식이며 건평(建坪)은 각일백오십평이고 철재(鐵材)가 비싼탓으로 [illegible]로 벽돌로서 이층을지게될터이다 그외지는 본보에이미보도한바와가티 청량보통학교는 회기정(回基町)시조월보사(時兆月報社)뒤동리로 또서강보통학교는상수일정(上水溢町)와우산(臥牛山)미르로결정하엿다 그리고 두학교의기지매수비는 구만원으로결정하엿다한다

明年度의新起債額 七十三萬五千圓

京城府第二部特別經濟豫算 約廿四萬八千圓增

경성부소화십삼년도의제이부특별경제예산(第二部特別經濟豫算)은대략총액일백구십사만오천이백원가량으로 내정한모양인데 금년도(소화십이년도)의 예산에비하면 약이십사만팔천여백원가량 증가되게될터이라한다 예산증가로말미암아 신계획사업을 보면 보통학교두개의신설은 초등교육확충십개년계획에따라 예정대로 실현될터이나 보통학교졸업생으로 입학할 어린수용정도의 고등과(高等科)를 두곳에신설할것과 삼년제수업정도의 원예실수학교(園藝實修學校)를 신설할것을 계획하게된것이며 간이학교(簡易學校)증설도 계획하게된대문이라한다 그러고 명년도의 신기채(新起債)액은 약칠십삼만오천원가량될 예정이라한다

工場鐵道新設

【仁川】인천부외일대에 중공업공장이 계속적으로 진출하고잇슴은 계속보도되는바와갓거니와 동공장들은 공과한가지 제강(製鋼)기계제작 차량회사등의 제품과 또는철재(鐵材)등 중량물의운반으로전용될 북부공장지대의 철도는 하인천(下仁川)역으로부터 해안을통하야 약이『키로』여백에해당하다는바 근근그준공을보게되야 개통케되야 공장지의면목이 일층쇄신되리라한다

新築中의大和公普 來十日부터開校

새로仁川府鶴翼町에

【仁川】보통학교부족으로 학령아동이 취학지못하는아동이 수천에달하는 인천의교육계는 그참담이 짝이업는바 금년하기부터 부내학익정(鶴翼町)에 건축중인 대화(大和)공립보통학교는 근근 그준공을보게되야 오는십일부터 개교키로되얏다는데 교사는 사십오십평에 십이교실 운동장은 사천여평에 달한다하며 방금 창영(昌榮)보교에서 교수중이든 일학년아동이 통학키로되얏다는데 칠팔세의 아동이 통학하기에 극난한점이잇서 부형간에는 적지안흔 우려가되야잇다한다

本報讀者慰安音樂映畫大會

時日 十二月八日부터一週間(每日 午後六時半)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招待券 十二月五日現在讀者에게進呈함

種類 映畫 本社製作映畫三卷、隊長뿌리비九卷、薔花紅蓮傳七卷 音樂 빅타管絃樂團及歌手總出演

主催 朝鮮日報社

胃腸特效藥 內用電氣 即治水

◉胃腸良藥突現!

◉이廣告를 普通廣告로 보시지마시고 꼭보시며색이시요

藥價 四圓 四十日分 貳圓 十八日分 壹圓 八日分

帝國政府專賣特許局登錄認可까지 所有한胃腸藥界에서 寵愛밧기를 於茲二十餘年間이란 長久한略歷을保持한 此即治水란藥은 效力이越等하여도 여러類似藥에 欺瞞되여서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苦生하신분이 非一非再인故로 眞實한 藥效를 모르시는분이 만습니다 그러나 胃腸病으로 呻吟하셧다가 即治水를 先服하신분은 驚嘆的藥效에는 異口同聲으로 巷間에好評이 藉藉하나 아즉服用치안흐신분은 참으로 胃腸病特效藥의 實現을滿喫하실것이고 자연히即治水에 稱讚을하시게되여 엇재서 即治水란藥을 이제야 廣告하게되나하시고 後悔도나실것입니다 本舖인 漢城藥館에서 도벌서 벌서부터광고를하여서 即治水를팔며 新聞이나、雜誌에다가 작고 廣告를내여서 胃腸病으로 苦生하신분을 만히 곳치엿습니다 即治水가 효력이업스면 광고를하겟스며 지금은 廣告를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광고하기는 어렵지안흐나 효력업는광고를하면 其後부터는 俗言에꿈적도못합니다

◎即治水의原料內容(即治水는엇더한藥인가)

即治水는 原料가純漢藥으로된 여러가지藥을 採取하여다가 잘말니고 淸水에다 淸潔하게씨처서 機械로기름을내인 純漢藥임으로 朝鮮사람이매옵고、짜게먹는胃腸에는 참으로 잘듯는약이올시다

◎即治水는 엇더한병에쓰느냐하면 左記와갓흔 胃腸病에 藥效가 卓越합니다

오래된속병、체하여서 배아픈대、미루체로인하야 각금설사하는대、아래배압흔대、위장이약하여서구미가업는대、담으로속압흔대、가슴아리、조곰한음식만먹어도속압흔대、여름서체잇는대、토사곽난등에먹으면 아모리오래된속병이라도即治水를 먹은지 몃시간이못되여서 속이시원하며 약효가참으로 신기하게 남니다 즉치수(即治水)가 이런약효(藥效)가 잇스니까 속병으로 고생(苦生)하시는분은속으시는심치시고복약(服藥)하시면참으로 약효(藥效)를아실것이오니좌기본포(左記本舖)로 注文하시요

京城府樂園町二〇九番地 漢城藥館本店

明治の菓子

品質・榮養 風味・共히 優良無比!

宮內省御用達 明治製菓株式會社

朝報案內

社員招聘 北、慶南、全南各地ニ亘ル有力ナル社員募集ス 經驗ノ有無ヲ問ハズ 希望者ハ履歷書ヲ添附セラレタシ 釜山府寶水町ノ三二(電一九二六) 日清生命釜山出張所

外務社員招聘 保證有無不問 年齡二十五歲以上의有力人士 朝鮮內各地 京城府長谷川町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京城支部 電話本局二一二三、二四番

ミシン係募集 一、販賣員內鮮人男女經驗不問數名 一、採用年齡二十五歲ヨリ四十歲迄 中學卒業以上 一、待遇 保給 一、應募 履歷書添附乞 締切十二月三日 京城府大門通京城ビル五階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時期切迫!! カレンダーの御下命은 電光一九一〇番으로 カレンダー 京城西小門町五四 製造 杉本商店 京城支店 本店 大阪

名藥案內 米國最高 强壯劑 肺病、腸胃不足、神經衰弱、心臟病、淋病、一般虛弱、痔疾 貧血症으로 [illegible] 米國에서 製造한 世界最高級强壯劑 『코카-콜라-』를服用하시요 [illegible] 洋行總代理店 韓正洋行 電光一八七八 振替口座京城二七、二三〇番

婦人服의御下命은 ミヤコ로 電光一六五五 移轉先 本町四ノ二

レコード 蓄音器 樂器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西區伏見町三 卸問屋 菊谷商店 電話本局三四五一 振替名古屋二三一八五番

仁川支局 電話開通 電二九〇番

醫師試驗準備書 京城府新設町一二三九 漢鮮文醫學講義 [illegible]

中央館 本町二丁目 每日晝夜三回興行 都會の旋風 馬白の怪人 マンハッタン夜話

黃金座 日活 12月1日ヨリ5日間 八丁濱太郎 彈丸か投票か 支那事變速報 王者の廣告 全鮮で一番早いニュース

優美館 上州熱血兒 戰ひの曲 戰捷ニュース

第一劇場 十二月二日より特別大封切 五十六番街の家 男の償ひ

明治座 松竹キネマ 11月29日ヨリ上映時間表 豫告篇 11・20―11・38 番町皿屋敷 11・40―1・33 ニュース 1・38―1・56 眞珠と未亡人 1・59―3・35 "The Last of Mrs. Cheyney"

團成社 北支事變ニュース 丹下左膳 禁男의집

硫安의生產、消費 日本이世界首位

生產二一、二% 消費二七%

日本에잇서 販賣肥料界에 支配的 地位를 占하고잇는 硫安은 肥料中가장 重要視되는 硫安의生產에 對하야 全國的에서는 需給推移의 基礎的 資料로서 世界主要國의 動向을 調査中이든바 이것을 모아서 發表하얏다 이것에 依하면 世界各國의硫安生產은 數年前까지는 直時獨逸을 聯想할만큼 獨逸은 硫安界에잇서 巨大한 地步를 占하고 一九二六─三〇年의 五個年平均生產額은 二百四萬五千噸에 達하야 全世界의 生產額四百二十三萬一千噸의 四七%를 넘어서 約半에 가까웟스나 其後는 次表와가티 激減하얏다

(單位千噸)

	一九二六─三〇年平均	一九三三年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世界總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 新興硫安生產國으로서 日本의 增額는 顯著하야 一九二六─三〇年間의 年平均生產額은 二十四萬噸이엇스나 一九三五年에는 其後 生產이 急增하야 드듸어 世界의 首位를 占키에 至하야 그生產額은 世界總生產額의 二一、二%에 當하얏다 다음으로 消費方面을보면 이것도 左表와가티 一九三〇年以來 日本이世界第一位로되어 一九三五年의消費比率은 世界의 二七%에 達하얏다 (單位千噸)

	一九二六─三〇年平均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班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露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購入의低資

三百萬圓融通決定

金組貸付利率六分以內

農家의 肥料購入及 其代金決濟資金 又는 金融組合、產業組合、農會의 肥料購入資金으로서 預金部資金局으로부터 朝鮮銀行 東拓、金組聯合會에서 各百萬圓式三百萬圓을 融資하야 金融組合、產業組合、農會、或은販業者에 貸付又는 金組를 經由하야 農業者에 貸付하기로 되엇는데此資金의 金組貸付利率은 大體六分以內로 할모양이다

棉花栽培損失補償

本年度以降實施

一日附로各道에通牒을發送

農家收益安定方策

農林局長談

棉花의 增產獎勵에 關하야서는 昭和八年積極的計畫을 樹立하야 實施한 以來 五年間諸設의 施設充實에伴하야 極히 順調의 成績을 擧하고 特히本年度는 關係官民의 努力과 天候의 適順과相俟하야 實棉生產高二億四千萬斤이라는 最高記錄을 示하얏다

그러데 棉花의 價格은 專혀 海外主產地의 豊凶或은 世界的經濟事情의 變動等에依하야 左右됨으로 其騰落이無常하고 延하야는 農家의 收益을不安定케 함으로 棉作을 危險視하는結果 豫定計畫의 遂行上支障을 招來할 念慮가 업지안흠으로 今後 增產計劃의 達成을 確保함에는 棉價의 暴落에 備하야어떤 程度까지 農家의 收益을 安定케 하는 方策을 講究할 必要가잇다고생각하고 其具體的 方法에 對하야 硏究한結果 本年度以降 道農會로하야금 棉花栽培損失補償에關한 施設을 實施케하기로 하고 農林局長이 十二月一日附 各道에 對하야 通牒하얏다.

一定價格基準

昂騰時는超過額一部를積立

低落時는積立金으로써補償

本年度는十三錢及七錢

本施設의要點은 專혀 相互共濟의 精神에共하야 棉價가一定價格以上으로 昂騰한境遇는 販賣者로하야금 其超過額의 一部를 積立케하고 一定價格以下로 低落한境遇는 該積立金으로써其價格에 達하기까지 補償을行하되 이境遇에 積立金에不足을生한時는 實棉一斤當一錢을限度로 서國庫補助金을 交付하기로된點에잇다 그리고 積立金積立及補償金交付의 限界價格은 諸般의事情을勘案하야 今年度는 各其各等平均價格十三錢及七錢으로 決定하얏는데 이는一定不動의것이아니오 經濟事情의 變化에應하야 適宜更改할것이다

棉花의增產必要

原料資源自給上으로

朝鮮의責務는重且大

支那事變을 契機로 國際收支適合을爲하야 或은 軍需의圓滑을 期하는데잇서 各種原料資源自給은 焦眉의急이며 就中棉花에 對하야서는 特히 國內增產의必要가 緊切한터로서 帝國版圖內 唯一의 生產適地인 朝鮮이負하는 責務는 重大를 加한때에잇서서 棉花栽培損失補償施設의 適切한運用에依하야 今後一般農家가 安定하고 棉花增產에 精勵하도록 切望한다

公森副總裁

結局留任?

松原純一氏의 鮮銀總裁就任決定에關聯하야 現副總裁公森太郞氏의 進退는자못注目되는데 諸般情勢를 綜合하면 公森副總裁는 留任되리라는 觀測이만타 即一、公森副總裁의 性格으로서 小乘的인데 拘泥되지안코 鮮銀의 現業務에 目下全力을傾注하고 工作을進하고잇다 一、松原總裁는 鮮銀에終始한關係로 中央과의 連絡上에 公森氏를通할 必要가잇서 留任을 觀測한것이다 그리고 留任이確定되면 公森副總裁는 主로東京에 駐在하야中央과의 折衝其他를 擔當할것이라고보인다

棉花統制料

朝鮮不徵收

朝鮮棉花統制問題는 二十九三十兩日大阪에서 棉花統制委員會의 結果 朝鮮의統制料는 原則으로서 徵收치안키로 決定하고 但今年買付分은 豫定대로擔五圓을徵收하되 이것을 朝鮮農村에 還元하는方法을 講究키로 되엿다 同委員會에出席한 千田林農局技師로부터 入電이잇섯다

中旬鐵道收入

鐵道局十一月中旬의 收入槪算은 旅客八十八萬六千四百六十五人 收入八[illegible]

米移出三割增

粟輸入八割減

十一月中의米粟出入

財務局調査＝十一月下旬의 朝鮮米移出은 三十九萬一千九百四十三石으로 比前年同期小增이며 十一月計는 百十五萬八千二百九十四石으로 比前年同月 二十五萬五千二百四十九石의 增加이엇다 大豊인 朝鮮米移出이 이만程度의 增加에止하것은 船腹不足의 影響에 依한것으로보인다 粟輸入은 十一月中에 八千八百七十四石으로 比前年同月三萬千三百四十六石(八割)의激減이엇다

全世界的으로

朝鮮產品進出

滿洲事變時보다十倍로膨脹될

今年의朝鮮對外貿易

【總督府發表】十一月中의朝鮮對外國貿易槪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圓)

▲輸出

		前年同期比增減
朝鮮產	[illegible]	[illegible]
內地產	[illegible]	[illegible]
外國產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合計 [illegible]
▲出入超 出超 [illegible]

一月以降累計는如左하다

		前年同期入超
輸入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右에基하야 本年의對外貿易總額을豫想하면 輸出一億一千三百萬圓(從來의最高記錄의五割五分增)輸入一億三千萬圓(同一割五分增)으로되어 總貿易額二億四千三百萬圓을示하야 新記錄을現出할것으로보인다 여것을滿洲事變當時의 昭和六年對外貿易額에比하면 十倍에達하는 躍進이다 이가티朝鮮의 對外貿易이 躍進되는理由는 비단滿洲方面或은北支關係의貿易이 增加되는데만 止치안코 南洋、亞弗利加、南北米等 全世界的으로 朝鮮產品이 進出되는데도重大原因이잇다한다

海運市況硬化

傭船料遂十圓

近海海運市況은 海運自治聯盟의自制에依하야 着着効果를 收當한데이것은 中旬、下旬의配船에 依하야 加減케되엇다

長津江電力

京城送電開始

劃期的經濟的合理的

◇…山田遞信局長 談

十二月一日부터 朝鮮送電株式會社에 依하야 長津江電力의京城送電이 開始되기에 至한것은 欣喜하는바이다 朝鮮送電株式會社에서는 去昭和十年 長津江水力發電所와 平壤間에 約二百粁의 送電線路를建設하고 發電所의 運轉開始와同時에 平壤地方에의 送電을開始하얏섯는데 이어서第二期工事로서 平壤、京城間約二百粁의送電線路及 京城變電所의 建設工事에 着手하야 今回完成되어 長津江水力發電의 京城送電을 開始케되니 이것은 電元의 成鏡南道의 部水力發電所로부터 말하면 互長이 實로約四百粁에 達하고 此間에 二百平方耗의 鋼心알미늄電線 二回線을 添架한 鐵塔을 連하야 十五萬四千볼트의 電壓으로써送電하는것으로 其距離 電壓等送電線路의 規模가 크로 朝鮮에서는 劃期的인것일뿐아니라 全國的으로도 有數한것이요 이送電及 變電設備의 建設費는 總額五百萬圓에 達하다 京城 仁川 水原地方에서 使用하는電力은 現在 最大約三萬二千키로와트로서 其中 二萬三千키로와트는 唐人里 火力發電所로부터 殘部는 金剛山水力電氣로부터 受電코잇스나 今後는 唐人里火力發電所를 準備로하고 其電力은 長津江으로부터 受電키로되엇다 如斯하야 長津江水力의送電은 送電線路로서도 劃期的인것일뿐아니라 朝鮮의 天然動力資源을 全朝鮮的으로 開發하야 統制잇는送電網에依하야 發電所相互間과 어와 需要地와를 聯繫하야 全朝鮮에互한 合理的 供電組織을 完成하고 豊富低廉한電力을供給이 또確實히 供給코저 確立되어 目下 着着實現되는中인 電力統制計畫의 中心이되는 重大使命을 가진것이다 어意味에서 長津江의豊富한 電力이經濟的合理的으로 朝鮮의心臟部인京仁地方에 送電開始케됨은 極히意義가깁고 欣快에 不堪하는바이다

米運賃引上

一日實施

上旬配船三萬八千噸

朝鮮米運賃의 改訂은 十二月一日부터 阪神向十圓引上인百五圓 京濱向三十圓引上인 百四十圓의 新運賃이 一齊히實施되엇는데 朝鮮米輸送協會의 十二月上旬配船豫定은 阪神三萬八千噸으로 昨年十二月上旬의 積取實績二萬一千噸의 約六割에 當하고 運賃協定의 前年實績四割二分增以上에 相[illegible]

平北鐵道認可

定州─朔州間

鴨綠江水電建設의 前提로서同系統에서 起業計畫中인 平北定州로부터 朔州에通하는 平北鐵道株式會社는 私鐵建設認可를受하야 準備中이든바 三十日京城에서 正式創立되엇다 會社는 資本金一千萬圓十分의一拂込으로 定、期間 一六五키로에 廣軌鐵道建設을 目的으로하고重役陣容은 社長野口遵 專務久保田豐 陣信 澤慶治郞三氏이오 其他役員은 鴨綠江水電과同樣이며 事務는 前局鐵理事澤氏가 晉掌하기로되엇다 〇野口系諸會社朝鮮밀링으로移轉＝野口系의朝鮮밀링은 完成되엇는데 同밀링에는 朝窒關係各社等 左記十社가 들어가게되엇다 日窒事務所、窒素販賣會社、朝鮮鑛業開發會社、朝鮮밀링、鴨綠江水電株式會社、長津江水電會社、朝鮮送電會社、端豐鐵道會社、平北鐵道會社、朝鮮마이트會社、朝鮮石油會社、三菱商事、三菱鑛業、安宅商會、南鮮合同電氣、日本航空輸送、西松組

株式

一轉上放 暴騰

今日의市勢(一日)

十七萬一千七百七十三圓이고 貨物은手小荷物千三百八十九噸、貨物三十二萬百七十噸으로 收入은 百二十九萬三千八百二十七圓 合計二百十六萬五千六百圓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十三萬五百九十一圓의 增加이다

前場奔騰 昨日配當落後의 急反騰로 東阪兩地의市勢가 硬化한바람에 兩國의情勢好轉을두려워한賣方은 [illegible]하야 今朝의 外電高도 加擔하야 朝米의暴騰으로 東新은마처내 百五十九圓六의 新高價로 奔進하고 鐘新은二百四十二圓丁을 보엿스며 大新도八十八圓臺를 回復하는等 買人氣는 衰退키難한바잇섯는데 結局高價大引으로 前場을마치엇다

後場鐘新高 後場은 東新四高、鐘新九高로 續騰裡에 寄付한後、綿絲人絹等高品高로 鐘新은 二百四十七圓臺로 奔進되엇다

再次上放

오래동안 中段保合을 繼續하야 四國의 好轉되는 諸情勢에 도 鈍感한듯한 步調를보이든市勢는 昨日의 配當落의 反騰으로 探相이 變한듯하드니 今朝에는 諸株모두 上放寄付한後 新高價에로 奔騰하야 近來에 드문活況을 목하엿는데 江陰、廣德을 占領하야 南京攻略이 目捷에잇스며 市場人의 願望을 어지럽게하는外交問題도 이제는 足히憂慮할것이업고 米國市場도 漸次底入模樣을 보여 이방面의不安도 解消되려하며 貿易은 出超를繼續하는等 어느것이 强材아니것이업는것만은 買人氣가 아니될수업서 다시 上進하게 된것이다 元來大勢買가 確實하것은 累累말한바 이므로 이趨勢 도한當리라 못되나 常識的으로 생각하면 이市勢는아직도 中段保持이 不足하엿다고 볼수잇는것만큼 거의 總買人氣와가튼 이場面에서 飛付買한다는것도 그리 妙味가잇서보이지안흐나 元來가 非常時局의 超常識的市勢이니만치 常識的解釋만으로 說明할수 잇을는지는 疑問이다

거의總買人氣

戰勝의 厳然한事實을 보고도 積極買氣를 보이지못하고 一種의國國의 壓力에 눌러서 萎縮을 不得已하엿든 오리保合에서上放하게되엿스므로 大衆은그것보아라하는듯이 萬人이면 萬人이모두 買하려는 場面이되고 말엇는데 爆殺的、奔進的을 內包하엿든市勢의不當한抑壓을突破上進한터이므로 그勢力이또한 輕視키難할 것으로 推測되는一面에 低價鐵이不足한市勢의急激한 上進은 이進取的이도한 적다는것도 認定치안흘수업스니 이點으로해서 此邊의 急進과 總買人氣의傾向으로보아서는 飛付買는 도한警戒될것이아니냐도생각된다 勿論 그러라고 大勢買를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國債

買氣强化 好勢

【東京電話同盟】株高의 好刺戟과 相俟하야 政府의 積極的援和工作으로 年末金融은 平穩 確實視되어 買氣漸次로 强化하야 오래만에 明朗한 場面을示하엿다 即 長期는 甲號五錢高 佛貨十錢高 實物은 四分利物에 買氣를보이고 米貨債는 傍觀이엇다

朝取代行初配六分

朝取代行會社에서는 十一月末日로써 第一期決算을 마금하엿는데 業績은 豫定대로 順調이어서 優先配當六分을 內定하엿다 總會는 來十二月十三日 朝取樓上의 本社에서 開催키로決定하엿다

期米

上鞘發會

低調

前場伸悩 今朝東京은 中限三圓六十五錢先限三圓六十五錢으로 同鞘發會로 阪地는 中限三

市場六感

萬人이大勢高를是認하고 年末高를 期待는하엿스나▲아직은中段保合을繼續으로보것이 退가 早速히展開으로 賣方의陷環境情勢의好轉으로 財界로서는 無엇보담 明年度豫算編成方針에好感을가진듯하고▲外交의懸案解消에 人氣가明朗化하엿스며▲더구나蘇聯이 漁業條約新提案한것으로부터실엇든 日蘇關係도 完全解消▲北支의明朗化로 貿易前途가 有望하여지는데 貿易은出超繼續▲이러한機運을 買方이노칠理이업서 畢竟上進▲그러나此處의急奔進을 老鍊側에서는 오히려 警戒하는데 人氣는 거의 總買人氣▲이런意味로는高價飛付는 어떠가하는데 超常識的이될지알라?▲一押이잇섯스면 理想的이다마는(金剛生)

(米)…今朝新甫發會는 東京은 同鞘、阪地는下鞘當地는上鞘로 發會되엿다 그러나大體는 同鞘나無異▲發會後 阪地는中限低로 當地는先限低로 中限示하고 同鞘量 과의同鞘▲그러데 阪地는漸次優勢를보이고 當地는 軟弱勢를示하다 此는 仕手의 關係▲아직도高價를 나커노흔것을事實이나 押目의程度가 문제입는지 今月은年末決濟의最終期로서의農家의賣物도 모든公課金의納入關係上 繼續出來할여러가지의條件으로보면 어느程度까지의反落을豫期치안흘가한다는觀이不無한즉 主客의對立이 도한관심거리일모양?(釜山)

應急法案實施

今月一日부터

第七十二議會에서 制定되엿든米穀應急措置法案은 어러타할만한 何等의法的條文이어서 荷見米穀局長은 最高公定米價의 一割以下에 買上한다는 漠然한答辯으로 時日을넘어엇스나 畢竟十二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發表하엿다 即十二年法律第九十號第二條規定에依하야 米穀의買入은 米穀統制法施行令第十二條第一項의 但書의 平均價格이同令第二條의 標準最高價格의 下値一割에相當한 價格以下될境遇에 限한다고하엿다 勿論 同法案의實施는 旣定事實이나 最高一割以下의 價格에 어떠한市勢에 該當하게될지 現下高米價로는此의實施는 不可能할것이오 此의實施는 不可能할것이오 新公定米價의 決定을 따라 비로소 標準點을 알게될모양인데 新公定價格은 적어도 一圓以上의 引上은 免치못할것으로 足히 豫測할수잇다 果如何?

仁川在米增加

廿八日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三三〇、三六二叺의增加를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五斗入二二、七六八叺 五斗入七四、三九入叺 ▲白米五九五八俵 ▲正租一一九、六一八叺 ▲大豆五、九七八叺 ▲小麥一、〇〇一叺 ▲粉米叺入二四二叺 俵入二、五五六七俵 ▲粟二〇〇叺 ▲荏子二、三三一叺 ▲蕎麥一〇七叺 ▲綠豆七九〇叺 ▲臨米二五〇叺

上鞘發會後

當地伸悩狀態

新甫二月限은 今朝東京은 三十三圓六十五錢의 同鞘로發會되고 大阪은中限三十三圓七十七錢인十二丁高로 新甫二月限은三十三圓七十七錢인七丁上高 九丁反高로 新甫二月限 七錢高로 當地는 中限三十一圓〇三錢인九丁下鞘로 發會되엿스며 當地는 三十一圓十六錢으로 九丁上보엿다 그러나 阪地와 東京의發會를示하야 各地가間의 比較的强味를 示하고 阪地는 比較的强味를 示하고 當地는伸悩의感이업지아니하다

後場低落

後場은 三十圓八十七錢인 十二丁低로 始値한後 二節八十八錢、四節八十四錢、五節八十二錢으로 阪地低에 不拘코 底强하엿다

朝鮮米七十七錢二十三圓二十三錢으로新甫二月限은 三十三圓七十七錢인七丁下鞘로 發會되엿스며 當地는 三十一圓三十四錢인 十六丁高로 新甫二月限은三十一圓〇七錢 으로 反落하여 發會된後 二節十九錢으로 最高八節〇七錢 阪地七十一錢으로 九丁上鞘로 發會되어 大引는 結局阪止六十六錢으로 三十圓九十九錢에 止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釜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十錢)

		今日終値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斤	[illegible]	[illegible]
고무靴時現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
朝取新	[illegible]	[illegible]
東株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illegible]
綿花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正米

傍觀裡에 保合

京城不變 定期堅調와 實物一巡으로 持米側도 幾分堅强한 態度를示하나 買方이地方實行不振으로 一齊傍觀態度를 가지고잇기때문에 商談은 進捗되지안코 市價는前日가티 保合이엇다 ⊕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三一、八五

仁川保合 內地買付一段落으로 移出側은 傍觀하고 目前의 產地出廻와 增加로 需給한市場이라고 買氣는 越月後에도 자최를감추어 消費市場의 그後鈍狀로잇서 市場은 消極的이되고 市價도 前價同樣으로 保合이엇다 ⊕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鐵坊主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多摩錦 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四一、八五 ⊕二、七五

釜山不變 市場賣物六千內外로 幾分 出廻를示하엿스며 朝米定期伸悩와 內地實行不振으로 一般은 消極的이어서 賣方의新材待로 傍觀하야 無活氣市場이다 ⊕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三、〇〇 四等

大邱保合 正租出廻는 順調를 告하고잇는때에 期米新甫平凡發會로 一般으로 殺極買氣는 보이지안코 越月後이나 場面은 閑散을 繼續하고잇다 ⊕穀良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一七五

群山保合 一般的이月將待의 人氣는 各地期米新甫의 順調와 小浮動米의 一巡으로 市中實物薄이오 買方도 目前集地의 實施凝後 風向으로 必需外는 買控하야 市價도前日同樣으로 保合이엇다 ⊗穀良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〇五 一等白米一三、一〇

木浦不變 天候盡天으로出廻가적고 入荷도 一層적어 各地期米의 新甫鞘狀을보고 買方도 需要의 手控를 살피고는 있으나 買가적어 市價도 前價同樣氣味로 不變이엇다 ⊗鐵坊主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一二、九五

◆朝取短期

		寄付	大引	低値
朝取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鐵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賣方	買方
朝取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新	[illegible]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日步	代引
朝取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取引店

期米 康益夏 仁川

海外經濟

銀行券 二日

◆英蘭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東京現株

	寄付	大引	高値	低値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株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寄付	大引	高値	低値
東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賣方	買方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寄付	大引	高値	低値
大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寄付	前引	後寄	後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鉛 重石 滿俺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鮮米期米賣買高

取組高 [illegible] 中 [illegible] 先
入帳高 [illegible] 中 [illegible] 先
出來高 [illegible] 中 [illegible] 先
合計 [illegible]
本期總計 [illegible]

◆大邱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四	五	六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米豆取引所前 三丁目

◆朝取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木浦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群山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四	五	六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釜山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株式 東 期米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呈贈書內案

京城物價(一日)

▲燃料(單位錢)
▲海產物(單位錢)
▲肥料
▲紙物(單位錢)
▲染料(單位錢)
▲洋灰 (五〇斤袋 單位錢)
▲砂糖(白斤 單位錢)
▲木材(才 單位錢)
▲毛絲(封度 單位錢)
▲人絹(疋 單位錢)
▲本絹(疋 單位錢)
▲牛皮(白斤 單位錢)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 一	二	三	四	五	六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前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後場 一	二	三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阪 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井 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井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D格 大九〇圓

砂糖

◆大阪砂糖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砂糖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糖 (ST) 賣買中値 [illegible] 五錢